



발간등록번호 54-6280254-000081-01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유물 자료집

경화루의 정미년 — 간판

경화루의 정미년
간판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유물 자료집

간판

중화루의 열쇠
—



총괄	유동현(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기획	신은미(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김민희(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논고	이정희(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주희풍(인천화교중산중학교 이사회 행정부이사장) 최경현(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조사·편집	김민희(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유물 출납 및 지원	윤현진(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정은(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원) 김소영(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원) 김재섭(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원) 이한나(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원) 이나리(인천광역시립박물관 연구원) 김진솔(인천광역시립박물관 연구원)
보존처리	서진문화유산(주) (주)엔가드
사진촬영	플렉스스튜디오
3D스캔	위프코(주)
자료제공	국사편찬위원회 김식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부극정 서문당 손덕준 손장원 인천광역시 중구청 조선일보 화도진도서관

일러두기

이 소장유물 자료집은 박물관 주요 소장유물에 대한 사업 성과를 정리한 종합적인 연구보고서이다.
도판의 크기는 가로×세로 또는 가로×높이 순서로 표기하였으며 단위는 cm이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은 소장처를 별도 표기하지 않았다.
유물의 명칭은 '간판'으로 통일하고자 하였으나, 전통적인 현판의 연장선상에서 현판 또는 편액이라는 용어도 혼용하였다.

자료집을 발간하며04

I. 조사 개요06

II. 중화루 간판 현황18

1. '중화루(中華樓)'명 간판	22
2. '신(新)'명 간판	26
3. '춘광화애(春光和靄)'명 간판	30
4. '파주임풍(把酒臨風)'명 간판	34
5. '악주조천(樂奏釣天)'명 간판	38
6. '승우여운(勝友如雲)'명 간판	40
7. 흑색 간판1	42
8. 흑색 간판2	43

III. 과학적 분석44

1. 수종 분석	48
2. 안료 분석	52

IV. 3D 스캔 및 정밀 실측78

1. '중화루(中華樓)'명 간판	82
2. '신(新)'명 간판	86
3. '춘광화애(春光和靄)'명 간판	90
4. '파주임풍(把酒臨風)'명 간판	94

V. 논고98

1. 근·현대 인천 중화요리점 역사 속의 중화루 이정희	100
2. 기억과 시각적 자료로 보는 화기(和記) 중화루 주희풍	128
3. 인천 조계지의 중국요리점, 중화루 간판들 최경현	148

자료집을 발간하며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매해 다양한 전시 도록과 조사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박물관의 주요 유물을 선정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소개함으로써 소장유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연구에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소장유물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발간되는 소장유물 자료집의 주제는 임술년 중춘(壬戌仲春)인 1922년 음력 2월에 제작되어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중화루 간판입니다.

중화루는 인천부 본정 1정목 18번지(현재 중구 신포로 23번길 101),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알려진 대불호텔 건물에서 1915년경 개업한 이후 약 60여 년간 운영된 인천의 근대 중국요리점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의 양식 건물에 금색 간판을 내걸었던 중화루는 1978년 건물이 철거되기까지 인천의 근현대를 아우르는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비록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중화루의 얼굴이었던 간판 8점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장유물 자료집에는 중화루 간판의 현황과 함께 보존처리를 통한 과학적 분석 내용, 정밀실측 및 3D스캔 결과, 전문가분들의 종합 논고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박물관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학계의 연구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유동현

조사 개요





I. 조사 개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소장유물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중화루 간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보고서 성격의 소장유물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중화루 간판은 인천의 근대 중국요리점이었던 중화루의 내·외벽에 걸었던 것으로 박물관에 총 8점이 소장되어 있다. 중화루 간판은 임술년 중춘(壬戌仲春)인 1922년 음력 2월에 제작되어 1978년 그 건물이 철거되기까지 중화루를 대표하는 얼굴이었으며 2021년 올해로 정확히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였다.

중화루 간판에 대한 소장유물 자료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 장 조사 개요에서는 중화루 간판의 유물 현황 설명에 앞서 중화루의 역사와 간판의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내용을 수록하였다.

II 장 중화루 간판 현황에서는 간판의 현재 모습과 특징을 살펴보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파악한 내용들을 수록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2019년과 2021년에 총 3차례 실시하였다. 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과 손장원 교수,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이정희 교수, 인천화교중산중학교 이사회 주희풍 행정부이사장이 자문하였으며, 중화루 간판에 대한 건축학적 관점, 문헌사학적 관점, 화교사적 관점 등 다각도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II 장에 수록된 간판 사진은 유물의 현 상태를 충분히 기록하고자 1억만 화소의 초고해상도로 촬영한 성과물이다.

III 장 과학적 분석은 2차례에 나누어 진행된 중화루 간판의 보존처리 결과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다. 보존처리는 유물의 보존 상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실시하였다. 2013년에 1차로 '중화루'명 간판과 '신'명 간판 2점에 대한 보존처리가, 2020년에 2차로 '춘광화에'명 간판, '파주임풍'명 간판, '악주조천'명 간판, '승우여운'명 간판과 흑색 간판 2점 총 6점에 대한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다. 이 중 2차 보존처리에서 진행한 간판 6점의 수종 분석 및 안료 분석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IV장의 3D 스캔 및 정밀 실측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소장유물 3D스캔의 결과물을 수록한 것이다. ‘중화루’명 간판과 ‘신’명 간판, ‘춘광화애’명 간판, ‘파주임풍’명 간판 4점에 대하여 3D 스캔을 실시하였다. 점밀도 1mm이하 정밀 스캔을 통해 사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유물의 세부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고 현상을 기록하여 디지털화하였다. 자료집에는 3D 정밀 스캔을 통해 구현한 도면 및 라인드로잉 결과물을 수록하였다.

마지막 V장 논고에서는 3편의 전문가 논고를 실어 중화루 간판을 통해 본 중화루의 역사와 근대 화교 사회의 복원에 대한 심도깊은 내용을 수록하였다. 첫번째 논고인 「근·현대 인천 중화 요리점 역사 속의 중화루」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역사학적 관점에서 중화루의 역사를 편년체 형식으로 파악하였다. 두번째 논고인 「기억과 시각적 자료로 보는 화기(和記) 중화루」에서는 비문자 자료인 사진 기록과 인천 화교 원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 근대 화교의 역사 속에서 중화루를 이해하고 중화루 간판의 명문과 고동기 문양의 전서(篆書), 배경 그림에 대한 해석을 풀어내었다. 세번째 논고인 「인천 조계지의 중국요리점, 중화루 간판들」에서는 동아시아 간판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고 그 속에 위치한 중화루 간판을 미술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간판으로서의 사회문화사적 가치를 조명하였다.

이번 중화루 간판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인천의 근대 화교사회를 비롯한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박물관 연구 성과를 반영한 소장유물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중화루 中華樓

중화루는 뇌소정(賴紹鼎, 뇌문조)을 비롯한 인천 화교들이 대불호텔을 인수하여 개업한 북경요리 전문 중화요리점이다.¹ 인천부 본정 1정목 18번지 소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알려진 대불호텔 건물에서 ‘중화북경 우등요리(中華北京優等料理)’점으로서 약 60여 년간 운영되었다. 1915년에 개업한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영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1910년대 인천에 대규모로 이주해 온 산둥지방 화교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 시기에 생긴 공화춘, 동흥루와 함께 인천을 대표하는 3대 요리점이었다. 하지만 1920~30년대의 영업 규모 및 자본 면에서는 이 둘을 앞섰던 것으로 나타나 인천 최대 규모의 중화요리점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중화루의 전신인 대불호텔은 일본인 해운업자 호리 히사타로(堀久太郎)가 1887년부터 1888년에 걸쳐 건축한 것으로, 붉은 벽돌로 된 3층의 양식 건물이었다.

메이지 16년(1883) 4월 부산에서 인천으로 내주한 호리 히사타로 및 호리 리키타로(堀力太郎) 부자는 가업인 함선 매입을 개시하였고 같은 해 말에는 일본 거류지 제11호지(지금의 본정 1번지)에 한 채를 건축하였다. 그리고 메이지 20년(1887)부터 21년(1888)에 걸쳐 벽돌로 지은 양식의 가옥(지금의 본정 1-18번지 소재의 중화요리점)을 신축하였다. 그리고 호리 히사타로의 풍모를 고려하여 대불(大佛)호텔로 이름을 붙였다(『仁川府史』, 仁川府廳 編纂, 1933년).³

대불호텔은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늘어난 외국인 방문객들에 의해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899년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어 경성까지의 이동이 1시간대로 단축되고, 러일전쟁 이후 인천을 찾는 외국인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영난을 겪다 폐업하였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皇太子殿下韓國御渡航紀念寫真帖』에는 일본 메이지 천황의 셋째아들인 황태자 요시히토(嘉仁, 1879~1926)가 1907년 10월 20일에 인천을 방문할 당시 촬영한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불호텔의 건물 사진은 ‘다쿠(宅)합명회사 인천지점’으로 표기되어 있다(그림3). 따라서 1907년 이전에는 대불호텔이 폐업한 것으로 추측된다.

- 1 김창수, 「인천 大佛호텔·中華樓의 변천사 자료연구」, 『인천학연구』 1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0, pp. 275-316; 손장원·조희라,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한국디지털발견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11-3, 2011, pp. 27-34; 이희인, 「서구 문물 교류 중심지였던 그 곳 … 붉은 벽돌 사이로 ‘인천 변천사’ 엿보기」, 『기호일보』, 2015.8.25. 등 참조.
- 2 개업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기존에는 1933년 편찬된 『仁川府史』에 근거하여 1918년경으로 추정되었으나, 이 자료집에 수록된 논고를 통해 1915년 개업이 명확해졌다. 자세한 내용은 V장에 수록된 이정희, 「근·현대 인천 중화요리점 역사 속의 중화루」 및 주희풍, 「기억과 시각적 자료로 보는 화기(和記) 중화루」 두 편의 논고를 참고 바란다.
- 3 대불호텔의 창업자인 호리父子 중 아들인 호리 리키타로(堀力太郎, 1870.7.7.~1932.10.17)는 나가사키 출신으로 1883년 인천에 온 이후 해운업에 종사하였다(〈堀力太郎救恤ノ請願ノ件〉, 1920년 및 『朝鮮新聞』, 「西海岸航路の開拓功勞者 堀氏の葬儀」, 1932.10.19. 등 참조).

그림1 인천 본정 거리 내 대불호텔, 1894년 7월 21일



출처: 화도진도서관, 『르몽드(Le Monde illustre)』수록

그림2 인천항 일본 거류지, 1900년대 중반



출처: 개인 소장

그림3 다쿠(宅)합명회사 인천지점, 1907년



그림4 한국 인천항 본정통 1정목, 1910년



출처: 화도진도서관

이후 이 건물은 몇 차례 전세로 임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화루는 개업 초기부터 인기를 끌었고 경성 인사들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仁川府史』에는 ‘중화루가 여기에서 영업을 시작해 이 건물을 사용하기까지는 이 큰 건물의 이용에 곤란해 했다’고 하였으며 또한 1930년대 대불호텔에서 변모하여 변성한 중화루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이쇼7·8년(1918·1919년)경부터 중화민국인에 의해 지나요리점을 개업하여 이상하게도 인기를 끌었다. 인천의 중화루로서 경성 인사들에게도 그 존재를 인정받았다. 이 건물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금박색의 지나 간판이 이국정취를 돋우고 있다. 그리고 그 방 하나에는 지금이라도 옛이야기를 들려줄 듯한 오래된 피아노가 색다른 음률을 울려 장난감 취급을 받고 있다. 마치 연로한 옛 이름난 기생의 구슬픈 말로가 이빨 빠진 입술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것처럼(『仁川府史』, 仁川府廳 編纂, 1933년).

그림5 인천 조계지 경계계단에서 내려다 본 전경,
1950년대 초 한국전쟁시기



출처: 개인 소장

그림6 1950년대 후반 중화루



출처: 화도진도서관

1950년대 후반, 건물이 지어진지 약 70여년이 흘러 볼품은 낡았지만 인천의 일본 조계지에서 노란색 금박 간판을 내걸고 영업한 3층 붉은 벽돌의 중화루는 여전하였다.

볼품은 좀 낡았으나 넓고 긴 仁川唯一의 金箔 看板을 내건 것으로서 이채(異彩)를 띤 中華樓가 아직 으젓이 터전을 잡고 있다. 벽돌 3層의 이 洋館은 日本人 호리 리키타로오(堀力太郎)氏⁴가 1887년 建築에 着手하여 1888년에 洛城시킨 것인데 얼핏 보면 淸館(淸國地界) 같으면서도 其實 日本地界 첫머리라는데 또한 興味が 있다(『開港과 洋館歷程』, 최성언저, 1959년).

한국전쟁 이후에는 정부의 화교차별 정책에 따라 많은 화교들이 해외로 재이주하였고, 대를 이어 중화루를 운영하던 뇌씨 일가도 1950년대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경영난을 겪던 중화루는 1970년대 초에 문을 닫게 되었다. 1978년 남구 주안동에 거주하던 현모씨가 중화루 건물을 1천 4백만원에 매입하였고⁵ 다시 호텔을 짓기 위해 철거하였다고 한다.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중화루 간판은 걸려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이후 그 간판들은 1980년 7월 10일자로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한편,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중화루가 위치했던 인천시 중앙동 1가 18번지의 토지대장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이 1914년에 호리 리키타로(堀力太郎) 앞으로 사정(査定)되었고, 1922년 9월 12일

⁴ 호리 히사타로의 오기로 보인다. 손장원·조희라,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11-3, 2011.

⁵ 「開港證人仁川中華樓가 헐린다」, 『경향신문』, 1978.7.5.

그림7 1970년대 중화루



출처: 인천광역시 중구청

그림8 건물 철거 직전의 중화루



출처: 『조선일보』, 1977.2.12.

자로 뇌문조(賴文藻)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⁶ 토지 소유권이 뇌문조로 이전된 1922년은 박물관 소장 중화루 간판의 제작시기인 임술년과 동일하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인천시 중구 중앙동 1가 18번지의 구 토지대장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年月日	事故	所有者(住所/氏名)	
대정3년 5월 6일(1914)	査定	寺町	堀力太郎
대정4년 11월 9일(1915)	住所變更	寺町43번지	
대정11년 9월 12일(1922)	소유권이전	本町一丁目18번지	賴父藻

1922년 이후 소유권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1922년 9월 12일 소유권 이전	本町一丁目一八	賴文藻(오기정정)
1977년 12월 15일 소유권 이전	경상북도 ***	賀**
1978년 1월 30일 소유권 이전	남구 주안동 ***	韓**
1978년 5월 25일 주소 변경	남구 주안동 ***	韓**
1984년 3월 15일 소유권 이전	***	金**
1989년 6월 19일 소유권 이전	관동 ***	정**

간판이란

간판(看板, sign)은 사람 눈에 잘 띄도록 알리기 위해 걸거나 붙인 표지(標識)를 말한다. 간판은 상점의 상호나 업종, 판매 상품 등을 적어 대문 또는 건물 외벽에 거는 것으로, 일종의 광고물이라 할 수 있다.

1909년 3월 31일자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게재된 광고인 “디한에쳐음광고요 상업에긴요호오”에 따르면, ‘상업에 제일 긴요한 것은 이 간판이라 고로 외국상업인은 한 가옥 위에 간판이 한두세장이라’라며 간판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간판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사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9 『대한매일신보』, 1909.3.3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商業에 第壹緊要한 거슨 此看板이라 故로 外國商業人은 壹家屋上에 看板이 壹貳三板이라 是以로 本人이 諸看板製進所을 鍾路魚物廬七房에 設置하고 商業前進코즈 ㅎ시는 同胞兄弟에 所用을 廉價로 隨應코즈 ㅎ오니 ㄴ麼小利라도 同國同胞에 有益토록 同價紅裝之意로 注意ㅎ심을 僉位兄弟의 伏望 本舖에서 洋屋에 各色漆도 ㅎ고 窓戶에 유리도 박고 유리도 廉價로 파오

鍾路魚物廬七房 圖書舖洋漆商主人 朴右陽 李應浩 告白

한편, 중국에서 간판을 이르는 용어 중 하나인 초패(招牌)는 1884년 1월 30일자 「한성순보(漢城旬報)」 “상무근황(商務近況)” 기사에서 화상국(華商局)의 간판을 초패라고 칭한 것을 알 수 있다.

근일 仁川에서 온 사람이 그곳 海關의 경기를 대략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일이 초창기여서 貨物 역시 특별한 것이 없이 평범하다. 우리 나라 商品은 牛皮·大豆·綿布帶·油烟俗 등 몇가지 물건 뿐이고, 외국 화물로서 제일 잘 팔리는 것은 洋布·燐木 등 잡다한 雜貨여서 이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城 안에는 현재 華商局의 간판(招牌)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무역할 물건이 운집하고 있으나 두드러진 물건이 없기 때문에 錢幣의 거래가 뜸하여 상거래하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전에 비하면 하루가 다르게 일신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10년이 못되어 번창해서 부강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한다.

간판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된 용어로는, 현판(懸板) 또는 편액(扁額)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의궤 등의 사료를 보면 궁궐의 전각, 누각, 문 이름을 쓴 것을 편액 또는 액(額), 편(扁) 등으로 칭했고, 문(門)이나 전(殿)에 거는 경우 문액(門額), 전액(殿額)으로 부르기도 했다. 반면 관원의 명단, 시문, 강규(講規)를 비롯하여 여러 전말을 길게 서술하는 경우에 현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편액과 현판을 혼용하는 사례가 많아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찰에서는 편액이 전각의 이름을 적은 것인데 비해 현판은 사찰의 불사 내역이나 중창 및 중건 등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서원이나 누정, 당호에 건 유교 현판에서도 건물 정면의 문과 처마 사이에 걸어 건물을 대표하는 명칭을 적은 나무판을 편액, 글씨나 그림을 나무판이나 종이 또는 비단에 쓰거나 새겨서 문 위에 거는 것을 현판이라 하였다. 나무판(板)을 건다(懸)는 뜻을 지닌 현판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 건물에 거는 모든 나무판을 일컬으며, 옛 건축물에 인문적 가치의 생명을 불어넣어 글씨를 새긴 나무판을 통칭하여 현판이라고 할 수 있다.⁷

7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현판 I』, 국립고궁박물관, 디자인문화, 2020;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의 편액』(I, II), 목판연구소, 드림디자인, 2016; 권진호, 『안동의 유교현판』, 민속원, 2020; 신대현, 『불교미술 이해의 첫걸음』, 혜안, 2020; <https://pyeonaek.ugyo.net/index.do>.

중화루 간판 현황

1. '중화루(中華樓)'명 간판
2. '신(新)'명 간판
3. '춘광화애(春光和靄)'명 간판
4. '파주임풍(把酒臨風)'명 간판
5. '악주조천(樂奏鈞天)'명 간판
6. '승우여운(勝友如雲)'명 간판
7. 흑색 간판1
8. 흑색 간판2



Ⅱ. 중화루 간판 현황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소장된 중화루 간판' 8점은 상호를 비롯하여 손님을 맞이하고 공간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좋은 글귀 등을 나무판에 새겨 건물의 안팎에 걸었던 것으로, 건물의 성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동시에 감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건물 1층 출입구에 걸었던 '중화루(中華樓)'명 간판, 건물 2층 중앙을 장식한 '신(新)'명 간판, 1층 왼쪽 출입구에 걸려있던 '승우여운(勝友如雲)'명 간판과 건물의 내부를 장식했던 '춘광화에(春光和靄)'명 간판, '파주임풍(把酒臨風)'명 간판, '악주조천(樂奏鈞天)'명 간판이 있다. 그 밖에 용도를 알 수 없는 흑색 간판 2점이 있다. 특히 중화루 간판 8점 중 5점에는 길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어변성룡(魚變成龍)이나 박고도(博古圖), 화조도(花鳥圖)의 주제를 응용한 회화적인 배경이 시문되어 있다.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였던 화목 중의 하나이다. 박고도의 주제는 동시기 우리나라에서 기명절지도라는 화목으로 유행하기도 하였다. 당대 유행하였던 회화 주제가 부배동, 왕경중이라는 서가(書家)의 글씨와 어우러져 실용품인 간판에 활용된 현전하는 예로서 가치를 지닌다.

중화루 간판은 1978년 중화루 건물이 철거되면서 박물관에 기증된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유물카드에 따르면 소장일은 1980년 7월 10일자이며 기증자는 당시 남구 주안동에 거주하였던 현모씨로 기록되어 있다. 기증자에 대해서는 신문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철거 당시 중화루 건물의 매입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화루와 그 건물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중화루 간판이 간직한 100년의 역사를 유물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²

1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간판 8점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2 간판의 글씨와 장식문양, 전서 해석 등은 주희풍 선생님의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 '중화루(中華樓)'명 간판

연대 | 1922년

작자 | 부배동

재질 | 나무에 채색

크기 | 280×129

명문 | '中華樓', '傳培桐', '壬戌仲春'

인장 | '傳培桐印', '占陽'



‘중화루’ 명 간판은 중화루 건물 1층 오른쪽 출입구 위에 부착되어 있던 것으로, 평면 장방형의 나무 간판이다. 기존에는 가로로 긴 나무 널 4개로 구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5개로 되어 있다. 뒷면에는 3개의 나무막대를 세로로 덧대어 고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홈이 남아 있다. 노란색 배경의 중앙에는 검은색으로 ‘中華樓(중화루)’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글씨는 가장자리를 음각한 위에 검은색 안료를 채워 넣었으며, 간판 배경에는 박고도의 소재들이 공간적인 논리성 없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간판 왼쪽에는 ‘傅培棟(부배동)’이라는 낙관과 ‘傅培棟印(부배동인)’, ‘占陽(점양)’의 인장이 있어 작가의 이름을 알 수 있게 한다. 낙관은 음각되어 있으며, 인장의 ‘부배동인’은 음각되어 백문방인을, ‘점양’은 양각되어 있어 주문방인을 의도하였다. 회화적인 화면을 모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우측에는 ‘壬戌仲春(임술중춘)’이라는 글씨가 음각되어 있어 간판이 제작된 시기가 1922년 음력 2월임을 알 수 있다(그림1-1).



그림1-1 낙관과 인장(좌) 및 명문(우)

정면 상단에는 종(鍾), 정(鼎), 감(鑑)으로 보이는 고동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에는 전자(篆字)가 적혀 있다. 전자의 내용으로는 오른쪽에 위치한 종부터 몸체 기면에 ‘寶鐘(보종)’, 정(鼎)의 몸체 기면에 ‘寶尊子孫保享(보존자손보향)’, 감(鑑)의 몸체 기면에 ‘文考○叔寶尊彝子孫其永寶用(문고○숙 보존이 자손기영보용)’이라 되어 있다(그림1-2, 1-3). 감의 원편에도 정과 종의 하나씩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화’자와 ‘루’자의 하단에는 각각 격(鬲)과 유(卣)가 배치되어 있다. ‘중’자와 ‘화’자 사이, ‘화’자와 ‘루’자 사이에는 사각형 긴 화분모양의 술병 준(尊)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화’자와 ‘루’자 사이에 있는 준은 문양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데, 상단의 2개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하단은 좌우가 구획되어 있다. 상단에는 몇 개로 중첩된 사각형 문양, 하단의 왼쪽에는 큰 원을 중심으로 작은 원들이 둘러싸고 있는 문양, 오른쪽에는 매화의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이 준에는 공작의 깃털과 산호가 꽃혀 있다(그림1-4). ‘중’자와 ‘화’자 사이의 준에는 공작의 깃털과 함께 두루마리가 꽃혀있으며 그 옆으로 비파로 보이는 과일이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경물들은 양각의 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소재들은 길상적인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데, 고동기는 문방청완(文房淸玩)의 취미를, 공작 깃털과 산호는 최고위 관직을 나타내는 일품관(一品官)을, 두루마리는 행운과 배움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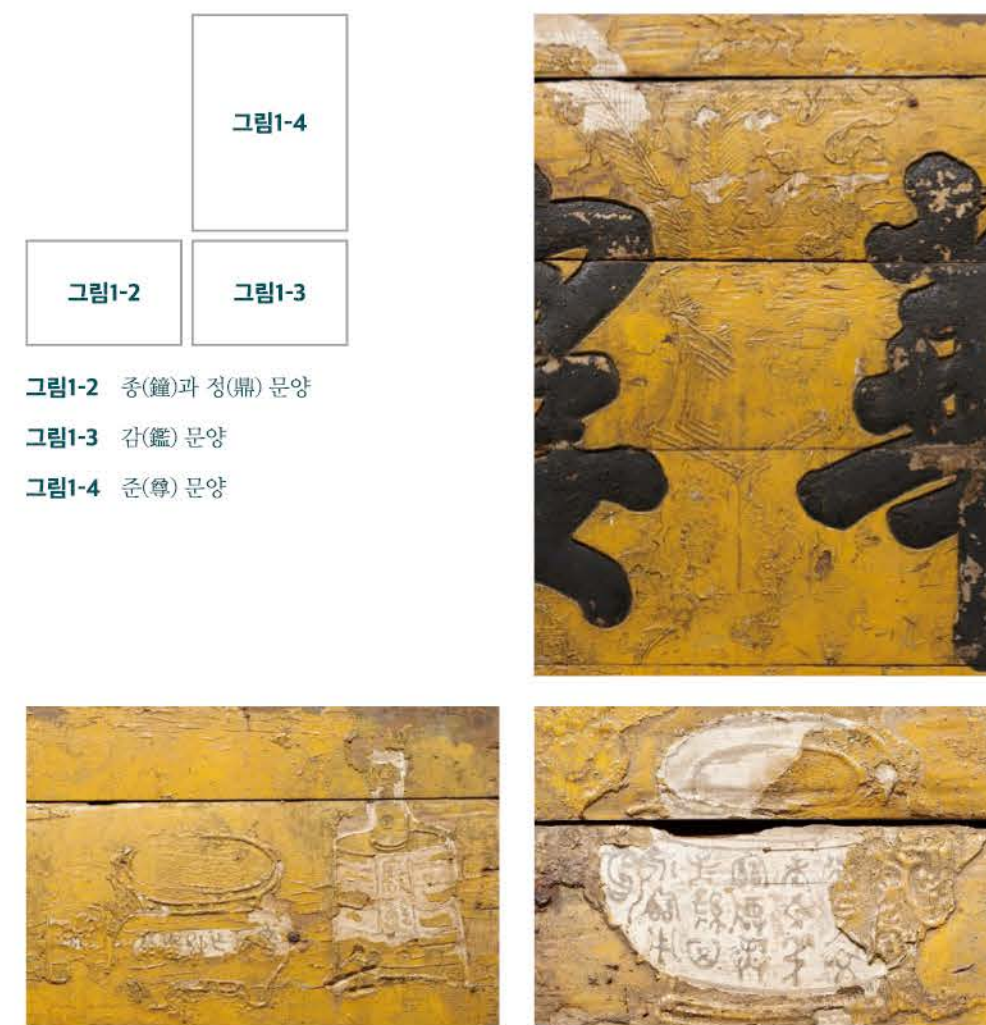


그림1-2 종(鍾)과 정(鼎) 문양

그림1-3 감(鑑) 문양

그림1-4 준(尊) 문양

2. '신(新)'명 간판

연대 | 1940년대 이전

재질 | 나무 및 금속('新')에 채색

크기 | 346×114

명문 | '新', '中'



건물 2층 중앙 창문의 윗부분을 장식한 박공벽 형태의 페디멘트(pediment)에 걸려 있던 간판으로, 박공벽의 형태를 따라 이등변삼각형으로 제작되었다. 3개의 나무 널을 이어 붙여 이등변삼각형으로 만들었으며 뒷면에는 3개의 나무 막대를 세로로 덧대어 고정하였다. 앞면의 세변에는 선이 들어간 나무 테두리를 둘렀고, 위쪽 두변에는 그 테두리 위에 주머니 모양과 톱니 모양으로 조각한 나무 장식을 덧붙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그리고 나무 테두리 안쪽에도 별모양의 나무 조각을 양변에 덧대어 장식미를 더하였다. 삼각형의 하단변에 한 겹, 상단변에 세 겹의 장식부재가 덧붙여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상단 꼭짓점에는 금속제의 부속품이 남아있어 전구와 같은 조명기구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간판 상단 중앙에는 반구형(半球形)의 나무 부재가 부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중화루를 의미하는 듯한 '中(중)'자가 음각되어 있다. 현재는 중자 위에 얇은 금속을 올려 만든 '新(신)'자의 글씨 판이 덧붙여져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그림2-1). 간판 하단 양쪽으로는 구름과 함께 표현된 사조룡(四爪龍)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 또한 별도의 목재로 제작하여 부착한 것이다. 배경의 하단 중앙에는 긴 수염을 뻗어내고 있는 잉어가 물결 위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있으며 그 외에는 전면에 걸쳐 물결과 구름이 채워져 있는데 모두 양각의 효과를 내며 시문되어 있다. 화면 소재는 잉어가 용으로 변한다는 어변성룡(魚變成龍) 고사를 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러한 주제의 그림에서는 잉어 또는 용 한 소재만 채택되는데 비해 이 간판에서는 잉어와 용을 함께 표현했다는 점이 특이하다(그림2-2). 상단 중앙의 반구형은 잉어와 용이 물으려고 하는 여의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의주를 마주하고 있는 두 마리의 용은 현대의 중국 건축물에서도 장식 요소로 자주 활용되는 소재이다.

육안 상 관찰되는 채색 층위로는 바탕판재와 테두리 목, 반구형 장식 부재 등 전면에 걸쳐 가장 하단에 백색의 안료가 관찰된다. 배경에 채워진 물결과 구름 문양에는 밀그림이 확인되며 미세한 금분이 남아 있다. 그 위로 청록색 안료가 전면에 걸쳐 채색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상단 양변에 덧댄 나무 테두리와 반구형 장식 부재에는 백색층 위에서 빨간색 안료가 군데군데 확인되는데, 그 위를 배경과 동일한 청록색 안료로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 간판 정면에 장식된 사조룡과 '신'자만이 노란색 안료로 칠해져 있다. '신'자는 안료가 채 마르기 전에 부착된 듯 반구형의 나무 부재로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다. 반면 사조룡 장식의 측면에는 청록색의 안료 칠이 다수 묻어 있어, 장식을 부착한 후 배경을 덧칠한 것으로 보인다. 사조룡에는 노란색 안료 위 일부 흰색 안료가 묻어있는 것 외에는 육안 상으로 다른 채색 층위를 관찰하기 어렵지만, '신'자 금속판을 새로 달면서 배경을 개채하고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사조룡을 '신'자와 동일한 노란색 안료로 덧칠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림2-1 '신'명 간판의 명문



中, 新

그림2-2 어변성룡 문양



3. '춘광화에(春光和霽)'명 간판

연대 | 1922년

작자 | 부배동

재질 | 나무에 채색

크기 | 185×112

명문 | '春光和霽', '傳培桐', '壬戌仲春'

인장 | '傳培桐印', '占陽'



‘춘광화애’명 간판은 중화루의 실내에 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간판이다. 4개의 나무 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대나무 모양을 낸 테두리 목을 덧대어 장식하였다. 4개의 나무 널이 맞닿은 접지면에는 좌우측 양쪽에 나무로 된 요철(凹凸)이 있어 끼워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뒷면에는 세로로 된 나무 막대 2개가 고정되어 있다. 금빛을 띤 노란색 바탕에 적색 글씨로 된 간판으로, 테두리 부분을 제외한 배경 전면을 흰색의 안료로 초벌 채색한 후 글씨는 붉은색, 바탕의 문양은 노란색 안료로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 바탕에는 일부 남아있는 금분가루가 확인된다. 테두리는 별도의 마감을 한 후 녹색으로 채색하여 대나무를 형상화하였다. 간판의 좌측부와 테두리 목은 대체로 결실되었으며, 바탕의 안료와 금분가루의 박락이 심하여 문양 및 글씨 부분에만 채색 안료가 일부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림3-1 낙관과 인장(좌) 및 명문(우)

간판의 정면 중앙에는 ‘春光和藹(춘광화애)’라는 글씨가 있는데, 글자의 가장자리를 음각하고 내부는 붉은색 안료로 채워 넣었다. 좌측에는 낙관 ‘桐(동)’과 인장 ‘傳培棟印(부배동인)’, ‘占陽(점양)’이 남아있다. ‘동’자 앞의 글자들은 간판의 파손으로 인해 결실되었으나 ‘중화루’명 간판으로 미루어 ‘傳培(부배)’로 추측된다. 역시 우측에는 ‘壬戌仲春(임술중춘)’이라는 글씨가 음각되어 있다(그림3-1). 이 간판에도 박고도의 여러 소재들이 공간적인 논리성 없이 배치되어 있다. 기면에 전자(篆字)가 적혀 있는 종(鍾), 정(鼎) 형태의 고동기, 그릇에 담겨 있는 세 개의 복숭아, 붓과 종이가 꽂혀 있는 그릇, 수선화가 담겨져 있는 화분, 매화분재, 두루마리, 병, 향로(香爐)와 화로(火爐), 서책(書冊) 등이 그것이다. 이 소재들은 모두 길상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뚜껑이 반쯤 열린 고동기와 화롯대가 꽂혀져 있는 화로, 서책, 수선화, 붓과 종이, 기면에 그려진 태극 문양 등은 우리나라 기명절지도와 책가도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그림3-2).



그림3-2 박고도 문양

4. '파주임풍(把酒臨風)'명 간판

연대 | 1922년

작자 | 왕경증

재질 | 나무에 채색

크기 | 185×114

명문 | '把酒臨風', '育黎 王景曾', '壬戌仲春'

인장 | '王景曾印', '字沂吾氏'



‘파주임풍’명 간판은 중화루의 실내에 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간판이다. 형태는 ‘춘광화에’명 간판과 대체로 동일하여 4개의 나무 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지면에 나무 요철이 있어 끼워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뒷면 좌우측에는 세로로 된 나무 막대 2개가 고정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대나무 모양을 낸 테두리 목 두 줄을 덧대어 장식하였다. 노란색 바탕에 적색 글씨로 된 간판으로 테두리는 별도의 마감을 한 후 녹색으로 채색하였다. 간판은 왼쪽 윗부분과 오른쪽의 테두리 나무 편이 결실되었으며, 배경에는 글씨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색층이 박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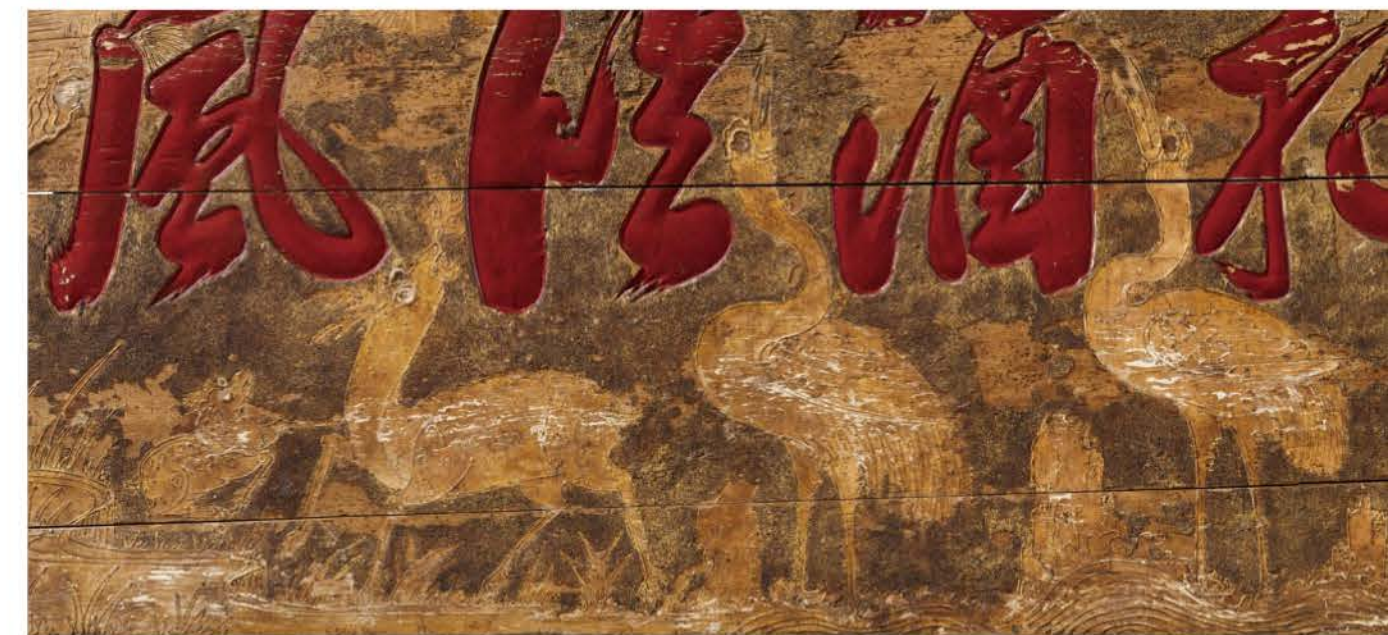
壬戌仲春

그림4-1 낙관과 인장(좌) 및 명문(우)

간판의 구성 또한 ‘춘광화에’명 간판과 유사하며 중앙에 ‘把酒臨風(파주임풍)’이 적혀 있다. ‘파주임풍’은 글씨의 가장자리를 음각하고 그 안을 붉은색 안료로 채워 넣었다. 왼쪽에는 ‘育黎 王景曾(육려 왕경증)’이라는 낙관과 함께 글씨가 음각되어 백문방인의 효과를 낸 ‘王景曾印(왕경증인)’, 글씨가 양각되어 주문방인의 효과를 낸 ‘字沂吾氏(자기오씨)’ 인장 2개가 배치되어 있다. 낙관과 인장은 붉은색으로 채색되었다. ‘육려(育黎)’는 현재의 산동성 유산시(乳山市) 중부에 위치한 도시이며, 작자의 성은 ‘왕(王)’ 이름은 ‘경증(景曾)’으로 보인다. 화면 오른쪽에는 역시 ‘壬戌仲春(임술중춘)’이라는 글씨가 음각되어 있어, 제작시기가 1922년 2월임을 알 수 있게 한다(그림4-1). 배경에는 물가와 수초, 오동나무와 두 마리 학, 소나무와 두 마리의 사슴을 그려 넣어 한 폭의 화조도를 연상하게 하는데, 화면 중앙에는 박쥐 한 마리가 묘사되어 있어 길상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함을 알 수 있다(그림4-2). 현재 나무와 새, 박쥐, 바위와 같은 경물들의 안료는 탈락된 상태이고 군데군데 초벌 안료로 보이는 흰색 안료가 남아 있다. 경물 외 배경에는 모래와 같은 거친 입자와 금색 안료가 남아 있어 간판이 반짝이는 효과를 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4-2 박쥐를 바라보는 학과 사슴 문양



5. '악주조천(樂奏鈞天)'명 간판

재질 | 나무에 채색

크기 | 214×73

명문 | '樂奏鈞天'

'악주조천'명 간판은 중앙에 '樂奏鈞天(악주조천)'이 적힌 평면 장방형의 나무 간판으로 나무 널 2개를 잇대어 만들었다. 간판 뒷면에는 2개의 나무 막대를 양쪽에 덧대어 고정하였다. 아랫쪽 나무 널의 왼쪽 하단 모서리가 일부 결실되었고 오른쪽에 미세한 균열이 있다. 청록색 바탕에 적색 글씨로 된 간판이며, 테두리 없이 측면까지 채색되었다. 바탕과 글씨 부분 모두 채색층이 양호한 상태이나 간판 상부의 박락된 곳에서 일부 다른 색상의 채색층이 관찰되어 여러 차례 개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중앙에 적힌 '악주조천'은 글씨의 가장자리를 음각하고 내부를 붉은색 안료로 칠하였다. 글씨를 제외하고 배경의 무늬나 낙관, 인장 등이 없어 제작 시기와 작가를 알 수는 없다.



6. '승우여운(勝友如雲)'명 간판

재질 | 나무에 채색

크기 | 약 235×84

명문 | '勝友如雲'

'승우여운'명 간판은 평면 장방형의 나무 널 1개로 구성된 간판이나, 3개의 큰 편과 잔편으로만 남아 있다. 글씨 부분이 반 이상 결실된 상태로, 기존 사진 자료로 미루어 보아 중화루 건물 1층 왼쪽 출입구 위에 부착되어 있던 '勝友如雲(승우여운)' 간판으로 추정된다. 간판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쓰여져 있으며 테두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면 중앙에 적힌 '勝友如雲(승우여운)'은 글씨의 가장자리를 음각하고 내부를 검은색 안료로 채워 넣었다. 낙관, 인장 등이 남아있지 않아 작가를 알 수는 없지만, 오른쪽에 음각된 '春'자로 미루어 보아 간판의 제작 시기는 임술중춘인 1922년 음력 2월로 추정된다. 간판 배경에는 고동기 문양이 일부 남아 있어 '중화루'명 간판과 마찬가지로 박고도의 소재들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노란색 바탕에 부분적으로 생긴 요철로 보아 덧칠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현재의 상태로 채색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문양이 일부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흑색 간판1

재질 | 나무에 먹 채색
크기 | 265×78



흑색 간판1은 평면 장방형의 나무 간판으로 가로로 긴 세장방형의 나무 널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간판 뒷면에는 나무 막대 2개를 양쪽에 덧대어 고정하였다. 왼쪽 상부의 나무 널이 결실되었고 표면에 일부 칠이 벗겨진 곳이 있다. 정면의 바탕은 전체적으로 흑색이며, 간판 측면에 붓 자국이나 안료 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인 채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7-1).

흑색 간판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명문 및 문양을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 촬영 조사를 실시하였다. 적외선 촬영은 밑그림이나 개칠 흔적, 손상되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바탕에 스며들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림의 묵선이나 묵서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유물카드의 기록에 따르면 흑색 간판에는 ‘勝友如雲(승우여운)’이라는 문자가 있었으나 지워져 판독불가’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적외선 촬영 결과 바탕 면이나 하부에서 별도의 묵서나 글자, 밑그림 도안, 개칠 흔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글씨나 배경 그림이 지워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7-1 붓 자국과 안료 흔적



8. 흑색 간판2

재질 | 나무에 먹 채색
크기 | 26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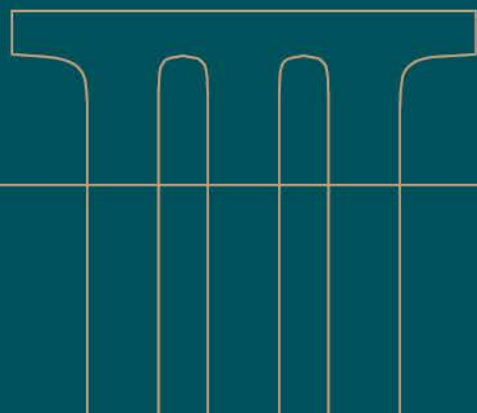
흑색 간판2의 형태는 흑색 간판1과 거의 유사하여 평면 장방형의 나무 간판이며, 가로로 긴 세장방형의 나무 널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뒷면에는 2개의 나무 막대가 양쪽에 세로로 고정되어 있다. 왼쪽 하부 모서리가 결실된 상태이다. 표면은 전체적으로 흑색이며, 붓 자국이나 간판 측면에 안료가 흘러내린 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인 채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8-1).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의 흑색 간판과 동일한 적외선 촬영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물카드의 기록에 따르면 ‘得少佳趣(득소유취)’라는 문자가 있었으나 지워져 판독불가’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적외선 촬영 결과 바탕 면이나 하부에서 별도의 묵서나 글자, 밑그림 도안, 개칠 흔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글씨나 배경 그림이 지워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8-1 붓 자국과 안료 흔적



과학적 분석



- 1. 수중 분석
- 2. 안료 분석



Ⅲ. 과학적 분석

중화루 간판에 대한 보존 상태를 개선하고 유물의 안정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2차례에 나누어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1차 보존처리에서는 ‘중화루’명 간판과 ‘신’명 간판 2점에 대해 2013년 5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60일 간 건식 클리닝과 안료 안착, 결손부 복원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

2차 보존처리는 ‘춘광화에’명 간판, ‘파주임풍’명 간판, ‘악주조천’명 간판, ‘승우여운’명 간판과 흑색 간판 2점 총 6점에 대해 2020년 6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150일 간 실시하였다. 2차 보존처리에서는 1차시기에 진행한 클리닝 및 안정화 작업과 함께 수종 분석, 안료 분석, 적외선 촬영과 같은 과학적 조사가 시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2차시기에 진행한 과학적 조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수록하였다.¹⁾

¹⁾ 1,2차 보존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서진문화유산(주), 『중화루 간판 보존처리』, 2013 및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엔가드, 『시립박물관 소장 중화루 현판 위탁 보존처리 수리보고서』, 2020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수종 분석

중화루 간판의 수종 분석은 자연 탈락된 박락부에서 채취한 목재 시료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6점의 간판 바닥판재 및 ‘춘광화애’명 간판, ‘파주임풍’명 간판의 테두리 목에서 총 8점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수종 분석은 목재 세포의 종류 및 조직의 모양, 크기, 배열 등의 확인을 통해 수종을 식별하는 분석법이다. 우선 목재의 삼단면(횡단면, 접선단면, 방사단면)이 노출되도록 약 20~30μm 두께의 박편을 만들어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프레파라트는 광학현미경(Nikon ECLIPSE 80i)을 이용하여 조직을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수종을 식별할 수 있는 목재 해부학적 특징을 찾아 사진 촬영하였다.

목재 시료 8점에 대한 수종 분석을 실시한 결과, 흑색 간판 2점은 소나무류(Hard Pine)로 식별되었으며, ‘춘광화애’명 간판, ‘파주임풍’명 간판, ‘악주조천’명 간판은 잣나무류(Soft Pine), ‘춘광화애’명 간판과 ‘파주임풍’명 간판의 테두리 목, ‘승우여운’명 간판은 피나무속(Tilia)으로 식별되었다(표1).

표1 중화루 간판 수종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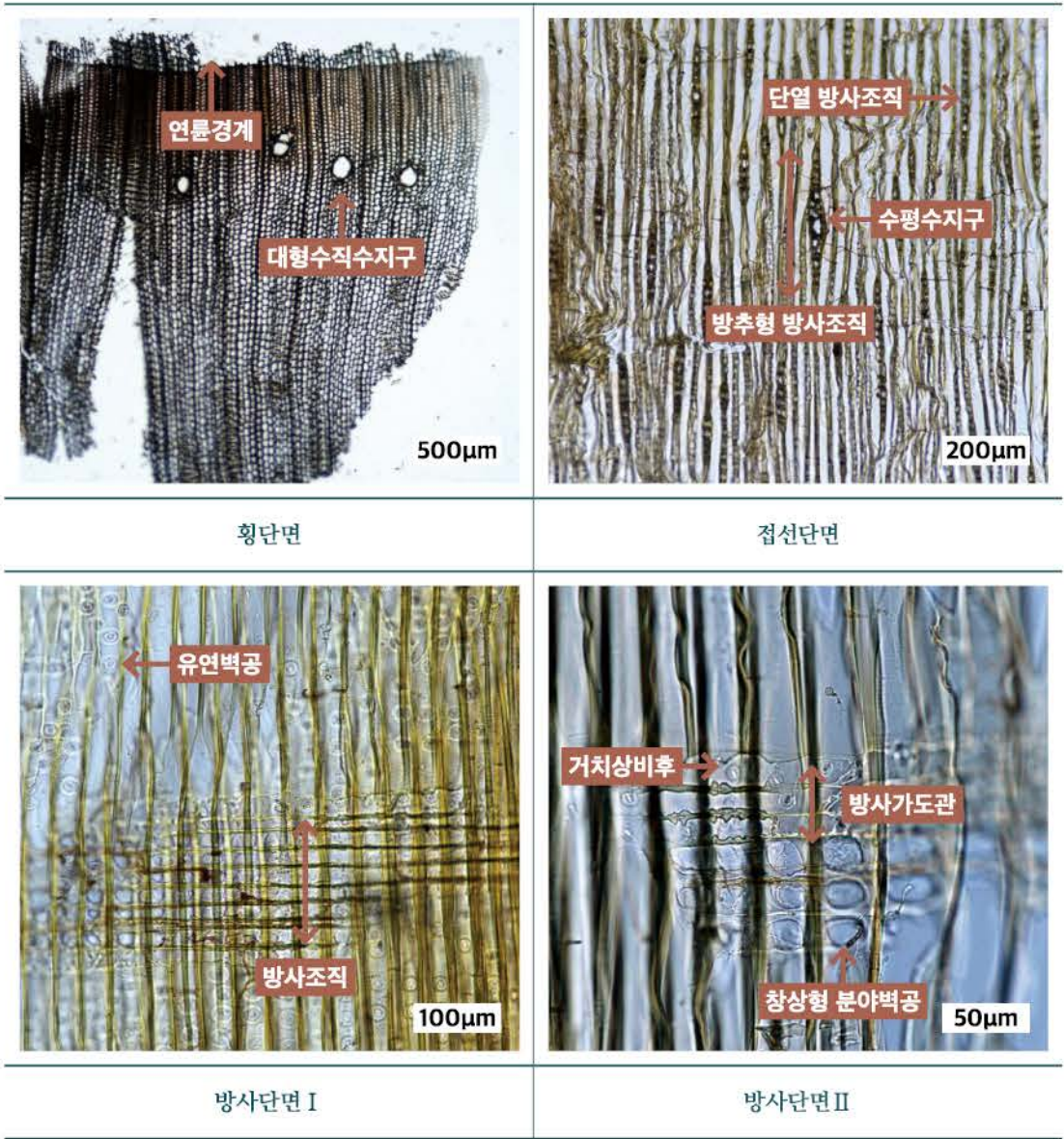
번호	유물명	시료명	수종
1	중화루 간판	흑색 간판1	소나무류
2		흑색 간판2	
3		‘춘광화애’명 간판	잣나무류
4		‘파주임풍’명 간판	
5		‘악주조천’명 간판	
6		‘춘광화애’명 간판 테두리 목	피나무속
7		‘파주임풍’명 간판 테두리 목	
8		‘승우여운’명 간판	

1) 소나무과(Pinaceae) 소나무속(Pinus spp.) 소나무류(Hard pine)(표2)

- 횡단면: 목재 세포의 90~98%가 가도관(tracheid, 假導管)으로 구성된 침엽수재이다. 횡단면에서 연륜(annual ring, 年輪)의 경계가 명확했으며 조재료부터 만재료의 가도관 이행이 급격하였다. 단독으로 산재하는 대형 수직 수지구(樹脂溝)가 관찰된다.
- 접선단면: 방사 조직(medullary ray, 放射組織)은 단열 방사 조직과 수평 수지구를 포함한 방추형(紡錘形) 방사 조직이 혼재한다.
- 방사단면: 축방향 가도관의 내벽에서 1열의 유연 벽공(bordered pit, 有緣壁孔)이 존재한다. 방사 조직은 방사 가도관과 방사 유세포(parenchyma cell, 柔細胞)로 구성된다. 방사 가도관은 방사조직의 가장자리에 1~수층으로 배열되며, 거치상비후(demate thickening, 鋸齒狀肥厚)가 관찰된다. 방사 유세포와 축방향 가도관 사이의 분야 벽공 형태는 창상형(Window-like pit, 窓狀型壁孔)이다.

침엽수, 대형 수직 수지구, 단열 방사 조직, 수평 수지구, 방사 가도관, 창상형 분야 벽공은 소나무과(Pinaceae) 소나무속(Pinus)의 특징이다. 소나무류와 잣나무류는 방사 가도관의 거치상비후 유·무로 분류되며, 소나무류는 거치상비후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시료에서는 방사 가도관 내부에 거치상비후가 발달하여 소나무류로 분류하였다. 소나무류에 속하는 국내산 수종은 소나무(P. densiflora S. et Z.), 곰솔(P. thunbergii Parl.) 등이 있다. 소나무는 한반도의 전역에 분포하며, 곰솔은 해안가에 주로 분포한다.

표2 소나무류 조직 현미경 사진



2) 소나무과(Pinaceae) 소나무속(Pinus spp.) 잣나무류(Soft Pine)(표3)

- 횡단면: 목재 세포의 90~98%가 가도관으로 구성된 침엽수재이다. 횡단면에서 연륜의 경계가 명확했으며 조재로부터 만재로의 가도관 이행은 비교적 완만하였다. 단독으로 산재하는 대형의 수직 수지구가 관찰된다.
- 접선단면: 방사 조직은 단일 방사 조직과 수평 수지구를 포함하는 방추형 방사조직이 혼재하여 관찰된다.
- 방사단면: 축방향 가도관의 내벽에서 1열의 유연 벽공이 존재한다. 방사 조직은 방사 가도관과 방사 유세포로 구성되며, 방사 가도관의 내벽은 평활하게 관찰된다. 방사 조직과 축방향 가도관 사이의 분야 벽공 형태는 창상형이다.

침엽수, 단일 방사 조직, 수평 수지구, 방사 가도관과 방사 유세포로 구성된 방사 조직, 창상형 분야 벽공 등의 특징으로 소나무과(Pinaceae) 소나무속(Pinus)으로 분류하였다. 소나무류와 잣나무류는 방사 가도관의 거치상 비후 유·무로 분류가 가능하며, 잣나무류는 거치상비후가 관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시료에서는 방사 가도관 내 거치상비후가 관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소나무과 소나무속 잣나무류로 분류하였다. 잣나무류에 속하는 국내산 수종으로는 잣나무(P. koraiensis S. et Z.)가 대표적이며, 한반도의 중부 이북에서 자란다.

표3 잣나무류 조직 현미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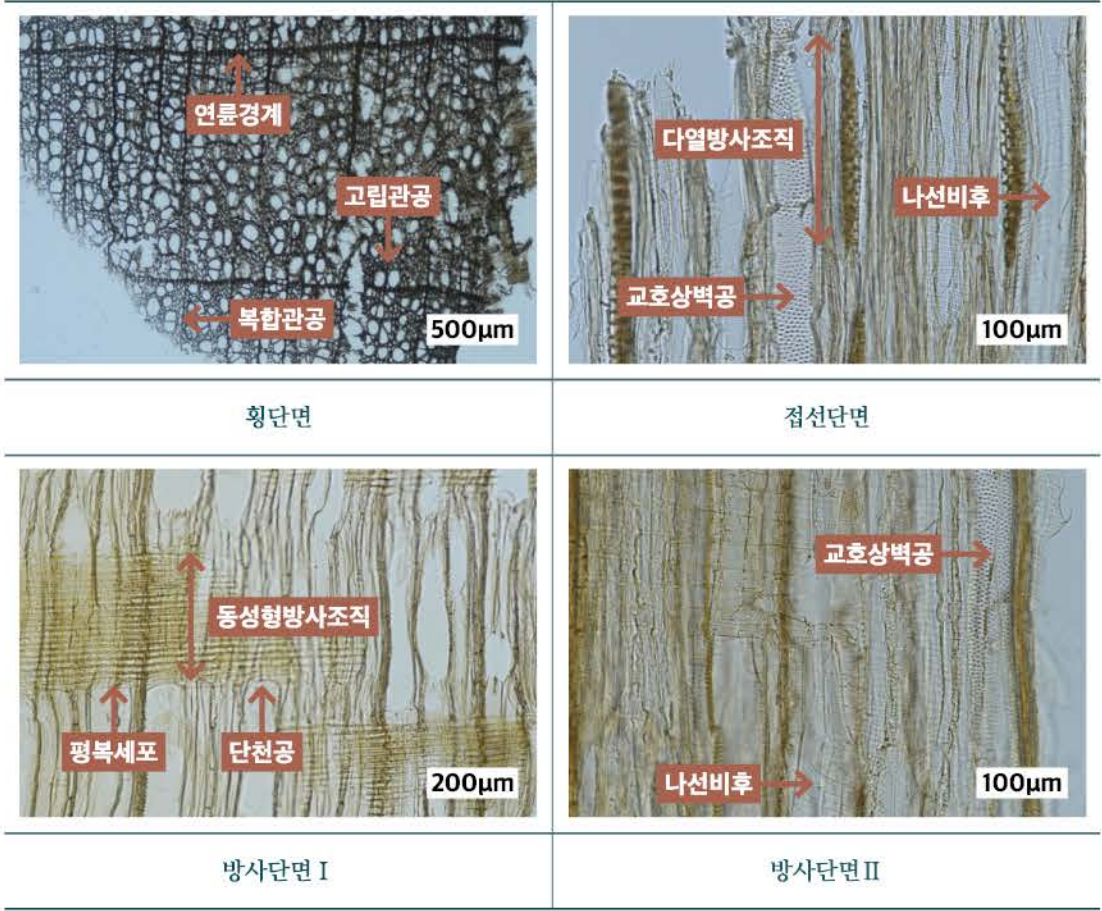


3) 피나무과(Tiliaceae) 피나무속(Tilia spp.)(표4)

- 횡단면: 지름이 거의 일정한 관공이 연륜 전체에 걸쳐서 고르게 흩어져 있는 산공재(diffuse-porous wood, 散孔材)이며, 고립관공과 2~3개의 복합관공이 관찰된다.
- 접선단면: 방사 조직은 주로 3~4의 세포폭이다. 축방향 유세포는 짧은 접선상으로 분포한다. 도관벽에 나선 비후(螺旋肥厚)가 관찰되며, 도관 상호간벽공은 교호상(交互狀)이다.
- 방사단면: 방사 조직은 평복세포(procumbent ray cell, 平伏細胞)로만 이루어진 동성형이며, 도관은 단천공(單穿孔)이다. 도관벽에는 나선비후가 관찰된다.

산공재, 도관의 나선비후, 단천공, 평복세포, 동성형 방사 조직이 관찰되어 피나무속으로 식별하였다. 피나무속에 속하는 국내산 수종으로는 피나무(T. amurensis Rupr), 찰피나무(T. mandshurica Rupr. et Max), 염주나무(T. megaphylla Nakai) 등의 10종이 있으며, 한반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표4 피나무속 조직 현미경 사진



2. 안료 분석

‘춘광화에’명 간판, ‘파주임풍’명 간판, ‘악주조천’명 간판, ‘승우여운’명 간판과 흑색 간판 2점 총 6점의 중화루 간판에 대한 정확한 채색 층위의 확인을 위해 현미경을 통한 확대 관찰을 시행하였으며, 채색 안료 분석을 위한 X선 형광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미경 분석은 핸디 타입의 Digital 현미경(Digital Microscope, Scalar Corp. DG-3, Japan)을 사용하였다. 위 장비는 시료의 채취 없이 안료의 미세한 부분에 대한 관찰 및 촬영이 가능하며, 30배율 관찰을 통해 채색기법 및 주변 색상과의 중첩, 100배율 및 200배율의 관찰을 통해 안료의 입자성, 입도크기, 입자형태 및 안료의 혼합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안료의 성분 원소 분석은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Portabl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XL3t GOLDD+,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비파괴 형식으로 수행하였다. 분석은 비교적 표면상태가 깨끗한 부위를 선정하여 수행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mining mode에서 X-ray tube 전압 40kV(20초, Filter:Al), 20kV(20초, Filter:Cu), 8kV(20초, Filter: No), 자동전류에서 측정면적 약 1cm의 조건으로 대기 환경에서 측정하였다.

1) ‘춘광화에’명 간판

‘춘광화에’명 간판의 채색층위와 안료 분석은 위치에 따라 바탕층, 글씨층, 문양층, 낙관층, 테두리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현미경 관찰을 통한 각 부분의 채색층위를 살펴보면 바탕층은 모래→백색→금색→황색 순으로 확인되며, 명문층은 백색→흑색→백색→적색, 문양층은 백색→황색→금색→황색, 낙관층은 백색→흑색→황색→적색, 테두리층에서는 분홍색→녹색의 채색층위가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백색은 모든 부분의 하부층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어 테두리를 제외한 전면에 걸쳐 바탕색으로 사용되었으며, 모래는 바탕층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간판의 바탕부분 박락이 심한 이유는 바탕층에서만 입도가 큰 모래층이 있어 목재와의 접착력이 낮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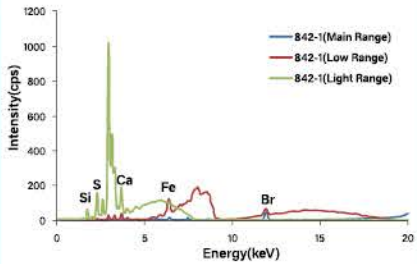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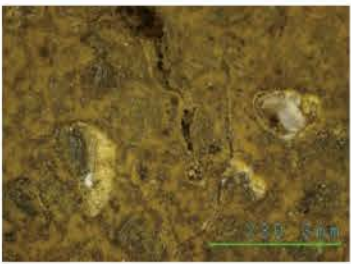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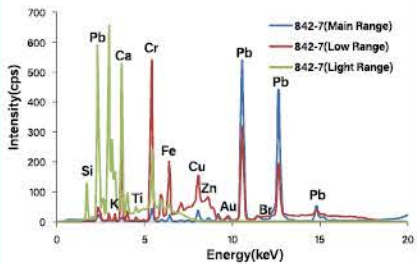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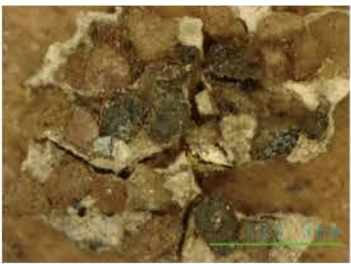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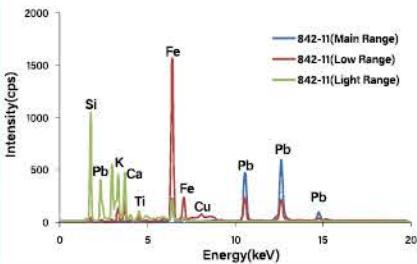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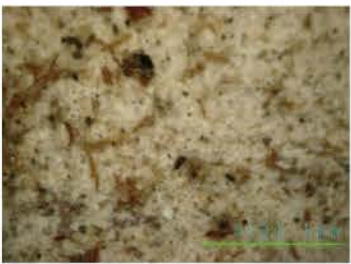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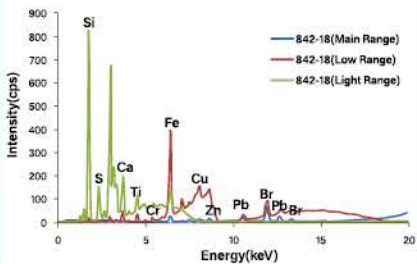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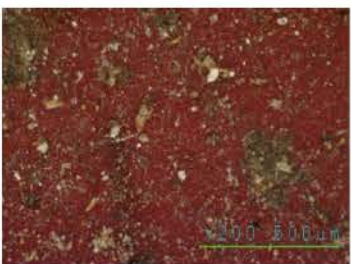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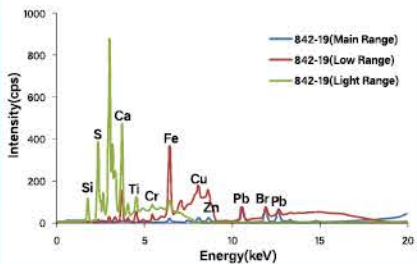
표5 ‘춘광화에’명 간판의 부분별 확대사진 및 채색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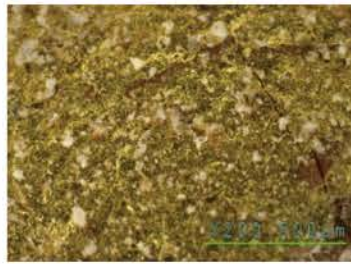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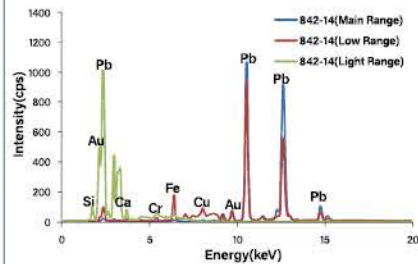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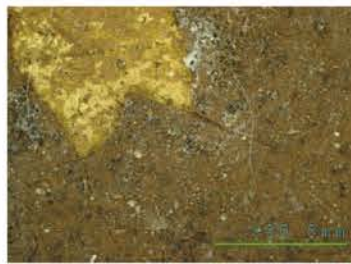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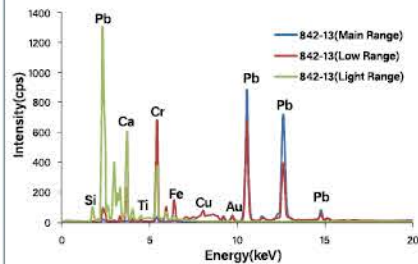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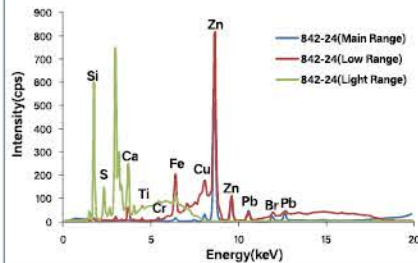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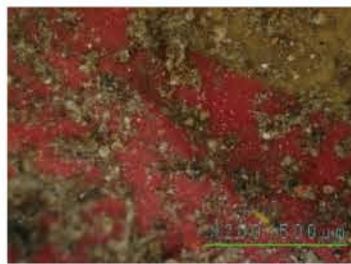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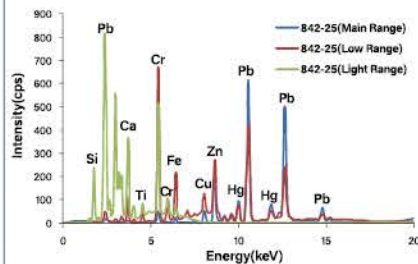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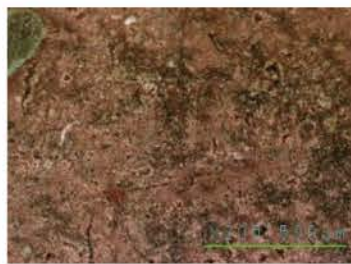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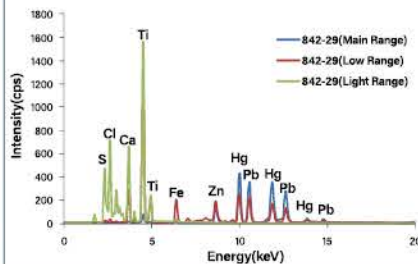
번호	위치	확대사진	채색층위
1	바탕층		모래→백색→ 금색(박)→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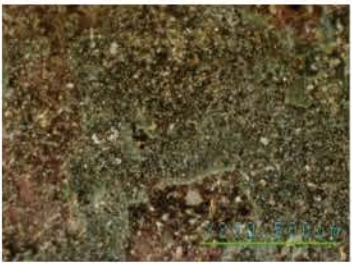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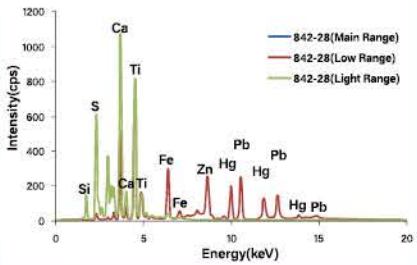
번호	위치	확대사진	채색층위
2	명문층		백색→흑색→ 백색→적색
3	문양층		백색→황색→ 금색(박)→황색
4	낙관층		백색→흑색→ 황색→적색
5	테두리층		분홍색→녹색

X선 형광 분석을 통해 검출된 원소 결과 그래프와 이를 통해 추정한 안료 결과는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춘광화애’명 간판의 현미경 사진 및 X선 형광 분석 스펙트럼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분석 결과 그래프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목재 바탕층			Si, S, Ca, Fe, Br	-
바탕 황색층			Pb, Cr, Ca, Cu, Fe, Au, Zn	황연
바탕 모래층 박락편			Si, K, Ca, Fe	모래
명문 백색층			Si, S, Ca, Ti, Fe	백토
명문 적색층			S, Ca, Si, Ti	유기 안료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분석 결과 그래프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문양 금색층			Pb, Au, Si, Fe	금박
문양 황색층			Pb, Cr, Ca	황연
낙관 백색층			Zn	아연화
낙관 적색층			Pb, Cr, Hg	주사
테두리 분홍색층			Ti, Cl, Hg, Pb, Zn	주사+ 연백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분석 결과 그래프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테두리 녹색층			S, Ca, Ti	유기 안료+ 황산 칼슘

‘춘광화애’명 간판 바닥판재의 목재 바탕층은 채색층에서 검출되는 원소성분의 검출정도 여부를 비교 판단하기 위해서 측정하였다. 목재층에서는 소량의 규소(Si), 황(S), 칼슘(Ca), 철(Fe), 브롬(Br)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성분들은 먼지나 일부 부착되어 있는 소량의 안료에 의해 검출된 것이며, 브롬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CH₃Br)의 성분이 잔존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탕 부분에서는 모래→백색→금색(박)→황색 순의 채색층위가 확인되었다. 가장 최상위 층인 황색은 짙은 노란색의 안료로 되어 있다. 바탕 부분에서 검출된 성분들은 납(Pb), 크롬(Cr)을 주요 원소로 하여 소량의 규소, 칼슘, 티타늄(Ti), 철, 구리(Cu), 아연(Zn), 금(Au), 브롬 등이 있다. 이로 볼 때 최상위층인 황색 안료는 납과 크롬을 주성분으로 하는 황연(Chrome yellow, PbCrO₄)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금은 박의 형태를 띤 금박(Gold foil)에서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백색 안료의 종류로는 고대부터 사용된 토양성 안료인 백토(Kaolin, Al₂O₃·2SiO₂·2H₂O)와 연백(Lead White, 2PbCO₃·Pb(OH)₂), 호분(Oyster Shell White, CaCO₃), 근대 이후 사용되기 시작한 아연화(Zinc White, ZnO), 지당(Titanium White, TiO₂)이 있다. 바탕층에서 검출된 성분들의 강도로 볼 때, 내부에 사용된 백색 안료는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백, 또는 규소, 알루미늄(Al)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토일 가능성이 높다.

바탕의 최하층에 사용된 모래의 입자크기는 약 1mm 내외로 적색, 흑색, 황색, 투명색 등 다양한 색상의 광물 입자들이 혼합되어 있다. 모래는 바탕에서 박락된 시편의 뒷면을 측정한 것으로, 앞면의 검출강도에 비해 규소, 칼륨(K), 칼슘, 철의 검출강도가 약 7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납의 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모래는 규소, 칼륨, 칼슘, 철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자갈 또는 모래 등의 원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간판의 명문 부분은 백색→흑색→백색→적색의 채색층위가 관찰되었다. 그 중 X선 형광 분석이 가능한 가장 하위층인 백색과 상위층인 적색에 대하여 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백색층에서는 규소, 황, 칼슘, 티타늄, 철이 주요하게 검출되었으며, 구리, 아연, 납, 브롬 성분은 매우 소량으로 검출되었다. 이로 볼 때 최하부층의 백색은 토양성 물질인 백토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위층의 적색은 200배 확대 사진에서도 입자가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균질하고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적색 부분에 대한 X선 형광 분석결과, 규소, 황, 칼슘, 티타늄, 크롬, 철, 구리, 아연, 납, 브롬이 검출되었다. 바탕층인 백색에서 검출된 성분들의 검출강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규소의 값이 낮아지고 칼슘과 황의 값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기성분으로 된 적색 안료로는 고대부터 사용된 주사(Cinnabar, HgS), 연단(Red Lead, Pb₃O₄) 및 석간주·주토(Hematite, Red Ocher, Fe₂O₃)가 있으며, 근현대에 들어서는 카드뮴레드(CdSe·CdS)가 있다. 간판에서는 이러한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색 안료는 황산칼슘을 체질 안료로 하는 적색의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부에 층을 이루고 있는 흑색은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먹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간판의 문양 부분은 백색→황색→금색→황색의 채색층위를 가지고 있으며, 금색층과 최상위의 황색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금색층 하부의 얇은 황색층은 안료의 입자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반투명한 막의 형태로 되어 있다. 금색층은 표면의 요철, 찌그러짐 등이 박의 특성을 띠고 있어 금박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대한 X선 형광 분석결과, 납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금, 규소, 칼슘, 크롬, 철, 구리 성분이 소량으로 검출되었다. 이로 볼 때, 백색층은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단의 황색층은 안료가 아닌 유기물층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색층은 금이 검출되어 금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위층인 황색층은 불투명하고 짙은 노랑색을 띠고 있으며, 채색층도 비교적 두껍다. 납과 크롬을 주성분으로 하여, 소량의 규소, 칼슘, 철, 구리, 금 성분도 함께 검출되고 있다. 이로 볼 때 황색은 황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낙관 부분은 백색→흑색→황색→적색의 순서로 채색층위가 나타난다. 낙관의 테두리 안이 백색, 흑색, 황색으로 전체 채색되어 있으며, 적색은 글씨 부분에만 사용되었다. 백색 부분에서는 아연이 주요 원소로 검출되었으며, 적색 부분에서는 납, 크롬을 주요 원소로 하여 아연, 수은 등의 성분이 함께 검출되었다. 따라서 낙관 부분의 백색 안료는 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아연화가 사용되었으며, 흑색은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먹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황색은 납과 크롬을 주성분으로 하는 황연, 적색은 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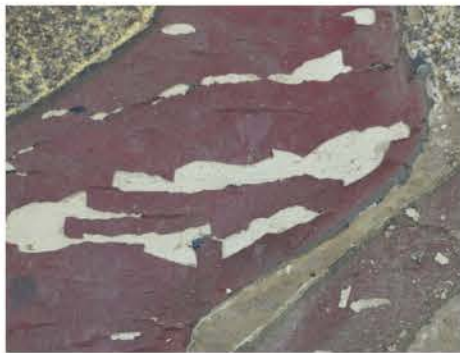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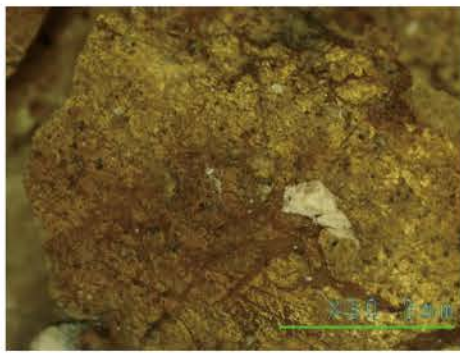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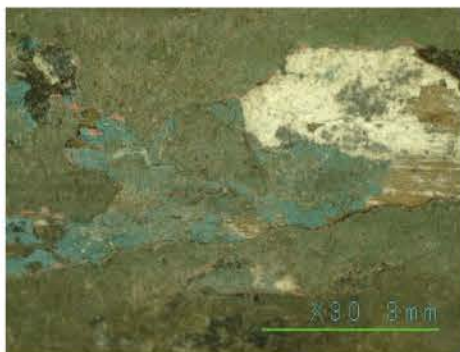
‘춘광화애’명 간판의 테두리는 간판 위에 별도의 목재를 두르고 그 위에 채색을 한 것으로, 분홍색→녹색 순의 채색층위가 확인된다. 하위층인 분홍색은 적색과 백색의 안료 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녹색은 매우 균질한 색상과 입자성을 띠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탈색되어 백색 입자들이 관찰된다. 적색과 녹색에서는 황, 칼슘, 티타늄, 철, 아연, 수은, 납 등이 동일하게 검출되었으며, 적색에서는 염소 성분이 추가적으로 검출되었다. 두 색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하부층인 분홍색에서 수은, 납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이 색상은 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와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백을 혼합하여 제조한 색상일 가능성이 높다. 표면의 녹색층에서는 하부의 분홍색층과 검출 성분 및 검출강도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녹색을 나타내는 무기성분인 구리, 크롬 등은 추가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칼슘과 티타늄, 황의 검출 강도를 비교해보면 녹색층에서는 칼슘과 황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이로 볼 때, 녹색은 칼슘과 황이 주성분인 황산칼슘을 체질안료로 하는 유기성분의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파주임풍’명 간판

‘파주임풍’명 간판 각 부분의 채색층위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바탕층은 모래→백색→금색→황색 순이며, 명문층은 백색→흑색→적색, 문양층은 백색→황색→금색→황색 또는 백색→분홍색, 낙관층은 백색→황색→적색, 테두리층에서는 백색→흑색→분홍색→청색→녹색의 채색층위가 확인되었다. 목재 바탕층 위에서 밑그림으로 추정되는 먹선이 확인되었으며, 그 위에 백색층이 채색되었다. 간판의 측면에서는 백색층과 함께 테두리에서 사용된 청색과 녹색 안료가 칠해져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초기 채색 시 먼저 목재 바탕 위에 먹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 백색으로 칠하여 바탕층을 만들었으며, 문양과 글씨가 없는 부분에만 모래를 이용하여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표7).

표7 ‘파주임풍’명 간판의 부분별 확대사진 및 채색층위

번호	위치	확대사진	채색층위
1	바탕 측면층		백색→청색→녹색
2	바탕층		모래→백색→금색(박) →황색반투명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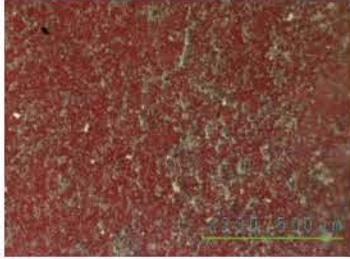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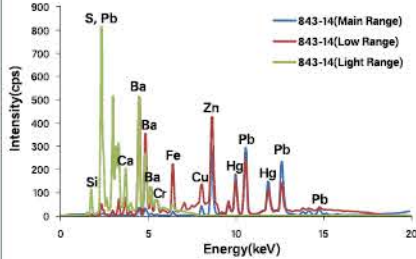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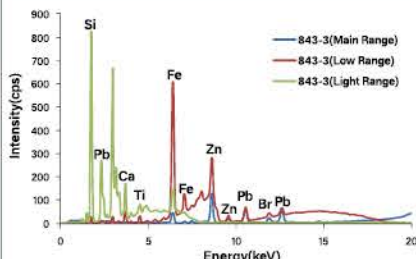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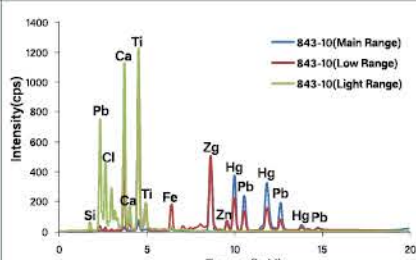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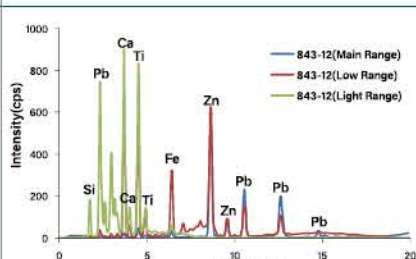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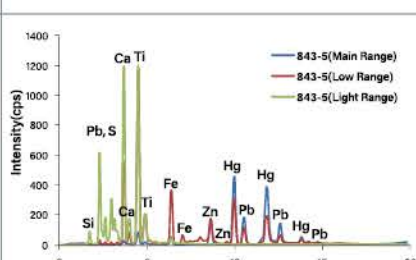
번호	위치	확대사진	채색층위
3	명문층		백색→흑색→적색
4	문양층		백색→황색→금색 →황색반투명물질
5	낙관층		백색→황색→적색
6	테두리층		백색→흑색→분홍색 →청색→녹색

X선 형광 분석을 통해 검출된 원소 결과 그래프와 이를 통해 추정한 안료 결과는 다음의 표8과 같다.

표8 '과주임풍'명 간판의 현미경 사진 및 X선 형광 분석 스펙트럼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분석 결과 그래프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목재 바탕층			Si, K, Ca, Ni, Fe, Zn	-
바탕 황색층			Si, S, Ca, Ti, Fe	유기 물질
바탕 금색층			Au, Si, K, Ca, Ti, Pb	금, 유기물, 백토
바탕 모래층 박락편			Si, K, Ca, Ti, Fe	모래
명문 백색층			Si, S, Ca, Ti, Fe	백토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분석 결과 그래프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명문 적색층			Si, S, Ca, Ti, Fe	유기 안료
문양 백색층			Si, Fe, Pb	연백
문양 금색층			Au, Pb	금박
문양 황색층			Pb	황토
문양 분홍색층			Si, K, Ca, Ti, Fe	유기 안료, 백토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분석 결과 그래프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낙관 적색층			Pb, Cr, Zn, Hg, Ba, Cu	주사, 아연화
테두리 백색층			Si, Ca, Fe, Zn, Pb	백토, 아연화
테두리 분홍색층			Hg, Pb, Ca, Ti, Zn	주사+ 연백
테두리 청색층			Si, Ca, Ti, Zn, Pb	유기 안료
테두리 녹색층			Ca, Ti, Pb, S, Zn	유기 안료

바탕층은 모래→백색→금색→황색반투명물질의 순서로 채색되어 있다. 최상위층에 칠해진 황색반투명물질은 입자성이 없어 막을 형성하고 있는 양상으로, 모래층이 박락되어 노출된 목재층 위에도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추후에 덧칠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서는 규소, 황, 칼슘, 티타늄, 철, 브롬이 검출되었다. 이는 목재 바탕층과 동일한 것으로 황색반투명물질은 안료가 아니라 유기물질인 것으로 추정된다.

바탕 금색층은 백색 안료층 위에 놓여져 있으며 표면의 주름이나 요철 등으로 볼 때, 박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금을 주성분으로 하여, 규소, 칼륨, 칼슘, 티타늄, 납이 소량으로 함께 검출되었다. 이로 볼 때 금색층은 금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하부의 채색된 백색은 백색 안료에서 검출될 수 있는 성분인 칼슘, 티타늄, 납의 검출강도가 채색두께에 비해 매우 낮게 검출되었다. 이로 볼 때 백색 안료는 규소, 칼륨, 칼슘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토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탕층에 사용된 모래들의 입자크기는 약 1~2mm 내외로 적색, 흑색, 황색, 투명색 등 다양한 색상의 광물 입자들이 혼합되어 있다. 모래 부분은 바탕층에서 박락된 시편의 뒷면을 측정한 것으로, 이 부분에서는 규소, 칼륨, 칼슘, 티타늄, 철 등이 검출되었다. 앞면의 검출강도와 비교하였을 때, 규소, 칼륨의 검출강도가 약 6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래층의 재료는 규소, 칼륨의 성분을 다량 함유한 자갈 또는 모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간판의 명문 부분은 백색→흑색→적색의 채색층위가 관찰되었다. 그 중 X선 형광 분석은 하부층인 백색과 상부층인 적색 부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백색층은 목재 바탕층 위에 비교적 견고하게 남아있으며 표면이 열은 황색을 띠고 있다. 성분은 규소, 황, 칼슘, 티타늄, 철이 주요하게 검출되었으며, 구리, 아연, 납, 브롬 성분은 매우 소량으로 검출되었다. 이로 볼 때 가장 하부층의 백색은 토양성 물질인 백토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상부층인 적색은 200배 확대 사진에서도 입자가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균질하고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적색 부분에 대한 X선 형광 분석결과, 규소, 황, 칼슘, 티타늄, 크롬, 철, 구리, 아연, 납, 브롬이 검출되었다. 바탕층인 백색에서 검출된 성분들의 검출강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규소의 값이 낮아지고, 칼슘과 황의 값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색 안료는 황산칼슘을 체질안료로 하는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부에 층으로 이루고 있는 흑색은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먹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간판의 문양 부분은 백색→황색→금색→황색의 순서로 되어있는 부분과 백색 위에 분홍색이 채색된 부분이 있다. 금색층은 백색 위에 얇은 황색의 층이 있고, 그 위에 금색층이 있다. 하부의 황색층은 안료의 입자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반투명한 막의 형태로 되어 있다. 금색층은 표면의 요철, 찌그러짐 등이 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백색층의 X선 형광 분석결과 납이 주성분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백색 안료는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색 부분에서는 납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금, 규소, 칼슘, 철, 구리 성분이 소량으로 검출되었다. 이로 볼 때 황색층은 안료층이 아닌 유기물층으로 판단되며, 금색층은 금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위층인 황색층은 불투명하고 짙은 노랑색을 띠고 있으며 채색층도 비교적 두껍다. 이 황색에서는 금, 규소, 칼슘, 철 등 금박층과 동일한 원소들이 검출되었다. 황색을 띠는 무기안료로는 석황(As_2S_3), 황연, 카드뮴엘로(CdS) 등의 안료가 있으나, ‘파주임풍’명 간판의 황색에서는 이와 관련된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황색 안료로는 토양성 안료인 황토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양에서 분홍색이 사용된 부분은 배경 그림 윗부분의 꽃문양을 그린 부분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색상은 옅은 분홍색과 짙은 자주색으로 두 가지 색상이 관찰되었다. 옅은 분홍색 부분은 백색 안료에 분홍색의 안료가 스며든 양상이었으며, 짙은 자주색 부분은 안료의 입자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두껍고 매끈한 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분홍색에서는 규소, 칼슘, 철을 주성분으로 하여, 티타늄, 납 등의 성분이 소량으로 검출되었다. 이로 볼 때 분홍색에 사용된 안료는 유기안료이며, 바탕의 백색은 백토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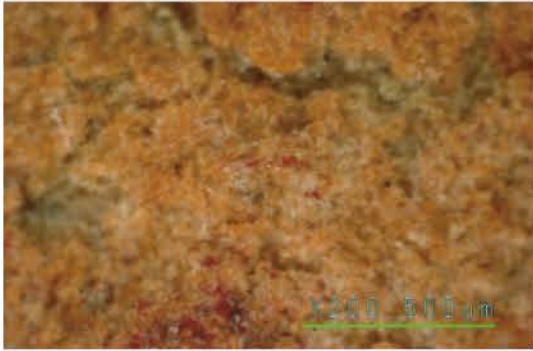

낙관부분은 백색→황색→적색의 순서로 채색되어 있으며, 낙관의 테두리 안을 백색, 황색으로 칠하고 적색은 글씨 부분에서만 사용되었다. 낙관은 박락된 부분이 넓지 않아 표면의 적색층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납, 크롬을 주요 원소로 하여 아연, 수은, 바륨(Ba), 구리 등의 성분이 함께 검출되었다. 따라서 낙관 부분에서 사용된 안료를 추정해보면 백색 안료는 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아연화, 황색은 납과 크롬으로 주성분으로 하는 황연, 적색은 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테두리 부분에서는 백색→흑색→분홍색→청색→녹색 등 총 5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다. 백색에서는 규소, 칼슘, 철, 아연, 납, 브롬이 검출되었으며, 목재 바탕층과 검출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규소, 철, 아연의 성분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백토와 아연화가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위에 채색된 분홍색층에서는 수은과 납이 함께 검출되었으며, 바탕인 백색에 비해 칼슘과 티타늄, 아연의 함량이 모두 높게 타나났다. 따라서 분홍색 안료는 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적색 안료인 주사와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백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칼슘과 티타늄은 상부층인 청색, 녹색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청색 또는 녹색에서 검출된 성분으로 추정된다. 청색과 녹색은 칼슘과 티타늄 및 아연 등 백색 안료의 주요 원소만 추가적으로 검출되었고, 색상에 관계된 구리, 코발트(Co), 크롬 등의 주요 무기성분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색과 녹색 부분은 호분, 지당, 아연화와 같은 백색의 안료가 혼합된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악주조천’명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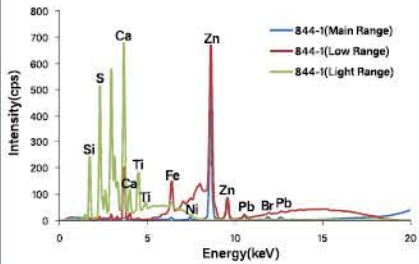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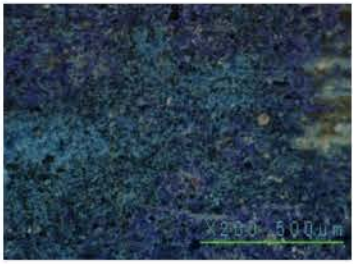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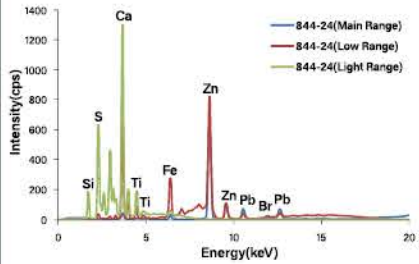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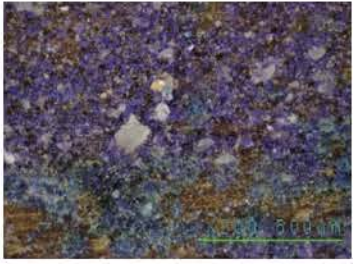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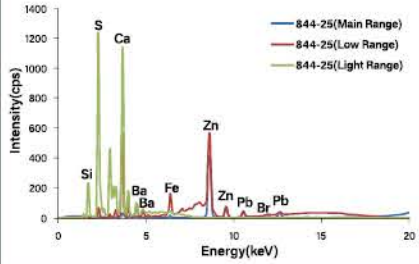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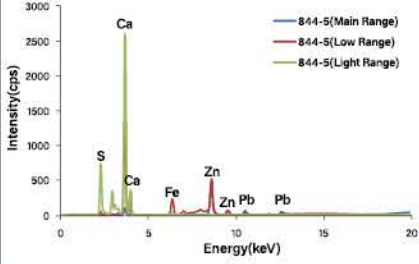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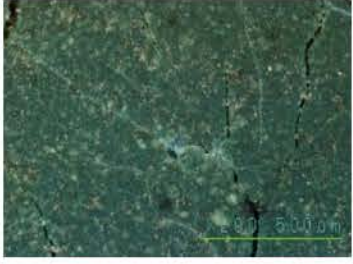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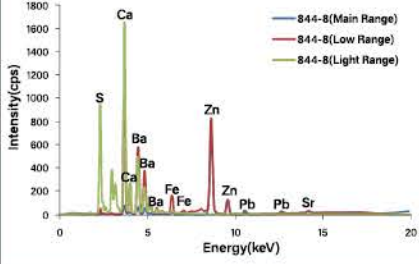
‘악주조천’명 간판 각 부분의 채색층위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바탕 부분은 청색→하늘색→녹색→녹청색 순의 채색층이 확인되며, 명문 부분은 주황색→적색의 채색층이 확인되었다. 바닥판재의 측면에서는 주황색→적색→옅은 하늘색→녹청색의 채색층이 관찰되어 원채색시 글씨 부분과 같은 색상으로 채색되었다가 정면과 동일한 색상으로 개채된 것으로 추정된다(표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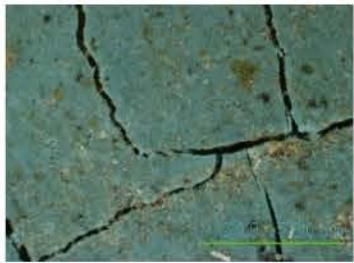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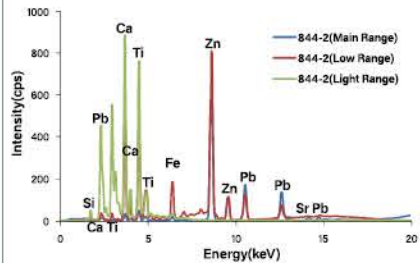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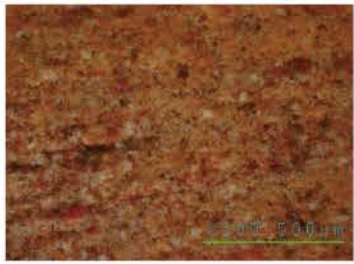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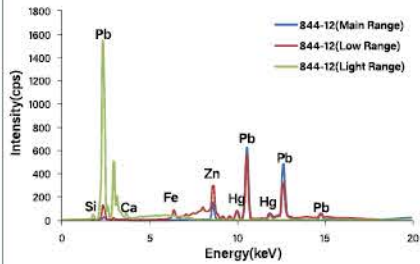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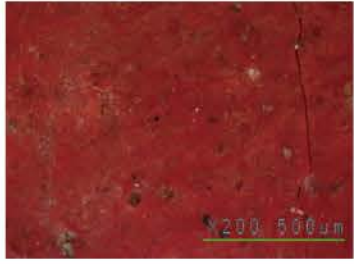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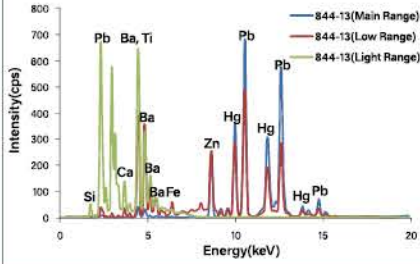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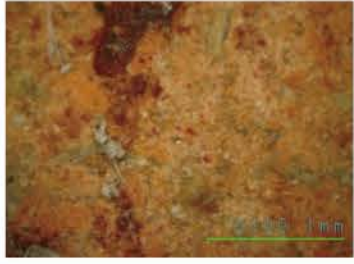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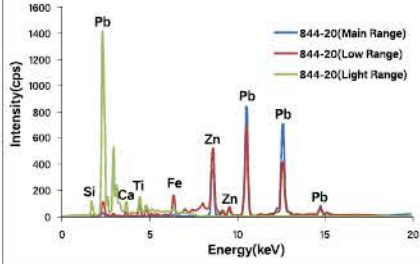
표9 ‘악주조천’명 간판의 부분별 확대사진 및 채색층위

번호	위치	확대사진	채색층위
1	바탕층		청색→하늘색→ 녹색→녹청색
2	명문층		주황색→적색
3	바탕 측면층		주황색→적색→ 옅은하늘색→녹청색

X선 형광 분석을 통해 검출된 원소 결과 그래프와 이를 통해 추정한 안료 결과는 다음의 표10과 같다.

표10 ‘악주조천’명 간판의 현미경 사진 및 X선 형광 분석 스펙트럼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분석 결과 그래프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목재 바탕층			Zn, Si, S, Ca, Ti, Fe	-
바탕 청색층1			Ca, Zn, S, Si, Ti, Fe	유기 안료
바탕 청색층2			S, Ca, Zn, Si, Ba, Fe	유기 안료
바탕 녹색층1			Ca, Zn, S, Fe	유기 안료
바탕 녹색층2			Ca, Zn, S, Ba	유기 안료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분석 결과 그래프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바탕 녹색층			Ca, Ti, Fe, Zn, Pb	유기 안료
명문 주황색층			Pb, Zn	연단
명문 적색층			Hg, Ba	주사
측면 주황색층			Pb, Zn	연단

바탕 부분은 대체로 청색→하늘색→녹색→녹청색 순서로 채색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다양한 색상의 청색과 녹색계통의 채색층들이 관찰되고 있다. 가장 하부층인 청색층에서는 프리시안 색상의 청색(이하 청색1)과 울트라마린 색상의 청색(이하 청색2)이 같은 단계의 다른 위치에서 관찰되었다. 청색1은 짙은 파란색과 하늘색이 섞여 있는 양상인 반면, 청색2는 파란색과 울트라마린 색상이 섞여 있는 양상을 보였다. 두 채색층 모두 입자성을 가지는 안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색1은 균질한 색상과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청색2는 균청색을 띠는 입자들과 투명한 입자들이 혼합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두 색상에 대한 X선 형광 분석결과 규소, 황, 칼슘, 철, 아연, 납, 브롬 성분이 공통적으로 검출되었으나, 청색2가 청색1보다 칼슘과 아연의 검출강도는 낮고, 황의 검출강도가 높았다. 또한 청색1은 티타늄이, 청색2는 바륨이 검출되는 특성을 보였다. 두 색상에서 모두 황, 아연, 칼슘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탄산칼슘 또는 황산칼슘과 같은 칼슘계통의 백색 안료와 아연화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추정 안료로 청색1은 프러시안블루(Prussian blue, $\text{Fe}^{\text{III}}_4[\text{Fe}^{\text{II}}(\text{CN})_6]$), 청색2는 황의 함량이 높은 울트라마린블루(Ultramarine blue, $\text{Na}_{6-10}\text{Al}_6\text{Si}_6\text{O}_{24}\text{S}_{2-4}$)인 것으로 여겨진다.

녹색계통에서는 짙은 청녹색(이하 녹색1)과 녹청색(이하 녹색2)이 같은 층위의 다른 위치에서 관찰되었다. 녹색1의 경우 표면이 약간 탈색되고 녹색과 청색이 혼합되어 있는 반면, 녹색2는 보다 균질한 입도와 색채를 띠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황, 칼슘, 철, 아연이 공통적으로 검출되었는데, 녹색1은 칼슘과 아연의 함량이 녹색2보다 높게 검출된 반면, 녹색2는 바륨이 함께 검출되었다. 녹색에서도 청색과 마찬가지로 각 색상을 특성 지을 수 있는 무기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녹색 역시 탄산칼슘 또는 황산칼슘과 같은 칼슘계통의 백색 안료와 아연화를 베이스로 하는 니트로조그린(Nitroso green, $\text{C}_{30}\text{H}_{18}\text{FeN}_3\text{O}_6\text{Na}$)과 같은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상위층인 녹청색은 하부층보다 밝은 색을 띠고 있다. 입자는 매우 균질하고 미세한 양상이며 부분적으로 색상이 묻쳐있는 곳이 있어 녹색, 청색, 백색의 안료들이 혼합된 색상으로 판단된다. 안료층 간의 표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물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녹청색 부분에서는 칼슘, 티타늄, 철, 아연, 납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다. 그러나 하부층인 청색 및 녹색에서 검출된 성분들과 강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칼슘, 티타늄, 아연 등은 비슷하거나 낮은 반면, 납이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따라서 최상위층인 녹청색은 납 성분이 함유된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명문은 표면의 적색층이 박락된 부분에서 주황색의 채색층이 관찰되었다. 주황색의 채색층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분 형태로 박락이 진행된 상황인 반면, 최상위층인 적색은 매우 균질하고 단단한 채색층으로 되어 있다.

주황색 부분에서는 납과 아연이 주성분으로 검출된 반면, 적색 부분에서는 수은, 납, 바륨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하단의 주황색은 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단이 사용되었으며 아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표면의 적색은 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가 사용되었으며, 바륨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판의 측면 부분은 정면과 동일한 색상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박락되어 노출된 내부에서는 주황색의 채색층이 관찰되었다. 주황색 채색층에는 납과 아연이 주요원소로 검출되었다. 이는 명문 부분의 주황색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 원채색시에는 명문에 사용되었던 주황색 안료로 측면을 함께 채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승우여운’명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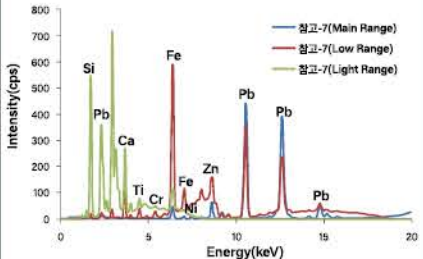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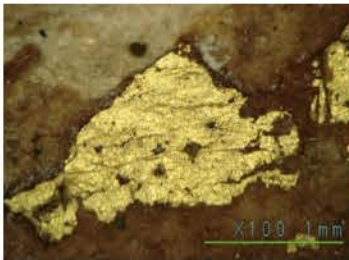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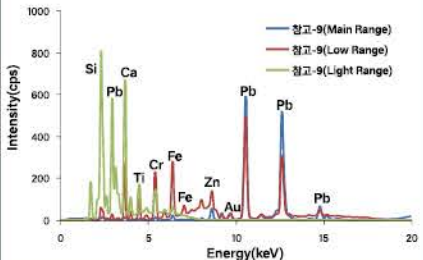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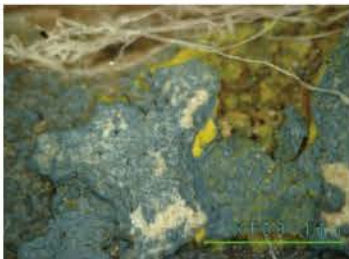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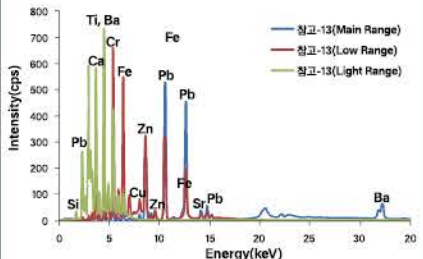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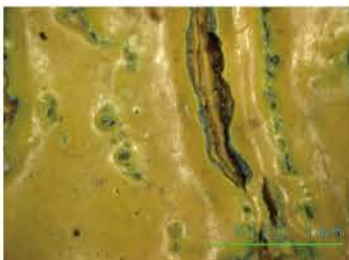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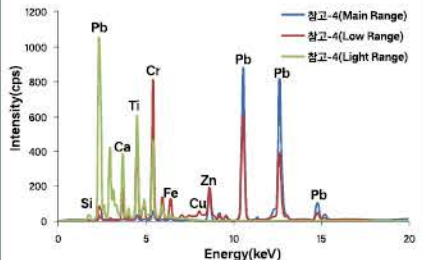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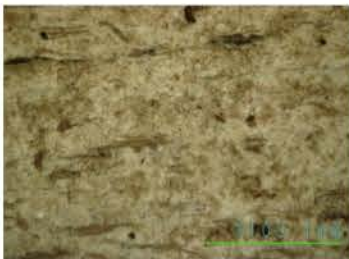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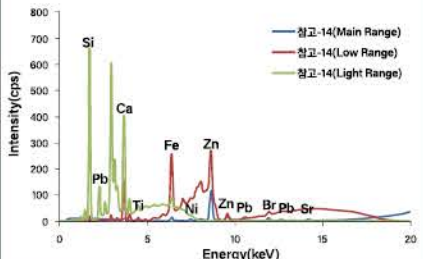
‘승우여운’명 간판 각 부분의 채색층위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바탕 부분에는 백색층→금박→황색 순의 채색층이, 글씨 부분에서는 백색→황색→적색→흑색 순의 채색층이 관찰된다. ‘춘광화에’명 간판, ‘파주임풍’명 간판보다 바탕 부분에서는 황색층, 명문 부분에서는 흑색층이 한층 더 올려져 있는 양상이다. 또한 바탕 부분의 내부 금색층 위에 청색의 채색층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있어, 이전에 다른 색상과 문양의 채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표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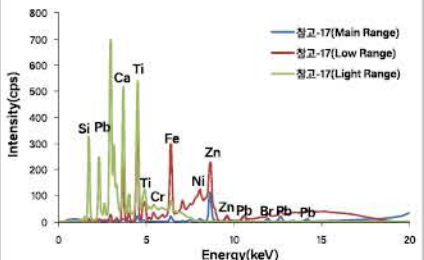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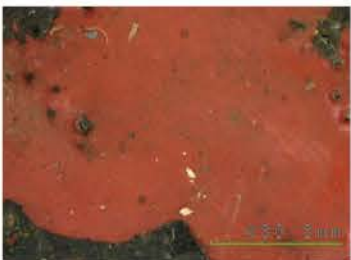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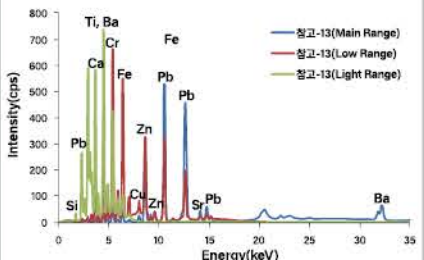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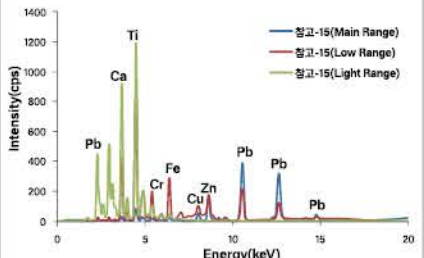
표11 ‘승우여운’명 간판의 부분별 확대사진 및 채색층위

번호	위치	확대사진	채색층위
1	바탕층		백색→ 황색반투명물질 →금박→황색
2	글씨층		백색→황색→적색 →청색→흑색

X선 형광 분석을 통해 검출된 원소 결과 그래프와 이를 통해 추정한 안료 결과는 다음의 표12와 같다.

표12 ‘승우여운’명 간판의 현미경 사진 및 X선 형광 분석 스펙트럼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분석 결과 그래프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바탕 백색층			Pb, Si, Ca, Ti, Cr, Fe, Zn	백토, 황연
바탕 금색층			Pb, Si, Ca, Ti, Cr, Fe, Zn, Au	금박
바탕 청색층			Ca, Ti, Ba, Cr, Fe, Zn, Pb, Sr	유기 안료
바탕 황색층			Pb, Cr, Ti, Ca, Zn	황연
명문 백색층			Si, Ca, Fe, Zn	백토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분석 결과 그래프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명문 청색층			Si, Ca, Ti, Pb, Fe, Zn	유기 안료
명문 적색층			Ti, Ba, Cr, Ca, Fe, Sr	유기 안료
명문 흑색층			Ti, Ca, Cr, Fe, Cu, Zn, Pb	탄소 화합물

바탕 부분의 최하층에 채색된 백색 안료에서는 납을 주성분으로 규소, 칼슘, 티타늄, 크롬, 아연이 함께 검출되었으며, 그 위에 채색된 황색반투명물질 및 금색층에서는 납을 주성분으로 규소, 칼슘, 티타늄, 크롬, 아연, 금 등이 검출되었다. 두 층위는 금 성분을 제외하고 검출된 원소의 종류가 동일하였다. 특히 백색에서 검출된 납은 크롬이 함께 검출되므로 주변에 채색된 황색 안료인 황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백색 안료는 규소, 칼슘,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토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색층은 금이 검출되어 박의 형태를 띤 금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색층에서는 백색층보다 납과 크롬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는데, 이는 금박층 하부의 황색 물질에서 검출되었다기보다는 분석 면적이 작아 표면의 황색층이 함께 분석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하부의 황색반투명물질은 안료가 아니라 금박을 접착시키기 위해 사용된 유기 접착제의 한 종류라고 추정된다.

바탕 부분에서는 청색, 백색, 황색의 안료들이 불규칙하게 부분적으로 채색되어 있다. 청색 부분에서는 칼슘, 티타늄, 바륨, 크롬, 철, 아연, 납, 스트론튬(Sr)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층위는 여러 성분들의 안료가 혼합되어 있는 양상으로 각 색상별 원소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색상에 비해 납 대비 크롬과 아연

의 검출강도가 높고 바륨과 스트론튬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추정 가능한 청색 안료로는 프탈로시아닌블루(Phthalocyanine blue, C₃₂H₁₆CuN₈)나 프리시아닌블루가 있으며, 지당 또는 아연화가 함유된 안료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의 황색 채색층은 하부에 금박 부분과 청색 채색이 존재하여 노란색을 주색으로 하되 녹색 빛을 띠고 있다. 입자간 밀도가 매우 높고 견고하며, 표면이 매우 매끄럽고 광택을 내고 있어 물감이나 페인트 종류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황색층에서는 납과 크롬이 주성분이며 칼슘, 티타늄, 아연도 함께 검출되었다. 따라서 황색에 사용된 안료는 납, 크롬을 주성분으로 하는 황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명문의 하부에 있는 백색 안료층에서는 규소, 칼슘, 철과 아연이 함께 검출되었다. 따라서 백색은 백토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연은 주변의 다른 성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청색은 바탕 부분에서 사용되었던 청색과 동일한 안료로 판단된다. 청색에서 검출된 성분은 규소, 칼슘, 티타늄, 크롬, 철, 아연, 납, 브롬이다. 이 중 바탕인 백색에 비해 티타늄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고, 다른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청색 안료는 프탈로시아닌블루나 프리시아닌블루 계열의 안료가 사용되었을 것이며, 지당이나 아연화가 함유된 안료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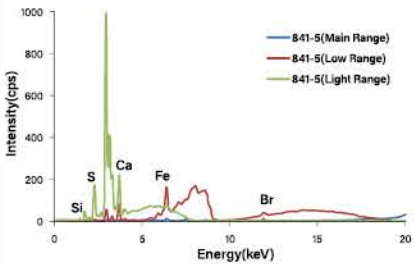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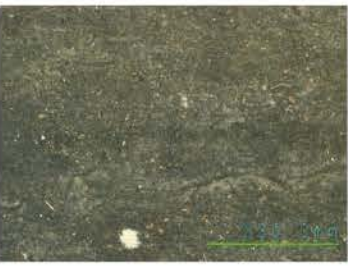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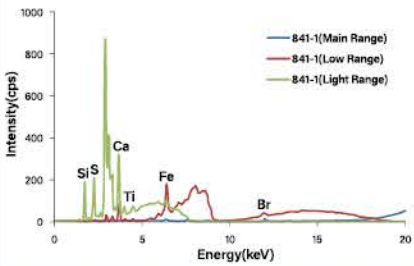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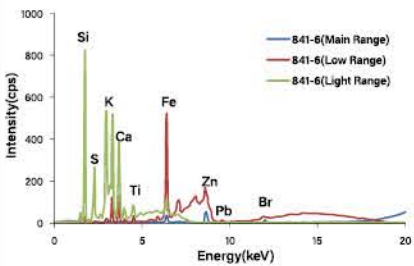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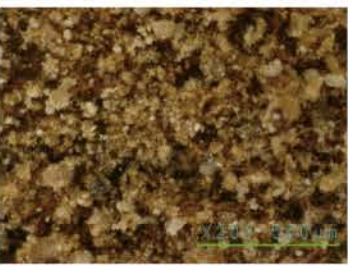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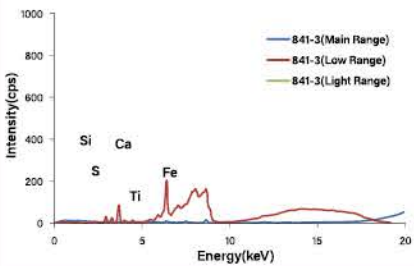
명문의 적색에 사용된 안료는 매우 미세하고 균질한 입자를 가지며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을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규소, 칼슘, 티타늄, 크롬, 철, 구리, 아연, 납, 스트론튬이 검출되었으며, 적색에 관여하는 무기성분인 수은,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색 안료는 유기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크롬, 납 등의 성분은 하부에 있는 황색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명문 부분의 흑색층은 적색→청색→흑색의 순서로 채색되어 있다. 채색층은 매우 두껍고 표면이 매끈하게 채색되어 있으며, 입자가 균질하고 미세한 특성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칼슘, 티타늄, 크롬, 철, 구리, 아연, 납 등의 성분이 검출되며, 적색층과 비교하였을 때 칼슘과 티타늄의 검출강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흑색은 칼슘과 티타늄이 주성분인 호분과 지당을 체질안료로 하는 흑색의 탄소화합물 또는 유기안료로 만들어진 흑색 안료인 것으로 추정된다.

5) 흑색 간판1

흑색 간판1은 목재 바탕층과 흑색 채색층, 황백색층, 황갈색층에 대한 분석조사를 수행하였다. 간판의 바탕은 전체적으로 흑색이며, 흑색층 위로 황갈색과 황백색의 물질이 일정한 패턴없이 묻어 있는 양상이다. X선 형광 분석을 통해 검출된 원소 결과 그래프와 이를 통해 추정한 안료 결과는 다음의 표13과 같다.

표13 흑색 간판의 현미경 사진 및 X선 형광 분석 스펙트럼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분석 결과 그래프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목재 바탕층			Si, S, Ca, Fe, Br	-
바탕 흑색층			Si, S, Ca, Fe, Br	먹
바탕 황백색층			Si, S, K, Ca, Ti, Fe, Zn, Pb, Br	백토, 아연, 연백 등
바탕 황갈색층			Si, S, Ca, Fe, Br	황토

흑색 간판1의 목재 바탕층에서는 규소, 황, 칼슘, 철, 브롬과 같은 원소들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검출량이 매우 낮아 목재 표면에 점착된 먼지나 흙, 혼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 성분 등으로 추정된다.

흑색층은 목재 바탕층 위에 얇은 흑색의 막을 형성하고 있으며, 200배의 확대사진에서도 입자형태가 관찰되지 않는다. 표면에는 흑색 외에도 백색과 갈색 등의 입자들이 관찰되고 있으나, 주변의 색상으로 볼 때 이는 채색 재료가 아닌 오염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흑색층에서 검출되는 성분은 규소, 황, 칼슘, 철, 브롬으로 목재 바탕층과 동일한 성분이었으며, 바탕층보다 칼슘의 검출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흑색은 X선 형광 분석에서 검출되지 않는 탄소 주성분의 먹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칼슘은 흑색에 관련된 성분이 아니라 백색이나 갈색 등의 오염물에 의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백색층은 흑색층 위에서 나타나며 간판의 가운데 부분에 집중적으로 묻어 있다. 입자들의 크기는 대략 1~10 μ m이며, 1 μ m내외의 작은 입자들은 덩어리져 뭉쳐있는 반면 10 μ m정도의 입자들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 입자들은 백색에서 옅은 황색까지 다양한 색상을 띠고 있다. 백색층에서 검출되는 성분들은 규소, 황, 칼륨, 칼슘, 철, 아연, 납, 브롬이 있다. 하부층인 흑색층과 비교하였을 때, 규소, 황, 칼륨, 철, 칼슘의 검출강도가 매우 높게 검출되었으며, 아연, 납 등은 소량이지만 백색에서만 검출되었다. 백색층에서 검출된 원소로 볼 때, 백토, 아연, 연백 등의 안료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각각의 채색층위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안료들이 혼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황갈색층은 백색보다 더 국부적으로 묻어 있는 양상으로, 색상물질 부분을 확대한 결과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입자들이 혼합되어 있었다. 황토색의 입자들은 주로 10~30 μ m의 작은 입자들인 반면, 백색의 입자들은 50~100 μ m단위 큰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황색에서 검출된 성분은 규소, 황, 칼슘, 철, 브롬이 있다. 하부층인 흑색 바탕층과 검출된 원소가 동일하며, 규소가 약 2배 정도 높게 검출된 반면 다른 성분들은 거의 유사한 강도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황갈색 부분은 규소 성분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토양성 안료인 황토인 것으로 추정된다.

6) 흑색 간판2

흑색 간판2는 목재 바탕층과 흑색 채색층에 대한 분석조사를 수행하였다. 흑색 간판2의 채색층 부분에는 일부 백색, 황색, 적색 등 미세한 분말상의 안료 입자들이 흩뿌려져 있는 양상으로 관찰되나, 문양이나 패턴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채색 흔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X선 형광 분석을 통해 검출된 원소 결과 그래프와 이를 통해 추정한 안료 결과는 다음의 표14와 같다.

표14 흑색 간판의 현미경 사진 및 X선 형광 분석 스펙트럼

분석 위치	현미경 사진	분석 결과 그래프	주요 검출 원소	추정 안료
목재 바탕층			Si, S, Ca, Fe, Ni, Br	-
바탕 흑색층			Si, S, Ca, Fe, Ni, Br	먹

목재 바탕층과 흑색 부분에서 모두 동일하게 규소, 황, 칼슘, 철, 니켈(Ni), 브롬이 소량으로 검출되었다. 이러한 소량의 성분들은 목재의 건조과정에서 함유되는 건조제 또는 방부제 성분이거나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에 의해 검출되는 성분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흑색의 채색에 사용된 안료는 X선 형광 분석에서 검출되지 않는 탄소 주성분의 먹과 같은 탄소화합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7) 종합적 고찰

중화루 간판 6점에 대한 현미경 관찰 및 X선 형광 분석을 통한 성분 원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5).

표15 중화루 간판 채색순서 비교

유물명	바탕	명문	문양	낙관	테두리	적색 안료
‘춘광화애’명 간판	모래→백색→금박→황색	백색→흑색→백색→적색	백색→황색→금박→황색	백색→흑색→황색→적색	분홍색→녹색	명문 : 유기안료 낙관 : 주사
‘과주임풍’명 간판	모래→백색→금박→황색반투명물질	백색→흑색→적색	백색→황색→금색→황색반투명물질	백색→황색→적색	백색→흑색→분홍색→청색→녹색	명문 : 유기안료 낙관 : 주사
‘악주조천’명 간판	청색→하늘색→녹색→녹청색	주황색→적색	없음	없음	없음	명문 : 주사

유물명	바탕	명문	문양	낙관	테두리	적색 안료
‘승우여운’명 간판	백색→황색반 투명물질→ 금박→황색	백색→황색→ 적색→청색→ 흑색	없음	없음	없음	명문 : 유기안료
흑색간판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흑색간판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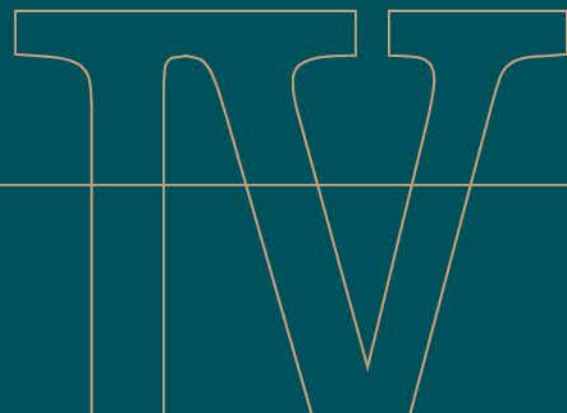
‘춘광화애’명 간판과 ‘파주임풍’명 간판은 모래를 이용한 바탕칠, 황색 바탕에 금박을 덧댄 문양, 주사로 추정되는 낙관의 적색 안료, 유기안료를 사용한 적색 명문 등 사용된 안료의 종류와 채색층위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였다. ‘승우여운’명 간판은 황색 바탕에 흑색 명문이 쓰인 간판이지만, 바로 이전 채색층에서 백색과 금박 문양, 적색 명문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개채 전에는 ‘춘광화애’명 간판, ‘파주임풍’명 간판과 유사한 형태의 간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춘광화애’명 간판, ‘파주임풍’명 간판, ‘승우여운’명 간판의 금박층 전후의 층위에서 확인되는 황색의 반투명물질은 유기성분으로, 금박을 접착시키기 위해 사용된 옷이나 카슈와 같은 유기 접착제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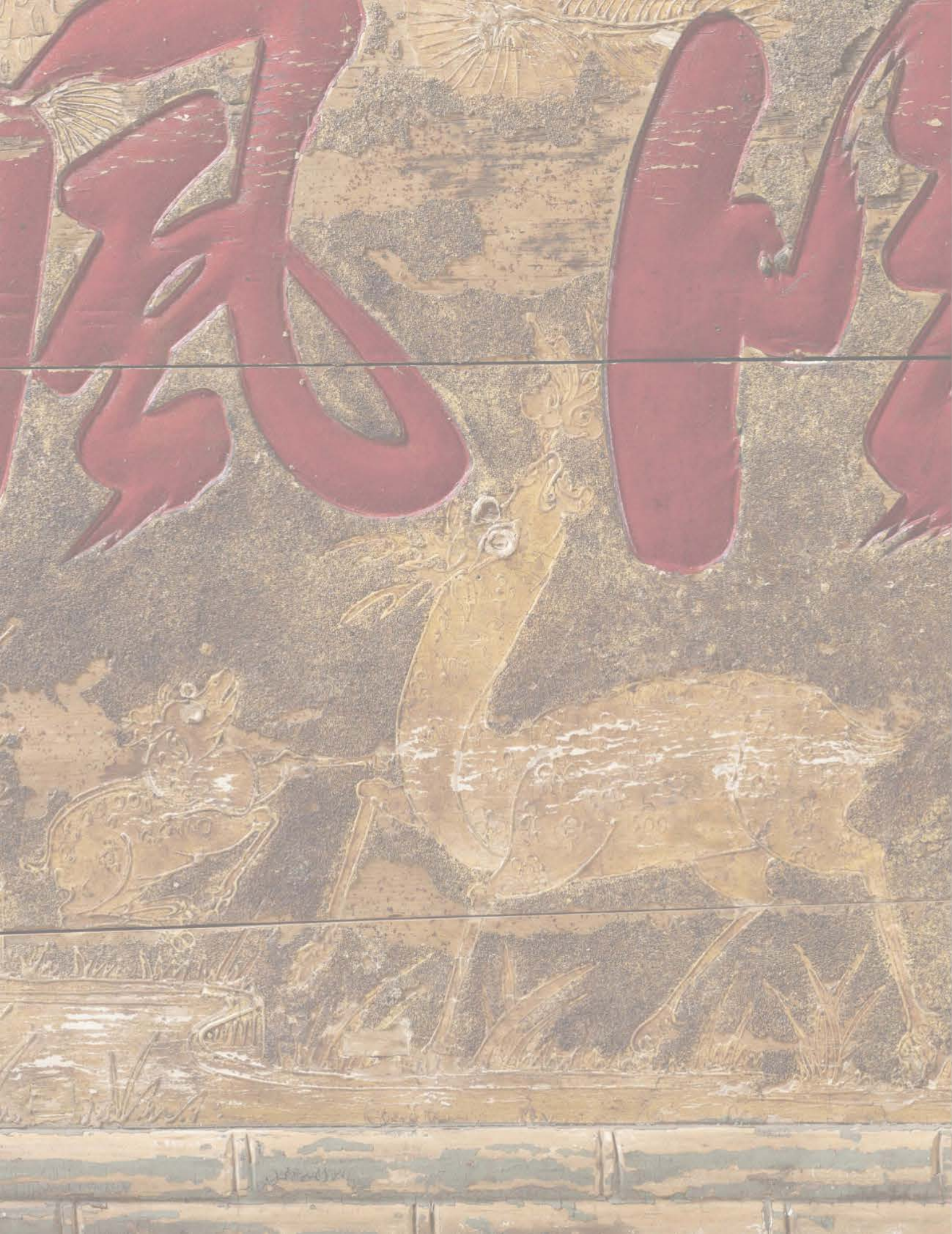
‘악주조천’명 간판은 앞의 명문 간판 3점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녹색 바탕에 적색 명문이 쓰인 간판으로, 바탕 부분에 청색, 하늘색, 녹색, 명문과 측면 부분에 주황색 안료층이 확인되고 있어 여러 차례의 개채가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하였다. 흑색간판 2점은 목재 바탕 위에 먹으로 추정되는 탄소 화합물의 흑색 안료가 채색된 것 외에 다른 채색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화루 간판에 사용된 안료들은 표면의 청색, 적색, 황색, 흑색 등에서 유기성분의 안료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색상에서 탄산칼슘, 티타늄, 아연, 바륨 등의 백색 채질안료 또는 충전제 역할의 백색 안료 성분들이 함께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물감이나 페인트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흑색간판 2점을 제외한 4점은 X선 형광 분석결과, 백토, 연백, 호분, 석고, 황산바륨, 아연화, 지당 등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백색 안료 성분들이 확인된다. 내면일수록 백토 또는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표면으로 올라올수록 아연화, 지당의 사용 빈도수가 높으나, 각 층별로 안료가 혼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층위별 안료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3D 스캔 및 정밀 실측

1. '중화루(中華樓)'명 간판
2. '신(新)'명 간판
3. '춘광화애(春光和靄)'명 간판
4. '파주임풍(把酒臨風)'명 간판





IV. 3D 스캔 및 정밀 실측

3D 스캔 및 정밀 실측에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소장유물 3D 스캔의 결과물을 수록하였다. '중화루'명 간판과 '신'명 간판, '춘광화에'명 간판, '파주임풍'명 간판 4점에 대한 3D 스캔을 실시한 것으로, 점밀도 1mm이하 정밀 스캔을 통해 사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유물의 세부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고 현상을 기록하여 디지털화하였다. 사용한 3D 스캔 장비는 정밀 3D 스캐너 'Gom Atos Compact 5M'과 광대역 3D 스캐너인 'Z+F IMAGER 5016', 맵핑 이미지 촬영을 위해 사용한 카메라 'Nikon D7500'이다. 스캔 장비를 이용하여 유물을 보이는 모든 방향에서 사각 없이 촬영하였고, 촬영한 스캔데이터를 후처리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3D 스캔본과 정밀 스캔을 통해 구현한 도면 및 라인드로잉 결과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중화루(中華樓)'명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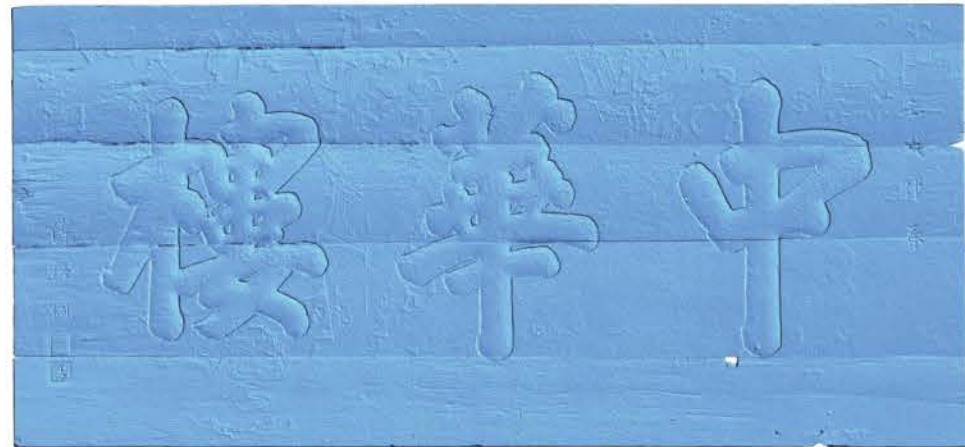


그림1-1 3D 스캔 정면도



그림1-2 정면도



그림1-3 3D 스캔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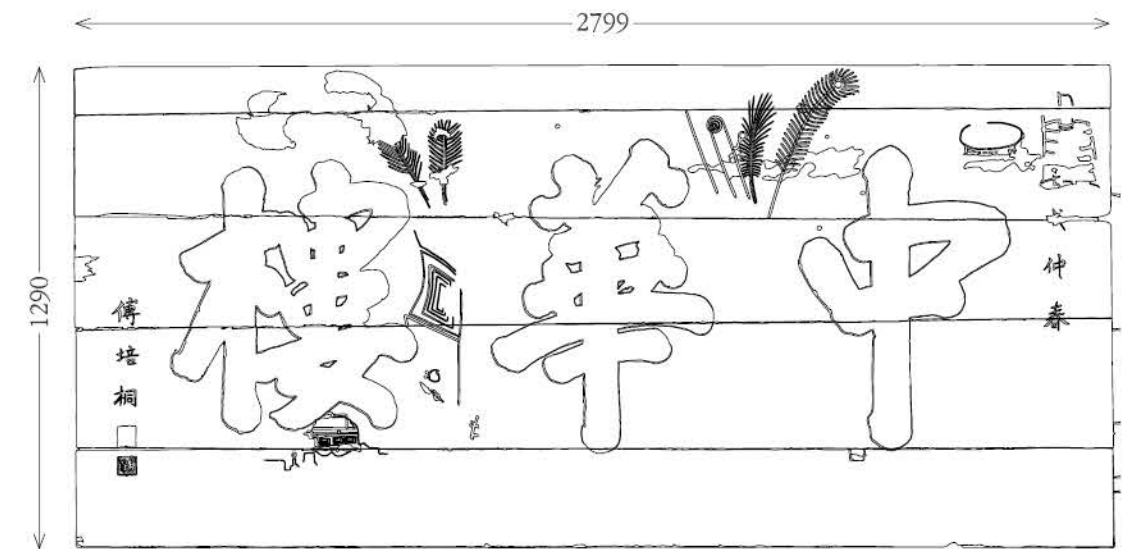


그림1-4 도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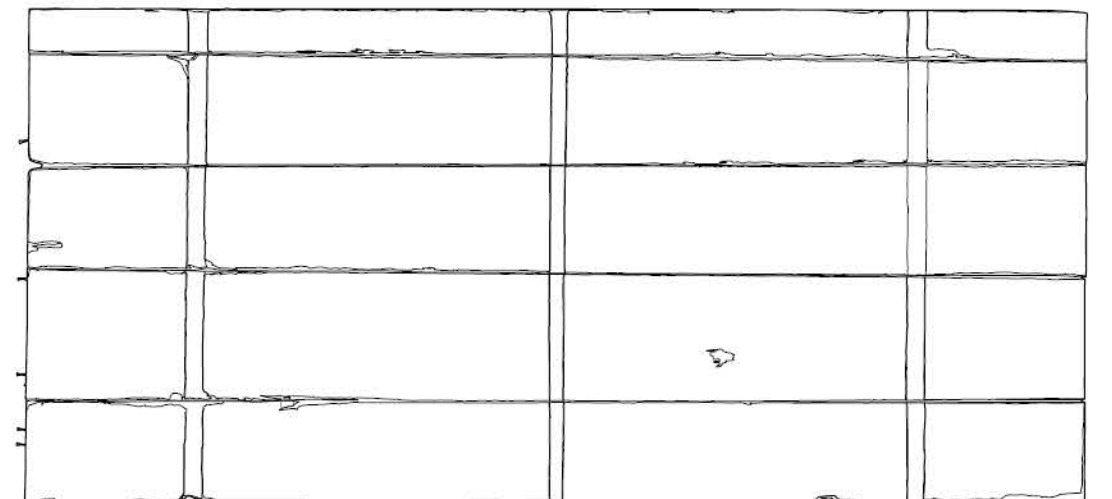


그림1-5 도면 배면도



그림1-6 3D 스캔 좌측면도(좌), 우측면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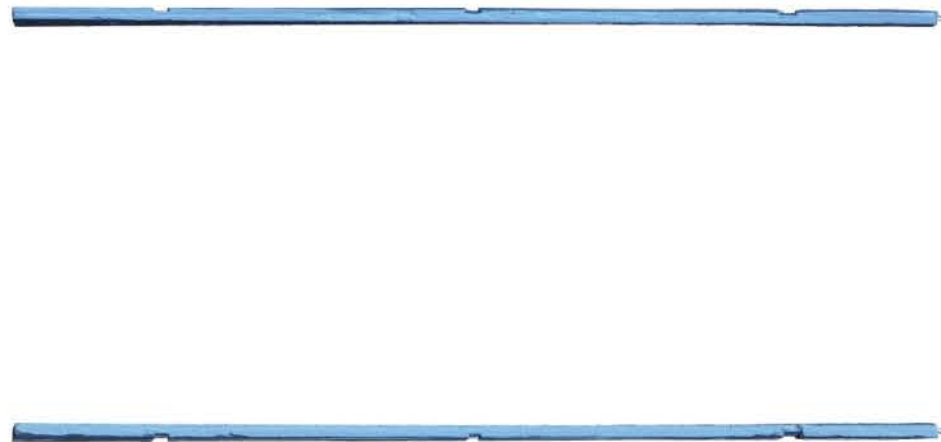


그림1-7 3D 스캔 상측면도(상), 하측면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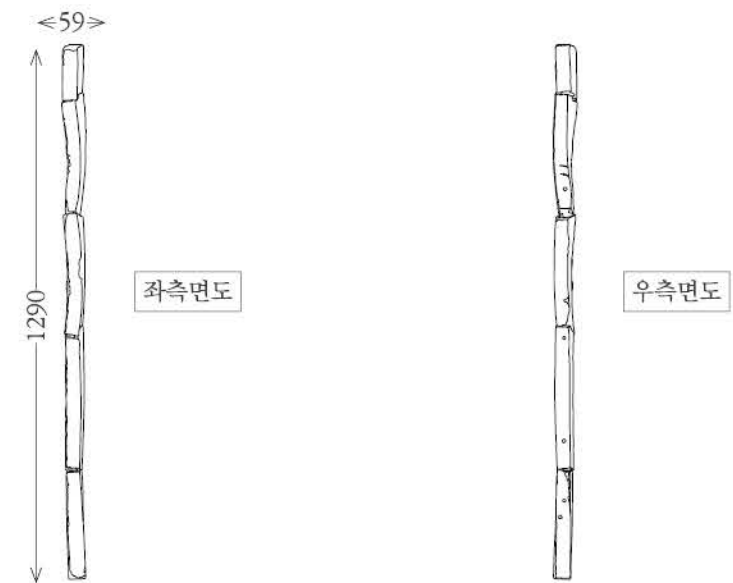


그림1-8 도면 좌측면도(좌), 우측면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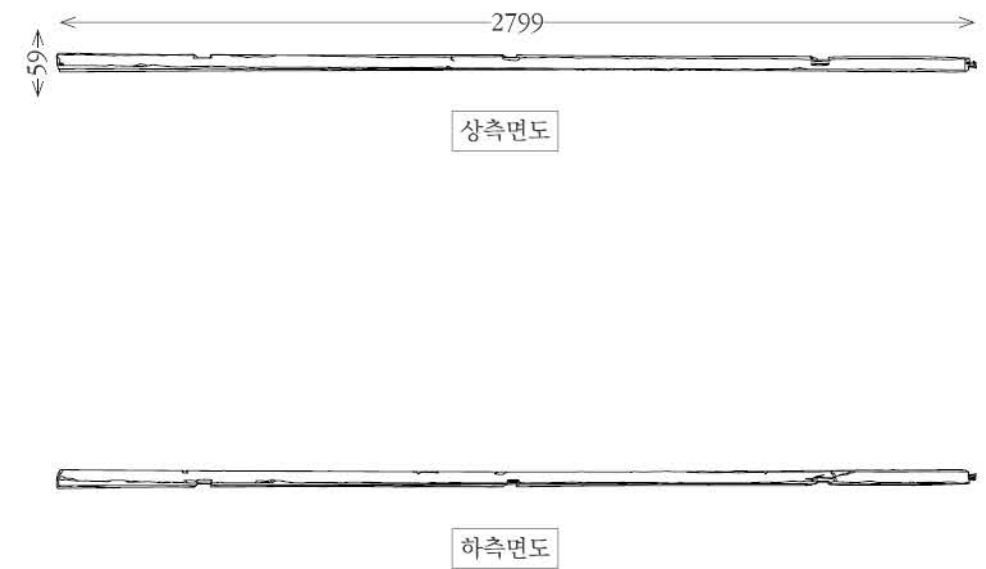


그림1-9 도면 상측면도(상), 하측면도(하)

2. '신(新)'명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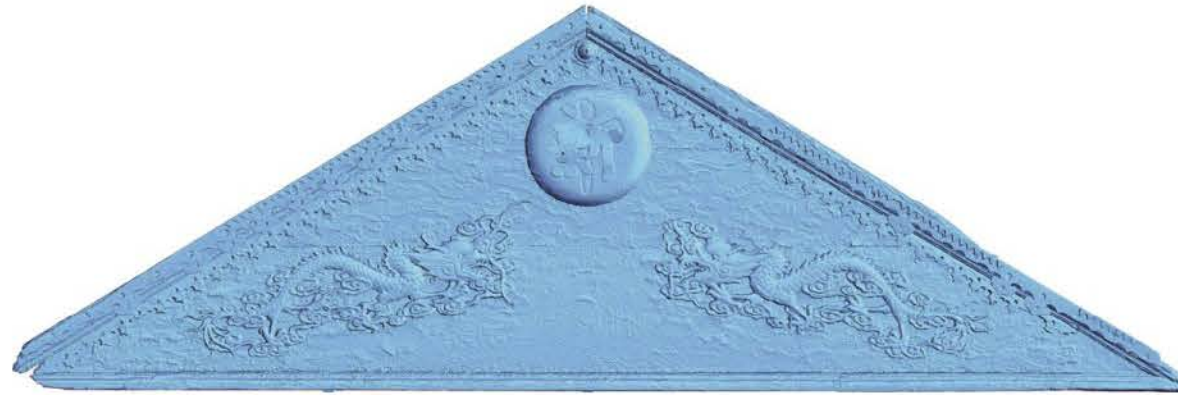


그림2-1 3D 스캔 정면도



그림2-2 정면도



그림2-3 3D 스캔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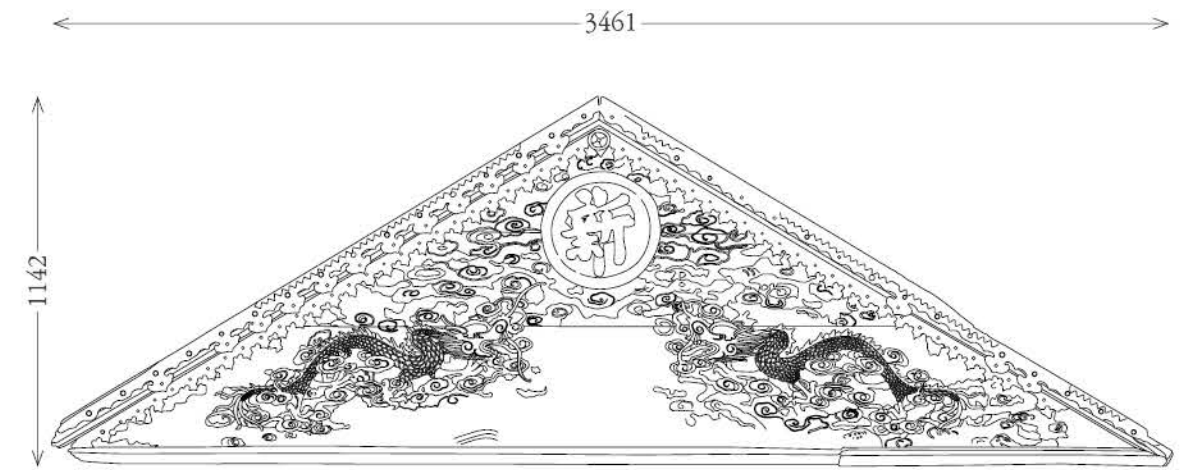


그림2-4 도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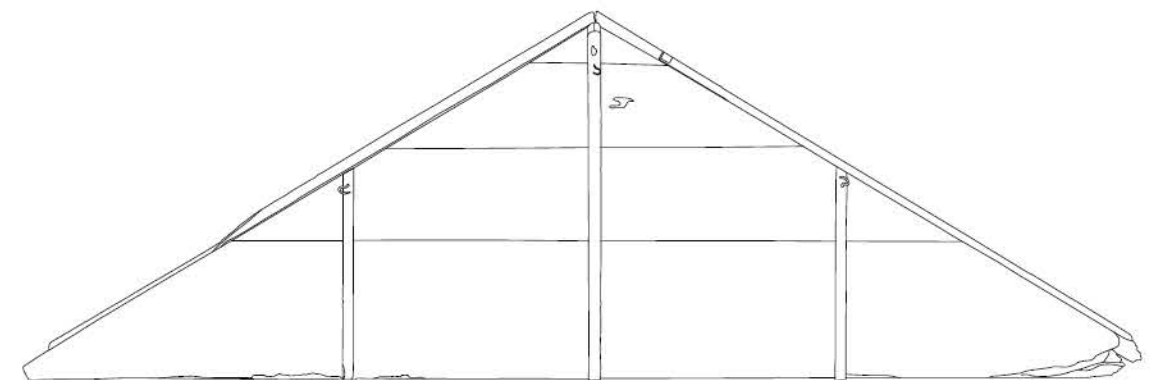


그림2-5 도면 배면도



그림2-6 3D 스캔 좌측면도(좌), 우측면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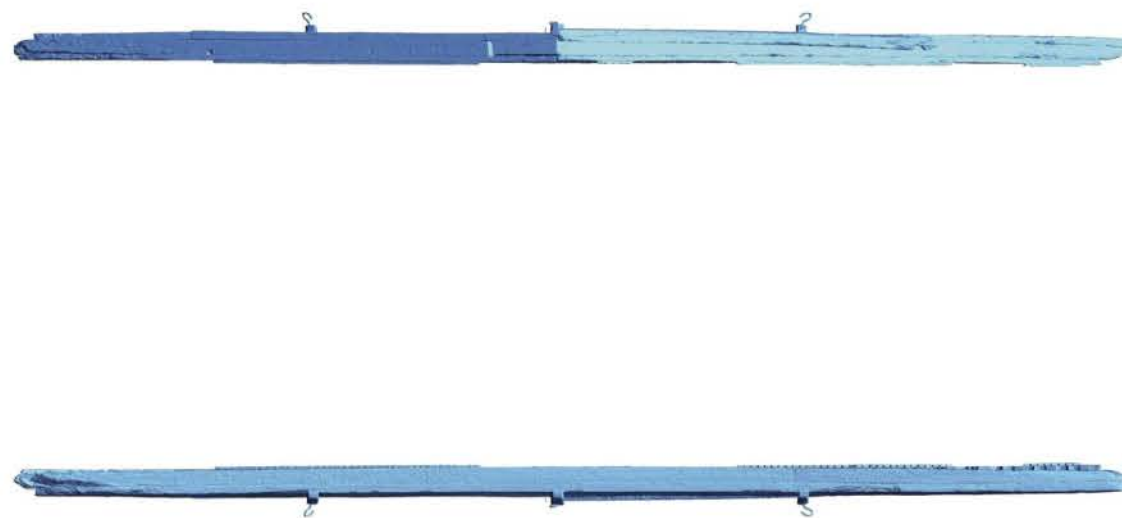


그림2-7 3D 스캔 상측면도(상), 하측면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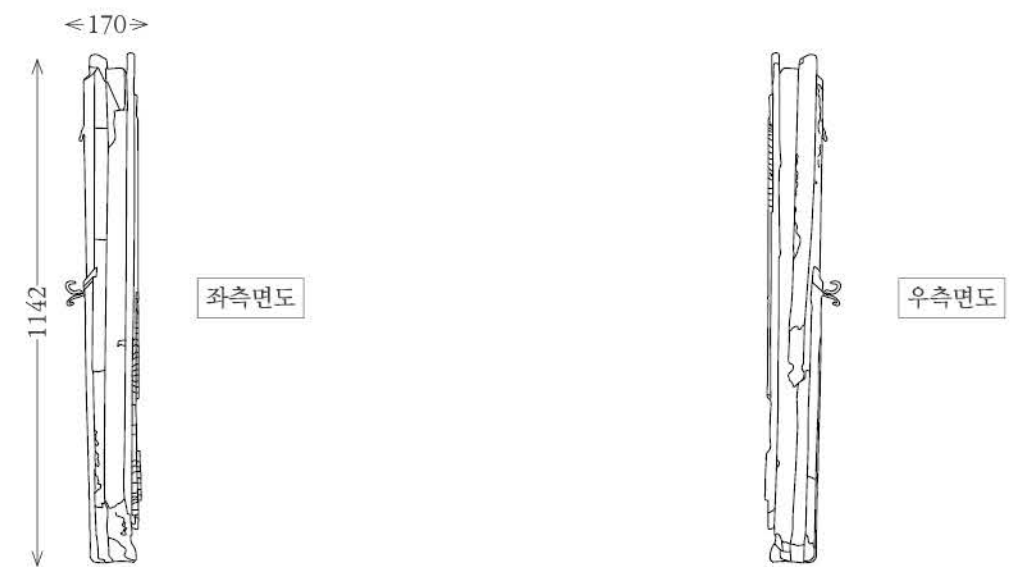


그림2-8 도면 좌측면도(좌), 우측면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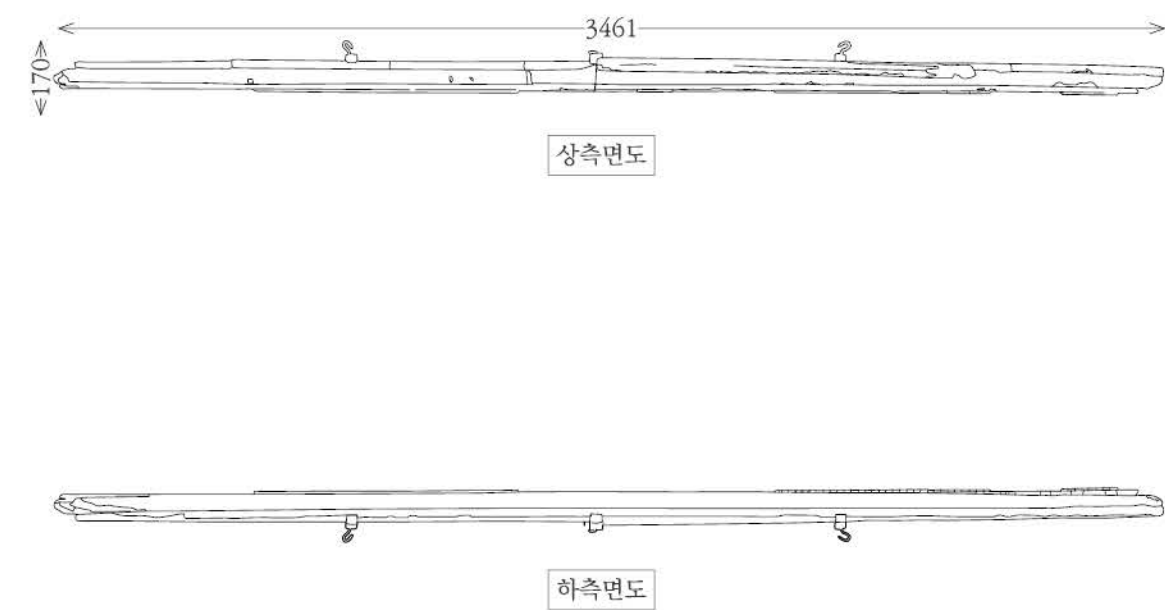


그림2-9 도면 상측면도(상), 하측면도(하)

3. '춘광화애(春光和靄)'명 간판



그림3-1 3D 스캔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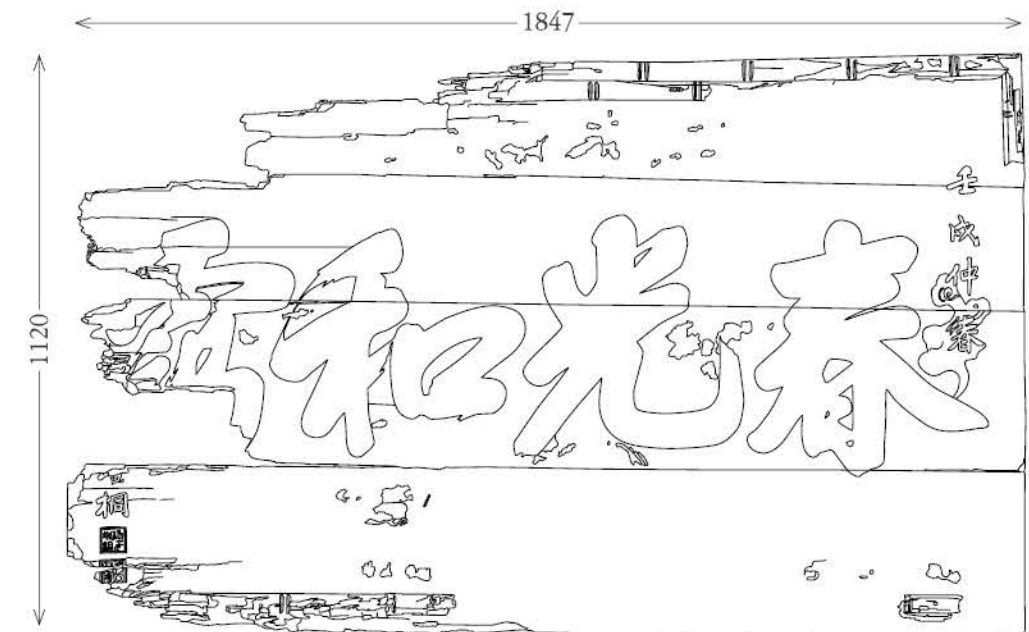


그림3-3 도면 정면도



그림3-2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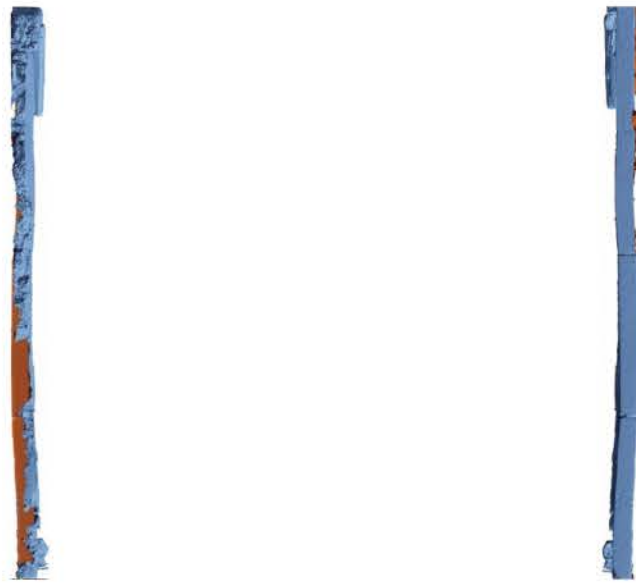


그림3-4 3D 스캔 좌측면도(좌), 우측면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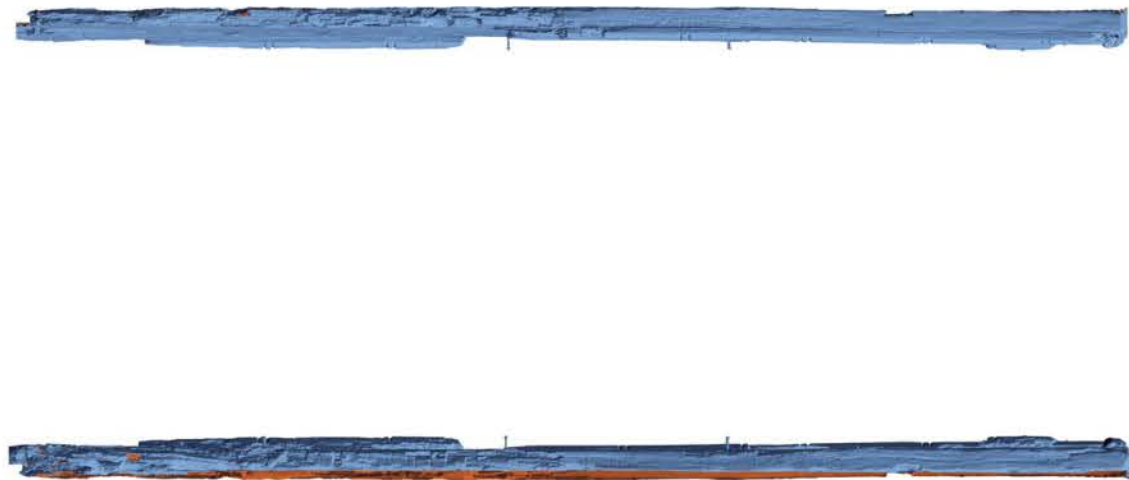


그림3-5 3D 스캔 상측면도(상), 하측면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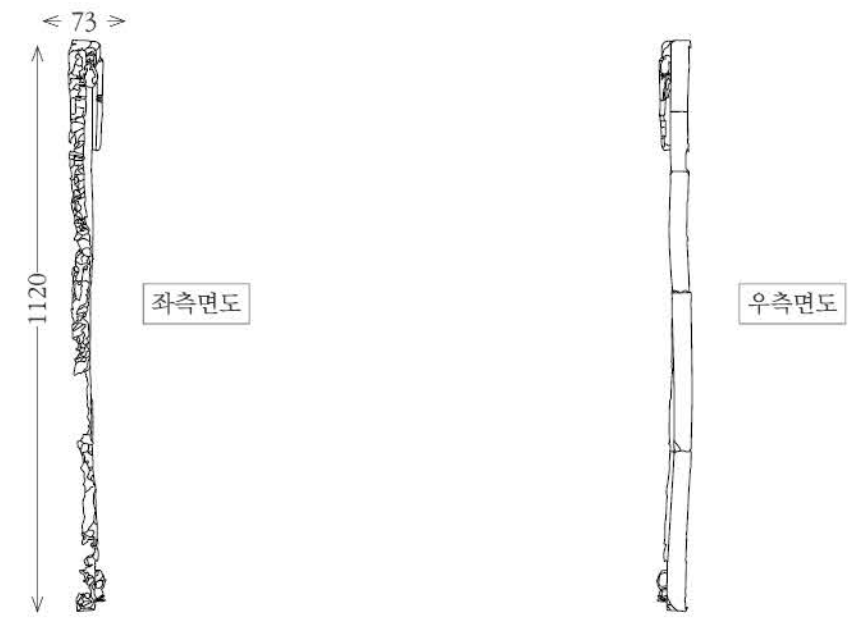


그림3-6 도면 좌측면도(좌), 우측면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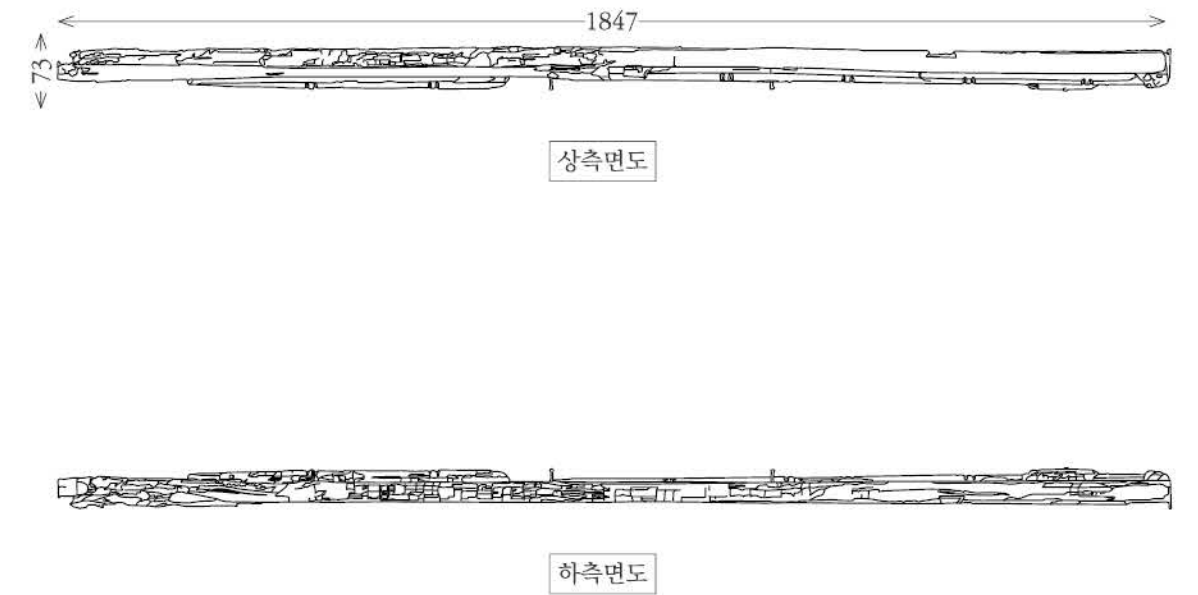


그림3-7 도면 상측면도(상), 하측면도(하)

4. '파주임풍(把酒臨風)'명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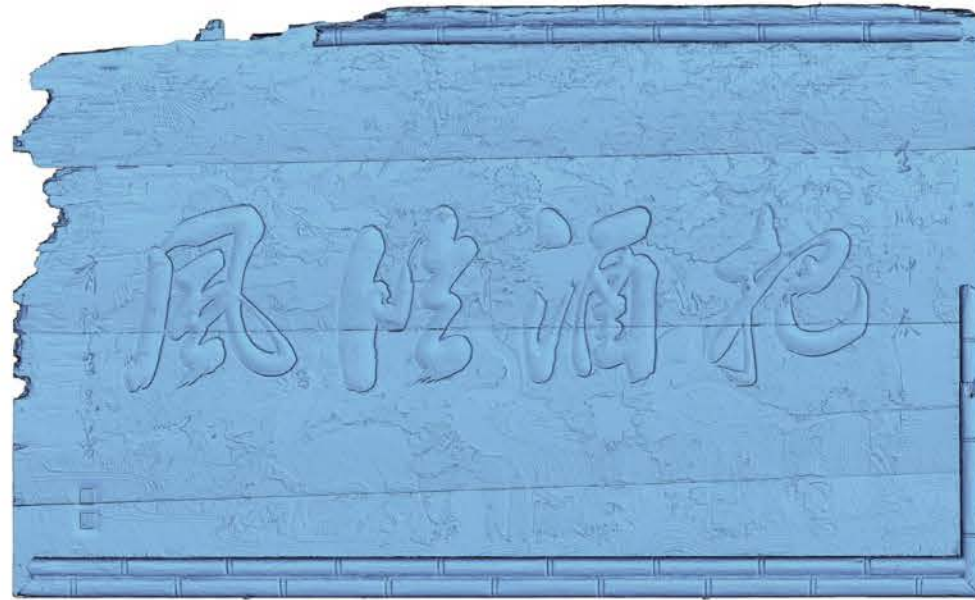


그림4-1 3D 스캔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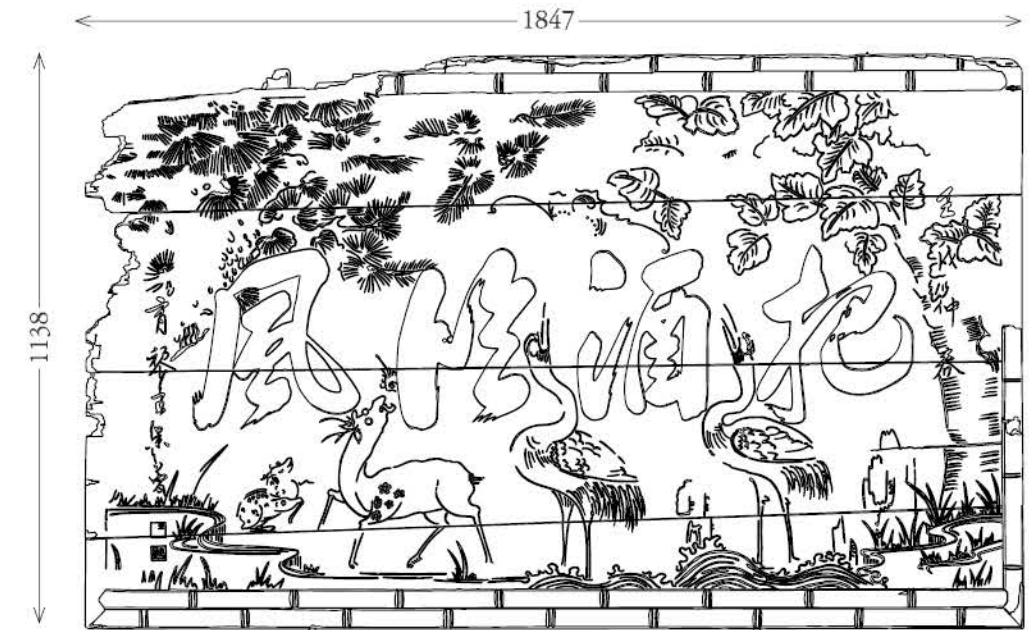


그림4-3 도면 정면도



그림4-2 정면도



그림4-4 3D 스캔 좌측면도(좌), 우측면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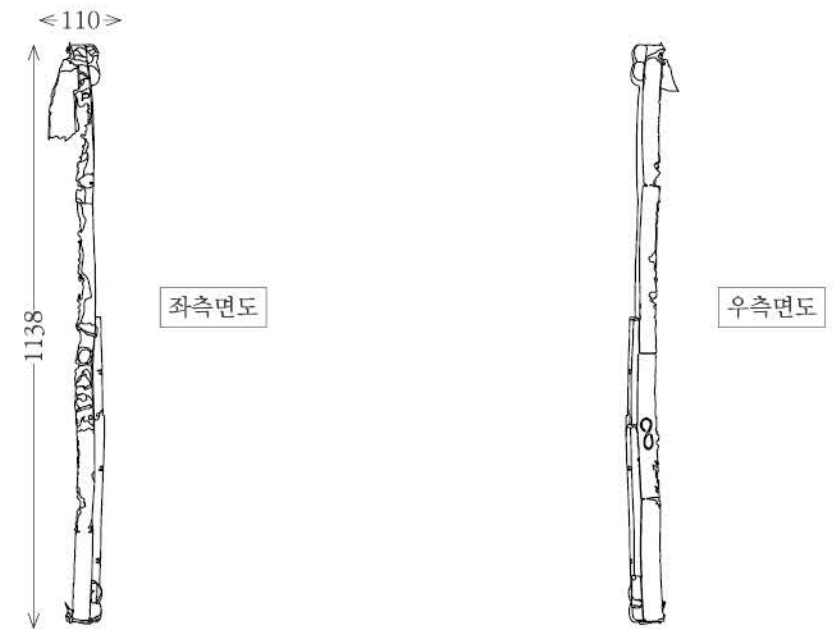


그림4-6 도면 좌측면도(좌), 우측면도(우)



그림4-5 3D 스캔 상측면도(상), 하측면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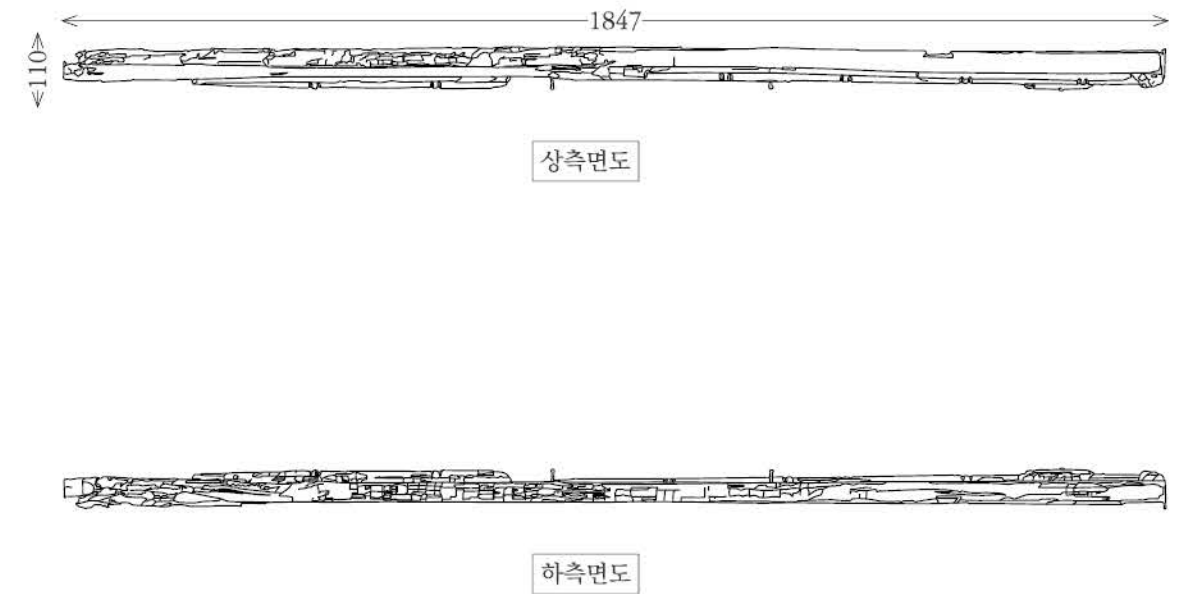


그림4-7 도면 상측면도(상), 하측면도(하)

논고



1. 근·현대 인천 중화요리점 역사 속의 중화루 | 이정희
2. 기억과 시각적 자료로 보는 화기(和記) 중화루 | 주희풍
3. 인천 조계지의 중국요리점, 중화루 간판들 | 최경현

근·현대 인천 중화요리점 역사 속의 중화루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부교수

I. 머리말

인천시 중구 중앙동 1가 18번지(인천 중구 신포로 23번길 101)에는 현재 대불호텔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전시관의 이름이 상징하듯이 원래 이 자리에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인정받고 있는 대불호텔이 자리해 있었다. 하지만 대불호텔은 경인철도 개통 후 수요 감소로 문을 닫았고, 중화루 중화요리점으로서 다시 문을 열어 1970년대 초반까지 영업을 계속하다, 1978년에 해체되었다. 대불호텔 건물은 호텔로서의 역사보다 중화요리점으로 서의 역사가 보다 길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에 주로 주목했기 때문에 인천의 대표적인 중화요리점으로서 집중 분석하는 데는 미흡했다.¹

김창수(2010)와 손장원·조희라(2011)에 의하면, 대불호텔은 일본인 호리 히사타로(堀久太郎)에 의해 1883년 목조 2층 건물로 건축되어 호텔로 영업을 시작한 후, 현재의 대불호텔전시관 자리에 1888년경 벽돌조 3층 건물로 건축되었으며, 경인철도 부설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1907년경 문을 닫았다고 한다.² 이것이 사실이라면, 목조 건축의 호텔을 기원으로 하면 25년, 벽돌조 건축 호텔을 기원으로 하면 20년의 호텔 역사가 된다. 또한 대불호텔이 문을 닫은 후 화교 경영의 중화요리점이 1918년경 문을 열었고, 1970년대 초 문을 닫았다고 한다.³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중화루의 역사는 50여 년의 역사가 된다. 중화루의 역사가 대불호텔의 역사보다 2.5배나 길다.

중화루는 인천의 근·현대 중화요리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공화춘보다도 규모가 더 큰 인천 최대의 중화요리점이었다.⁴ 공화춘과 관련해서는 그 자리에 짜장면박물관이 들어서면서 공화춘의 존재가 대외적으로 비교적 많이 알려졌지만,⁵ 대불호텔 건물의 역사성에다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중화루 중화요리점인데도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그래서 본고는 대불호텔의 건물을 중화루 중화요리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 근·현대 인천 중화요리점의 역사 속에서 중화루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한 활용 자료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중화루 편액과 간판,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 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소장의 《주한사관보존당안》, 그리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등이 발간한 각종 일본어 자료와 신문 자료 등이다.

II. 대불호텔로서의 역사(1884년-1906년경)

중화루 중화요리점에 대해 검토하기 전에 대불호텔 시기의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대불호텔의 설립 및 경영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仁川府史』(1933)의 자료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바야시 하시이치(小林端一)⁶ 주인천일본영사가 1884년 11월 3일 본국 외무성에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의 생일을 맞은 천장절(天長節) 때 호리 히사타로(堀久太郎, ?-1898)의 누각에서 연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손장원·조희라(2011)는 호리 히사타로의 누각이 목조로 건축된 대불호텔로 추정한다. 고바야시 영사의 보고문 전문을 보도록 하자.

“(필자: 1884년) 11월 3일 천장절 당일은 아침 일찍부터 날씨가 매우 좋아서 최근 보지 못하던 쾌청한 날씨였다. 본관(필자: 주인천일본영사관)에서는 예에 따라 오후 1시부터 오찬의 연회를 개최했다. (필자: 인천) 감리 당항 통상사무를 비롯해 인천부사, 각국 영사 등을 초청하여 군함 일진호(日進號)에서 21발의 축포를 발사했다. 또한 당 정부(필자: 조선정부)에서도 화도진 해안 포대에서 같은 수의 축포를 발사했다. 본년(1884년)은 인천 개항으로 점차 집이 건축되어 약간 거류지의 체제를 갖추게 된 이래 첫 성탄(聖誕)을 맞아, 거류 인민 등 각 호는 일장기를 게양하고 정오 12시부터 무역상 가운데 유지 수십 명이 (필자: 일본전관거류지) 제12호 토지의 호리 히사타로의 누각에서 입식의 연회를 열었다. 해관 관리를 비롯하여 내외 동업자 가운데 초청에 응해 참가한 자가 수십 명이었다. 또한 오후 4시부터는 감리 당항 통상사무 및 각국 영사 등을 초대했다. 저녁 들어 수십 개의 흥등을 거

- 1 김창수(2010), 「인천 大佛호텔·中華樓의 변천사 자료연구」, 『인천학연구』1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p. 275-316.; 손장원·조희라(2011),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11-3, pp. 27-34.; 김경한(2013), 「한국 개화기의 호텔사-대불호텔과 손탁호텔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25-7, pp. 231-250. 최근 대불호텔을 소재로 한 추리소설 『대불호텔의 유령』(강화길, 2021, 문학동네)도 나왔다.
- 2 김창수(2010), 「인천 大佛호텔·中華樓의 변천사 자료연구」, 『인천학연구』1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p. 275-289.; 손장원·조희라(2011),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11-3, pp. 27-34.
- 3 김창수(2010), 「인천 大佛호텔·中華樓의 변천사 자료연구」, 『인천학연구』1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 289.

- 4 이정희(2017.12), 「조선화교 중화요리점의 실태: 1927-1945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경제사학』41-3(통권65호), 경제사학회, pp. 290-293.
- 5 한동수(2009.12), 「인천 청국조계지 내 공화춘의 역사변천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60, 한국중국학회, pp. 371-393.
- 6 그는 1883년 7월 1일 주인천영사관에 착임하여 1885년 6월 4일까지 근무했다. 주인천일본영사관은 1883년 1월 인천 개항 이전 해인 1882년 4월 19일부터 임시 청사에서 업무가 시작됐으며, 초대 영사는 곤도 마스키(近藤真鍮, 1840-1892)로 1883년 1월 10일까지 근무했다(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1908), 『仁川開港二十五年史』,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 pp. 19-20).

는 등 실로 인천 개항 이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시내의 변화함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 오후 7시부터 각국 영사관 소속 직원 및 무역상 일동은 본관(필자: 주인천일본영사관)으로 이동하여 입식의 연회를 개최했다. 오후 10시 모두 돌아가면서 당일의 축하연은 마무리됐다.”⁷

고바야시 인천영사의 보고문 가운데, “제12호 토지의 호리 히사타로의 누각에서 입식 연회를 열었다.”고는 했지만, 이 누각이 대불호텔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 손장원·조희라(2011)는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비망록에 ‘Daibutsu Hotel’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내, ‘호리 히사타로의 누각’이 목조 2층 건물의 대불호텔이라고 주장했다.⁸ 호리 히사타로는 1878년 그의 아들 호리 리키타로(堀力太郎, 1870-1934?)와 같이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에도마치(江戸町)에서 개항장인 부산으로 이주하여 서양잡화상점을 경영했다. 1883년 1월 인천이 개항하자 그해 인천으로 이주하여 데라마치(寺町) 2정목(丁目)에 거주했다.⁹ 조금 뒤 호리 히사타로는 일본전관거류지의 경대(競賣)에서 상기의 고바야시 인천영사의 보고문에 등장하는 ‘제12호 토지’을 차지(借地)하고, 이 땅에 목조 2층 건물의 대불호텔을 건축했다는 것이다.¹⁰

손장원·조희라(2011)는 ‘제12호 토지’는 현재의 대불호텔전시관 자리가 아니며, 제13호 토지가 그 자리라고 주장했다. 제13호 토지의 차지인은 도히 후쿠사부로(土肥福三郎, 1853-?)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나가사키현 이키군(壹岐郡) 가시이촌(香椎村) 출신으로 호리 히사타로와 같은 나가사키현 출신이었다. 호리 히사타로와 같은 1883년에 인천으로 이주하여 하마마치(濱町, 현재의 사동) 2정목에 거주하면서 미곡상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전관거류지 경대를 통해 제13호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¹¹

호리 히사타로가 도히 후쿠사부로로부터 현재의 대불호텔전시관 자리의 땅을 매입하여 차지한 시기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도히 후쿠사부호가 1884년 갑신정변 때 한성에 개설한 점포에 큰 피해를 입었고, 점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² 이 사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히 후쿠사부호가 같은 나가사키현 출신의 호리 히사부로에게 제13호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하여튼, 호리 히사타로는 경대한 제13호 토지에 벽돌조 건축물을 건조하여 대불호텔을 경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仁川府史』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⁷ 仁川府廳 編纂(1933), 『仁川府史』, 仁川府, p. 363.

⁸ 손장원·조희라(2011),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11-3,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p. 31.

⁹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1908), 『仁川開港二十五年史』,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 p. 66.

¹⁰ 손장원·조희라(2011),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11-3,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pp. 31-32.

¹¹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1908), 『仁川開港二十五年史』,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 pp. 63·67-68.

¹²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1908), 『仁川開港二十五年史』,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 p. 68.

“이 혼마치(本町, 현재의 중앙동) 첫 길모퉁이가 호리의 집으로 그 이웃한 지금의 중화루에는 예전에 대불‘호텔’이 높이 솟아 있어 인천의 대표적인 건축물의 하나였다. 지금의 호리 리키타로의 선대인 히사타로씨가 이 대불‘호텔’을 경영했다. 당시 조선의 문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인천은 조선에 온 여행자를 맞이하고 보내는 항구였다. 그래서 이들 여행자는 교통기관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도 하루 이상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목적지로의 여로에 오를 수 없었다. 이들 여행객 가운데 대불‘호텔’의 손님은 구미인이었다. 메이지22년(필자: 1889년)에 미개한 국토에 문명식(文明式)의 크고 높은 건축물이 문명개화의 여행객에게 이국에서 첫날 밤의 꿈을 편안히 꿀 수 있게 하고, 좋은 ‘침대’와 ‘홈’(home)은 그들에게 여행지에서 시름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 대불‘호텔’이 영업을 개시하여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여행자뿐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인천영사관이었다. 무엇보다 어제까지 채국과 양이(洋夷)를 시행하고 있던 이 미개국을 개국시킨 우리나라는 각국에 앞장서 일찍부터 공사, 영사를 파견했다. 구미 각국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개의 미개 소국도 당시 구미에서 유행하고 있던 침략주의의 목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곧바로 외교관을 보내어 일본과 한국 간의 조약 이상의 유리한 조약이 연이어 체결되었다. 이 관계로 급격히 여행자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 문명인을 숙박시킬 외국인 전문의 여관이 없었다. 그러나 인천에서 유일한 선진적 건축물이었던 우리 인천영사관은 이 사람들의 목표가 되었다. 하룻밤 잠 자리를 의뢰하는 각국 외교관에게 시달렸다. 우리 모 외교관은 본성(필자: 일본 외무성)에 읍소하여 이들 의뢰자의 접대비와 침구, 식기를 준비했을 정도였으니 대불‘호텔’이 개업한 것은 인천영사관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 이처럼 대불‘호텔’에 외국인 여행객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호리가의 생각은 커져만 갔다. 그러나 시대의 촉수는 이윽고 이런 고루(高樓)에 중압감을 가져다 주었다. 메이지32년(필자: 1899년)의 경인철도 개통은 여행객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반드시 인천에 숙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인천이 조선 교통로의 동맥이자 문호인 것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결국 러일전쟁을 정점으로 보호시대에서 병합으로 나아감에 따라 조선은 일본 내지(内地)의 연장선이 되어 모든 방면에 대변혁이 일어났다. 조선 교통로의 동맥에도 대변동이 일어나 조선의 국제향이었던 우리 인천은 이윽고 그 위치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다만, 조선 서부에서 한 나라의 내항(內港)으로 전략, 애석하게도 개항의 사명에 종말을 고했다. 그 존재의 기초에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야 했다. 또한,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던 이 건물에도 가련한 시대의 순간이 닥쳐왔다. 차색 눈과 높은 코의 이국인도 가장 빨리 이 숙소에 신세를 질 필요가 없어져 달리박스를 호언장담하던 옛날은 이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또한 심각한 불경기는 이 항구를 에워쌌다. 이 건물의 경영자는 이윽고 폐업의 비운에 이르게 되었다. 이 애처로운 일은 다만 이 ‘호텔’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침통한 검은 구름은 전 인천을 뒤덮고 나락 끝까지 갈 것으로 여겨졌다. 폐업한 이 ‘호텔’은 셋집의 차주(借主)를 기다렸다. 그러나 빌린 사람은 모두 지속되지 못했다. 그것은 어떤 영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이 건물을 이용하기에 맞지 않는 인천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이쇼7·8년(필자: 1918·1919년)경부터 중화민국인에 의해 지나요리점을 개업하여 이상하게도 인기를 끌었다. 인천의 중화루로서 경성 인사들에게도 그 존재를 인정받았다. 이 건물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금박색의 지나 간판이 이국정취를 돋우고 있다. 그리고 그 방 하나에는 지금이라도 옛이야기를 들려줄 듯한 오래된 ‘피아노’가 색다른 음률을 울려 장난감 취급을 받고 있다. 마치 연로한 옛 이름난 기생의 구슬픈 말로가 이빨 빠진 입술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 주는 것 처럼.”¹³

¹³ 仁川府廳 編纂(1933), 『仁川府史』, 仁川府, pp. 1477-1479. 『인천부사』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의 시각에서 기술한 만큼 우리의 입장에서 불쾌한 표현이 많지만,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가감없이 번역했음을 밝혀둔다.

『仁川府史』가 편찬된 해가 1933년이므로 이 글이 집필된 것은 1932년이나 1933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 “이 혼마치(本町, 현재의 중앙동) 첫 길모퉁이가 호리의 집으로 그 이웃한 지금의 중화루에는 예전에 대불‘호텔’이 높이 솟아 있어 인천의 대표적인 건축물의 하나였다.”고 한 것에서, 호리가의 집은 바로 제12호 토지에 자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의 목조2층의 대불호텔인지, 아니면 그 건축축을 부수고 새로 건축한 주택인지 분명하지 않다. 호리가의 주택 옆인 제13호 토지에는 주로 서양인 여행객을 위한 ‘문명식’의 건축물이 세워져 1889년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건물은 1887년에서 1888년에 걸쳐 건축되었다고 한다.¹⁴

호황을 구가하던 대불호텔은 1899년 경인철도의 부설 후 서양인 여행객이 철도로 서울로 곧바로 향하면서 급격한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인천항도 부산항의 발전으로 ‘조선 서부에서 한 나라의 내항(內港)’으로 전락하면서 대불호텔의 쇠락에 박차를 가했다. 드디어 대불호텔은 폐업을 하게 되었고, 호텔 이외의 “셋집의 차주(僭主)를 기다렸다.”고 한다. 손장원·조희라(2011)는 1907년 발행된 자료에 대불호텔이 다쿠(宅)합명회사 인천지점으로 표기된 것을 근거로, 대불호텔이 1907년에 폐업했다고 주장했다.¹⁵ 다쿠합명회사는 일본 사카이(界)에 본점을 둔 청주 판매 회사로 인천지점장은 아오키 가즈하(青木一葉)였다. 그런데 다쿠합명회사가 인천에 진출한 해는 1906년 7월이었다.¹⁶ 다쿠합명회사가 대불호텔을 빌어 인천지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대불호텔은 1906년 7월 혹은 그 이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호리 리키타로가 경영하던 호리상회는 한강항로, 인천과 목포·진남포·평양을 잇는 연안항로, 일본항로를 개척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지만, 러일전쟁 때 소유 선박이 러시아함대의 포격으로 격침을 당해 큰 피해를 입었다. 그 영향으로 호리 리키타로는 1906년 12월 해운업을 폐업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 소유 선박으로 일본군을 도와준 대가로 1910년 2월 일본우선주식회사가 인천지점을 폐점할 때 그 대리점을 맡았으며, 1912년 1월 조선우선주식회사가 성립하자 그의 인천지점도 문을 닫았다.¹⁷ 호리 리키타로는 1915년 경 전문적으로 황무지를 매입하거나 금융대출업에 종사하고 있었다.¹⁸ 그리고 1930년에는 데라마치(寺町) 43번지에 거주하면서, 하나마치(花町) 1정목 29번지에 소재한 호리상회를 경영하면서 부동산업과 보험업을 하고 있었다.¹⁹

- 14 仁川府廳 編纂(1933), 『仁川府史』, 仁川府, p. 794.
- 15 손장원·조희라(2011),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11-3,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p. 30.
- 16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1908), 『仁川開港二十五年史』,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 p. 51.; 仁川日本人商業會議所(1908), 『明治四拾年 仁川日本人商業會議所報告』, 仁川日本人商業會議所, p. 85·92.
- 17 仁川府廳 編纂(1933), 『仁川府史』, 仁川府, pp. 794-799.
- 18 김창수(2010), 「인천 大佛호텔·中華樓의 변천사 자료연구」, 『인천학연구』1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 288.
- 19 京城中央電話局(1930.6), 『京城·仁川電話番號簿』, 朝鮮印刷株式會社(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P. 4. 호리 리키타로의 전화번호는 9번, 호리상회의 전화번호는 185번이었다.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대불호텔이 자리했던 ‘중구 중앙동 1가 18번지’의 구토지대장을 신청하여 열람한 결과, 대불호텔 건물과 토지는 1914년 5월 6일 인천부의 사정(査定)을 받았다. 조선총독부가 1914년 4월부터 부제(府制)를 시행하면서 인천부 관할 내의 토지를 조사했는데 그 일환으로 이뤄진 것 같다. 당시의 소유주는 호리 리키타로로 기재되어 있고, 그의 거주지는 데라마치(寺町), 대지는 117평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1915년 11월 19일에는 그의 거주지가 데라마치 43번지로 변경되었다.²⁰ 당시까지 대불호텔의 대지와 건물은 호리 리키타로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III. 중화루 중화요리점으로서의 역사(1915년-1970년대초)

1. 중화루의 개업

중화루 중화요리점이 대불호텔 벽돌조 건물에서 언제 개업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존재한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대로 『仁川府史』는 “다이쇼7·8년(필자: 1918·1919년)경부터 중화민국인에 의해 지나요리점이 개업하여 이상하게도 인기를 끌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중화루가 1918년 혹은 1919년에 대불호텔 건축물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인천화상상회(仁川華商商會)가 1935년 3월 인천화교 상황(商況)을 정리하여 보고한 보고서 가운데, ‘華商各行牌各營業資本開設年度表’(화상 각 업체의 영업 자본 개설 연도표)를 보면 영업 개시 연도가 그보다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인천 각 화상의 영업 자본 및 개설 연도

주소	상호	영업종류	자본(만엔)	개설	경영자	원적
中國街20번	協興裕	마포·면포·비단·면화	7	18년	張殷三	산둥
동 22번	錦成東	상동	3	3년	曲仁瑞	산둥
동 6번	和聚公	상동	5	35년	楊翼之	산둥
新町62번	永盛興	비단·면포	5	2년	李仙舫	산둥
仲町3-2번	德生祥	상동	6	7년	郭占榮	산둥
內里12번	同生泰	상동	2	12년	許壽臣	산둥
동215번	同盛永	상동	5	31년	沙肅堂	산둥
동213번	東聚成	상동	1.5	13년	于哲卿	산둥
중국가23번	東和昌	토산·해산·수입잡화	5	21년	孫景三	산둥
동 16번	仁合東	상동	6	40년	姜肇錄	산둥
동 43번	誌興東	상동	5	35년	王少楠	산둥
동 8번	同成號	상동	2	16년	崔書藻	산둥

20 인천광역시중구청(2021.8.25.), 「인천광역시중구중앙동1가18번지토지대장」.

주소	상호	영업종류	자본(만엔)	개설	경영자	원적
내리209번	泰昌祥	상동	1	6년	孫長榮	산둥
동 213번	萬聚東	상동	4	19년	王承口	산둥
동 209번	雙成發	상동	2	36년	李發林	산둥
중국가38번	元和棧	원염수입·여관	4	19년	張晉三	산둥
동 18번	復成棧	상동	3	15년	史祝三	산둥
동 38번	同和棧	원염수입	1.8	17년	王瓚臣	평톈
상동	德聚昌	상동	1.5	11년	朱品三	평톈
중국가34번	天合棧	대리점·여관	3	34년	張信卿	산둥
동 35번	春記棧	상동	1.5	35년	曹積勳	산둥
동 11번	義生盛	서양잡화	0.8	38년	周鶴林	광둥
本町 18번	中華樓	요리점	1.6	19년	賴文藻	산둥
중국가38번	共和春	요리점	0.5	22년	于希光	산둥
동 2번	同興樓	요리점	0.6	23년	徐文堂	산둥
宮町11번	濱海樓	음식점	0.2	2년	于煥熙	산둥
外里234번	萬春樓	음식점	0.15	3년	陳榮春	산둥
松坂町1-3번	泉生東	당면	0.5	6년	楊忠貞	산둥
道禾町238번	萬聚東粉房	당면	0.3	4년	李聰吉	산둥
松岩里14번	大陸工廠	당면	0.5	2년	孔繁謨	산둥
중국가15번	三盛商店	양말공장	0.6	2년	李潤古	산둥
내리209번	同聚福	양말공장	0.2	3년	孫克寬	산둥
중국가30번	義和堂	목욕·이발	0.2	21년	王鴻昇	산둥
花房町10번	天興木舖	건축	0.3	13년	劉德雲	산둥
중국가42번	興泰福	잡화	0.5	8년	姜采南	산둥
내리215번	德和成	잡화	0.4	3년	于本海	산둥
동212번	協生盛	잡화	0.4	6년	林基叢	산둥
상동	和盛興	잡화	0.2	17년	溫蘭亭	산둥
중국가41번	同順東	잡화	0.3	2년	張如海	산둥
상동	春發堂	이발업	0.1	6년	游細弟	후베이
궁정15번	興發堂	이발업	0.1	2년	吳和生	후베이
중국가19번	復泰號	양복점	0.7	8년	張潤財	저장
본정1-15	源泰號	양복점	0.5	10년	高林如	저장
중국가3번	順泰號	양복점	1	32년	錢信仁	저장
본정2번	慎昌號	양복점	0.7	4년	應志成	저장
중국가23번	同福公	서양바늘판매	1.6	16년	王子獻	안후이
동 11번	中和興	황주양조업	0.15	8년	賴文藻	산둥
신정7번	積興永	돼지고기판매	0.1	19년	張積芳	산둥
중국가23번	永和盛	돼지고기판매	0.1	10년	張本運	산둥
동 21번	海興德	신발가게	0.2	18년	王嘉海	산둥
동 23번	華昌泰	신발가게	0.1	2년	王景三	산둥
동 29번	同順泰	부동산대여업	부동산가치12만	-	譚廷澤	광둥
동 3번	順泰	상동	동 3.6	-	錢金根	저장
화방정10번	王成鴻	상동	동 15	-	王成鴻	안후이
중국가3번	仁成號	의복봉제점	0.05	5년	孫盛琨	산둥
동 37번	同盛祥	의복봉제점	0.03	4년	張盛	산둥

출처: 이정희·송승석(2015),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고방, pp. 70-71.

〈표1〉에 의하면, 중화루는 1935년 3월 현재 개설 19년으로 나와 있다. 공화춘이 개설 22년으로 나와 있고, 1912년에 개업한 것을 고려하면 중화루는 1915년에 개업한 것이 된다. 동흥루는 개설 23년이기 때문에 1911년에 개업한 것이 된다. 현재의 인천화교협회에 해당하는 인천화상상회가 정식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표1〉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만큼 중화루가 1915년에 개업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기의 중구청 발행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1922년 9월 12일 대불호텔의 대지는 호리 리키타로에서 뇌문조(賴文藻)로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었다.²¹ 즉, 호리 리키타로가 뇌문조에게 대지와 건물을 매각한 것이다. 뇌문조는 〈표 1〉에 중화루의 경영자, 산둥성(山東省) 출신으로 나와 있는 화교였다. 그의 손자인 뇌성옥(賴聲玉)에 의하면 뇌소정(賴紹鼎)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고, 1872년 푸산현(福山縣)에서 태어났다고 한다.²²

뇌문조는 중화루의 제1대 경영자였다. 그렇다고 해서 중화루가 그 개인의 소유는 아니었다. 1912년에 개업한 공화춘은 제1대 경영자가 우희광(于希光)이었지만, 인천의 화교와 화상이 자본가로 참가하여 합과(合夥, 합자) 방식으로 설립되었다.²³ 당시 인천화교를 비롯한 조선화교 경영의 주단포목상점과 각종 상점 및 요리점·음식점은 대부분 중국 전통의 합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중화루도 뇌문조가 주주로 참가했을 것이다.²⁴ 합과는 투자액에 상응하여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935년 중화루의 자본액은 1.6만원으로 공화춘의 5천원, 동흥루의 6천원보다 2-3배나 많았다. 중화루에 주주로 참가하는 자본주가 공화춘과 동흥루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표1〉참조)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화루의 편액과 간판은 대부분 1922년에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중화루의 간판을 보도록 하자. ‘中華樓’라고 쓰인 간판은 원래 2개였다. 하나는 ‘中華樓 和記’라 적힌 간판이었다. 당시 화교 경영의 상점과 중화요리점은 상호 뒤에 ‘和記’, ‘寶號’가 붙어 있었다. 주권(株券) 등에 기재된 공식 명칭은 ‘중화루’라 적지 않고, ‘中華樓 和記’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 간판의 행방을 모른다.

또 하나의 간판은 중화루 입구 현관에 걸려 있던 것인데,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이 간판을 소장하고 있다. 직사각형 나무판에 붓글씨로 ‘中華樓’라 쓴 간판이다. 정면에서 볼 때, 간판 왼쪽 하단에 ‘傳培桐’이라 쓰여 있고 그 밑에 부배동의 인장이 그려져 있고, 간판 오른쪽에는 ‘壬戌 仲春’이라 쓰여 있다. 壬戌(임술)은 임술년을 말하는 것으로 중화루 설립을 고려하면 임술년은 1922년이 된다. 仲春(중춘)은 음력 2월을 뜻한다.

21 인천광역시중구청(2021.8.25.), 「인천광역시중구중앙동1가18번지토지대장」.

22 이 내용은 1999년 연타이시박물관 관장을 지낸 왕환리(王煥理)에게 증언한 것이다(王煥理(2003), 『烟台史海鉤沉』, 烟台市新聞出版社, pp. 63-65). 그는 당시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1939년경 출생했다.

23 한동수(2009.12), 「인천 청국조계지 내 공화춘의 역사변천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60, 한국중국학회, pp. 377-380.

24 이정희(2018), 『한반도 화교사: 근대의 초석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제사』, 동아시아, pp. 81-82.; 인천의 대표적인 주단포목상점인 화취공의 설립과 경영에 대해서는 이정희(2020.9), 「근대 조선화상 화취공의 경영활동-『조업사적책』을 근거로-」, 『동양사학연구』제152집, 동양사학회, pp. 507-544을 참조 바람.

편액 2점도 1922년 음력 2월에 기증된 것이었다. 먼저 ‘把酒臨風’(파주임풍) 편액은 王景曾(왕경중)이 쓴 것으로 간판 오른쪽에 중화루 간판과 같이 ‘壬戌 仲春’이라 쓰여 있다. 이 편액의 제작 연대도 1922년 음력 2월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편액인 ‘春光和靄’(춘광화애)는 ‘傅培桐’이라는 인물이 쓴 글씨로 똑같이 ‘壬戌 仲春’이 적혀있기 때문에 역시 1922년 음력 2월에 기증된 것이다.

중화루 간판과 편액 2점 모두 1922년 음력 2월에 기증되었다는 것은 이때 특별한 행사나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915년 대불호텔 건물을 빌어 뇌문조가 중심이 되어 중화루를 개업했고, 1922년에는 일본인 호리 리키타로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고려하면, 1922년 음력 2월 봄에 중화루를 신장개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천화교의 입장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을 일본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중화루 중화 요리점을 신장개업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 중국인 부배동과 왕경증이 편액을 기증한 것은 이러한 신장개업을 축하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뇌문조가 1915년 대불호텔 건물을 세내어 중화루를 시작했지만, 불과 7년 만에 그 건물과 대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중화루의 영업이 매우 순조로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천의 일본사회도 “이상하게도 인기를 끌었다. 인천의 중화루로서 경성 인사들에게도 그 존재를 인정받았다.”고 표현한 것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²⁵

2. 중화루의 발전(1920년대-1930년대)

중화루의 개업과 발전이 인천의 ‘중국집’ 역사 가운데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보자. 인천 ‘중국집’의 역사는 중국인의 인천 이주와 관련해서 찾아봐야 한다. 1883년 1월 인천항이 개항하고, 1884년 청국전관조계가 설정되면서 중국인의 인천 이주는 급속히 증가했다. 이러한 이주자의 증가와 인천 거주 화교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그들을 위한 중화요리점과 숙박시설을 필요로 했다. 인천화교의 인구는 1883년 54명, 1893년 711명, 1900년 2,274명, 1905년 2,665명, 1910년 2,886명, 1915년 1,125명, 1920년 1,318명, 1925년 2,085명, 1930년 2,427명이었다.²⁶

화교가 경영하는 숙박시설은 호텔과 객잔이 있었다. 화교 경영 호텔로는 스튜워드호텔(Steward Hotel)이 있었는데 1884년에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1883년이나 1884년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호텔은 화상 이태(怡泰)가 설립하여 경영했으며, 중화루 건물 맞은편의 3층 건물이었다.²⁷ 언더우드(H.G. Underwood) 일행이 인천항에 1885년 4월 5일 도착했을 때 스튜워드호텔에서 여장을 풀 정도로 대불호텔과 함께 당시 가장 고급의 숙

박시설이었다.²⁸ 1892년 스튜어드호텔의 객실은 8개로 대불호텔의 11개보다는 적었다. 스튜워드호텔의 요금은 2원이었고, 대불호텔은 상등 객실 2.5원, 중등 객실 2원, 하등 객실 1.5원으로 대불호텔과 큰 차이는 없었다.²⁹ 이태는 광둥(廣東) 화상으로 서양잡화상점을 주로 경영했는데, 건물의 2층을 스튜어트호텔로 했다고 한다.³⁰

1913년 인천중화상무총회 초대 임원 가운데 양기당(梁綺堂, 55세)이라는 인물이 ‘이태잔’(怡泰棧)을 경영하고 있었다. 다른 일본 자료에 1912년 인천의 대표적인 숙박시설로 이태잔이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³¹ 스튜워드호텔의 중국식 명칭이 이태잔일 가능성이 높다. ‘棧’은 객잔 혹은 창고를 의미한다. 초대 임원의 구성은 총리 1명, 협리 2명, 의동 4명, 의원 1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4명의 의동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당시 인천화교의 유력 화상의 한 명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쑨원과 같은 상산현(香山縣) 출신이었다.³² 1906년 이태 서양잡화상점과 호텔의 직원은 15명으로 당시로서는 꽤 규모가 컸다.³³ 서양인들이 ‘Harry’s Hotel’로 불렀던 스튜워드호텔의 경영자는 상기의 양기당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인은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칭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를 ‘Harry’라 불렀고, 그가 경영자이므로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스튜워드호텔 이외의 화교 경영 숙박시설은 객잔이 있었다. 중국에서 인천으로 이주한 화교는 꽤 비싼 스튜워드호텔에서 숙식을 할 수는 없었다. 1907년 말 일본인 경영의 여관이 인천에는 12개 있었지만,³⁴ 다다미방이어서 중국인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많아 거의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같은 시기 조선인 경영의 여관은 1개밖에 없었으며 종업원은 7명이었다.³⁵

1907년 말 일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에는 화교 경영의 객잔이 4개 있었고, 종업원은 화교 남자 27명이었다.³⁶ 그런데 인천중화회관이 1906년경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교 경영의 객잔은 천합잔(天合棧, 종업원 15명), 복취잔(福聚棧, 14명), 협흥잔(協興棧, 14명), 춘기잔(春記棧, 10명), 천성잔(天成棧, 12명), 합태잔(合泰棧, 10명) 등 6개가 있었다. 이들 객잔은 여관의 역할도 했지만, 투숙하는 중국인에게 각종 여행 및 무역 서비스를 제

²⁵ 仁川府廳 編纂(1933), 『仁川府史』, 仁川府, p. 1479.

²⁶ 이정희(2008.8), 「해방초기 인천화교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 92.

²⁷ 손장원·조희라(2011),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11-3,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p. 30. 스튜워드호텔은 ‘Harry’s Hotel’로 불리기도 했다.

²⁸ 김창수(2010), 「인천 大佛호텔·中華樓의 변천사 자료연구」, 『인천학연구』1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 283.

²⁹ 김창수(2010), 「인천 大佛호텔·中華樓의 변천사 자료연구」, 『인천학연구』1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 295.

³⁰ 진유광 저·이용재 역(2012), 『중국인 디아스포라-한국화교 이야기』, 한국학술정보(주), p. 145.

³¹ 김창수(2010), 「인천 大佛호텔·中華樓의 변천사 자료연구」, 『인천학연구』1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 288.

³² 이정희·송승석(2015),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교방, p. 97.

³³ 仁川中華會館(1906.4), 〈仁川本埠商號戶口人數〉, 『華商人數清冊-各口華商清冊』, 『駐韓使館保存檔案』, 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소장(관리번호02-35-041-03).

³⁴ 12개의 일본식 여관에 종사하는 인원은 일본인 남자 31명, 여자 40명이었다. 여관업자로 조직된 宿屋營業組合이 1901년 2월 설립되었고, 조합원은 19명이었다(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1908), 『仁川開港二十五年史』,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 p. 38·52).

³⁵ 仁川日本人商業會議所(1908), 『明治四拾年 仁川日本人商業會議所報告』, 仁川日本人商業會議所, p. 82.

³⁶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1908), 『仁川開港二十五年史』,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 p. 43.

공하는 역할도 담당했다.³⁷ 1923년경에는 객잔이 11개로 증가하는데, 주요한 객잔은 인합동잔(仁合東棧), 천합잔(天合棧), 춘기잔(春記棧), 동순잔(同順棧), 흥성잔(興盛棧), 복성잔(復成棧), 원화잔(元和棧), 복인잔(福仁棧)이었다.³⁸ 원화잔은 공화춘의 대주주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 인천항의 숙박시설을 지금까지 일본인 경영의 대불호텔과 일본식 여관에만 초점을 맞춰온 것에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즉, 화교가 설립한 스튜워드호텔, 상기와 같은 중국식 여관인 객잔이 존재했으며, 서양인과 중국인의 숙박시설로 기능했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스튜워드호텔과 객잔이 음식을 제공했는지, 만약 제공했다면 어떤 음식을 제공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대불호텔이 식사를 제공한 것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스튜워드호텔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객잔의 주요한 고객은 중국인인 만큼 그들에게는 중화요리를 제공했을 것이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은 중화요리점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자. 상기의 공화춘, 동흥루, 중화루가 설립되기 이전 이미 인천에는 중화요리점이 존재했다. 인천중화회관이 190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에는 동흥루(東興樓, 종업원 16명), 연남루(燕南樓, 10명), 동해루(東海樓, 7명), 사합관(四合館, 5명), 합흥관(合興館, 4명), 흥릉관(興隆館, 3명)과 같은 ‘중국집’이 있었다.³⁹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그 규모를 추정해 보면 16명인 동흥루는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요리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큰 것은 연남루로 10명이었다. 동흥루와 연남루는 규모가 있는 요리점급, 사합관·합흥관·흥릉관은 소규모의 음식점 혹은 호떡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에 의해 공화춘, 동흥루, 중화루가 인천 최초의 ‘중국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그림1 1920년대의 동흥루 중화요리점



출처: 화도진도서관

그림2 1962년경의 인천차이나타운



출처: 부경근대사료연구소

37 仁川中華會館(1906.4), 〈仁川本埠商號戶口人數〉, 『華商人數清冊-各口華商清冊』, 『駐韓使館保存檔案』, 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소장(관리번호02-35-041-03).

38 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1924), 『朝鮮に於ける支那人』, 朝鮮總督府, pp. 106-107.

39 仁川中華會館(1906.4), 〈仁川本埠商號戶口人數〉, 『華商人數清冊-各口華商清冊』, 『駐韓使館保存檔案』, 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소장(관리번호02-35-041-03); 이정희(2017.6), 『조선화교의 중화요리점 연구: 1880년대~192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114, 한국사회사학회, pp. 69-70.

동흥루 중화요리점은 1911년 설립되었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다. 지나정 2번지의 동흥루 자리는 원래 이태잔, 즉 스튜워드호텔이 있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스튜워드호텔을 해체하고 벽돌조 3층 건물을 짓고 이곳을 동흥루 중화요리점으로 개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1>을 보면 사진 오른쪽 첫번째 건물이 동흥루 중화요리점이었다. 1920년대 일본인이 중화루 3층에서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이 사진에는 동흥루의 크고 작은 간판이 4개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정문에 걸린 간판은 ‘包辦酒席 同興樓 サッポロ★ビール 電話六二六’이라 적혀 있다. 일본어 ‘サッポロ★ビール’는 일본의 맥주회사인 삿포로맥주를 말한다. 삿포로맥주 회사가 동흥루와 계약을 맺어 삿포로맥주만을 요리점 내에서 판매한 것이 아닐까 한다. 동흥루는 전화를 한대 보유하고 있었고, 그 번호가 626번이었다. 경성중앙전화국이 1930년 6월에 펴낸 전화번호부책에도 동흥루의 전화번호는 626번으로 기재되어 있어 두 전화번호는 일치했다.⁴⁰ 그리고 ‘包辦酒席’(포판주석)은 ‘연회도 책임지고 합니다’라는 뜻이다. 즉, 각종 연회도 도맡아 한다는 것인데 각종 회식이나 결혼식 등도 동흥루에서 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包辦酒席’의 간판은 공화춘의 정문에도 이와 유사한 ‘包辦會席’(포판회석)의 간판이 있었다. 뜻은 동일하기 때문에 공화춘도 각종 연회의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중화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상기의 간판 위쪽에도 간판이 있다. 중앙에 ‘同興樓’ 그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두 글자씩 해서 ‘特等料理’로 기재되어 있다. 공화춘 정문에 걸려있던 간판에도 ‘特等料理’ 간판이 있었다. 그리고 정문 좌측에 작은 간판이 두 개 걸려 있다. 하나는 ‘同興樓’ 글자 위에 ‘優等 支那料理’라 적혀 있다. 이 간판의 위쪽에는 작은 목판의 ‘同興樓’ 간판이 걸려있다. 그리고 정문으로 보이는 문 좌우측에 글자가 적힌 대련(對聯)이 있다.

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1923년경 인천의 꽤 규모가 큰 중화요리점은 8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보면, 중화루가 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매상액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이 동흥루로 2만원이었고, 공동춘(共同春)은 9천원, 광동요리 전문의 의생성(義生盛)은 5천원, 그 이외의 4개 요리점은 2,000-3,000원이었다.⁴¹ 중화루가 압도적으로 매상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공화춘은 아마도 4개의 요리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화루에 비하면 당시는 규모가 크지 않은 요리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1923년이라는 시기는 1922년 화교 뇌문조 등이 대불호텔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 신장개업을 한 이듬해였다. 조선총독부 자료는 “각 요리점은 고객을 상당히 많이 불러 모으고 있다. 특히, 중화루는 근년 내지인(필자: 일본인)의 고객이 많다.”⁴² 고 보고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인이 중화루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화상상회가 1935년 3월 조사한 <표1>을 보면 1930년대의 중화루, 동흥루, 공화춘의 규모나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중화루의 자본금은 1.6만원으로 동흥루의 6천원, 공화춘의 5천원보다 약 3배나 많았다. 당시의 경영자는 공화춘은 우희광(于希光), 동흥루는 서문당(徐文堂), 중화루는 뇌문조였다.

40 京城中央電話局(1930.6), 『京城・仁川電話番號簿』, 朝鮮印刷株式會社(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p. 5.

41 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1924), 『朝鮮に於ける支那人』, 朝鮮總督府, p. 106.

42 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1924), 『朝鮮に於ける支那人』, 朝鮮總督府, p. 106.

다음은 인천을 대표하는 3개의 중화요리점의 대지 및 건물 평수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자. 중국가(지나정) 2번지는 바로 동흥루가 자리한 곳으로 이 부동산의 소유주는 이태호(怡泰號)로 경영자는 광둥성 출신의 양동애(梁東涯)라는 화교였다. 대지는 150평으로 다른 두 요리점에 비해 넓었으며, 벽돌조 3층에 방은 65칸이었다. 중화루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경영자인 뇌문조가 소유자로 되어 있고, 벽돌조 3층에 방은 54칸이었다. 그런데 대지 평수가 66평으로 나와 있지만, 토지대장에는 처음부터 117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닐까 한다. 건물 규모로 보면 동흥루가 더 컸지만, 부동산 사정가격은 중화루가 3.3만원으로 동흥루의 2배 이상이었다. 당시 인천화교 소유 부동산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고가의 부동산이었다. 중국가(지나정) 38번지는 공화춘이 영업하는 곳이었는데, 이 부동산의 소유주는 원화잔의 장진삼(張晉三)으로 산둥성 출신이었다. 토지는 72.5평, 벽돌조 2층에 방은 48칸 규모로 부동산 가격은 1.2만원이었다.

표2 중화루·동흥루·공화춘 중화요리점의 건물 내역

주소	소유주	원적	토지평수	건물종류	층수·방칸수	부동산가격(만)
중국가2	怡泰號·梁東涯	광둥성	150평	벽돌조	3층,65칸	1.5
중국가38	元和棧·張晉三	광둥성	72.5평	벽돌조	2층,48칸	1.2
본정1-18	中華樓·賴文藻	산둥성	66평	벽돌조	3층,54칸	3.3

출처: 이정희·송승석(2015),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교방, pp. 181-184.

앞에서 동흥루 중화요리점이 전화를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전화기를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 화교농민의 조합인 인천농업공의회가 1932년 소유하고 있던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조선인에게 매각한 대금은 200원이었다.⁴³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원이었기 때문에 200일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큰 금액이었다. 전화를 개설해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한 규모의 업체라는 것을 의미했다.

경성중앙전화국이 편집하여 펴낸 『京城·仁川電話番號簿』에 화교 경영의 중화요리점과 음식점을 따로 뽑아낸 것이 <표3>이다.⁴⁴ 화교 경영의 요리점과 음식점이 1930년 당시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화를 개설한 요리점 및 음식점은 5곳에 불과했다. 중화루는 전화번호를 415번과 957번 2개를 개설했는데, 화교 요리점 가운데서는 유일했다. 그만큼 중화루의 영업 규모가 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공화춘은 443번, 동흥루는 626번이었다. 전화번호의 개설은 숫자가 빠를수록 개설이 빠른 것을 의미한다. 중화루가 가장 빨랐고, 공화춘, 동흥루의 순으로 개설했다. 중화루가 2번째의 전화번호를 개설했던 것은 957번이기 때문에 첫번째 전화 개설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이 전화번호부에서 흥미로운 점은 중화루와 공화춘의 업종을 ‘北京料理’(베이징요리)로 표기한 점이다. 동흥루는 그냥 ‘중화요리’로 표기했으며, 동화루와 동해춘도 ‘중화요리’로 표기했다. 의생성호는 광둥요리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중화요리점도 베이징요리 전문, 광둥요리 전문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 같다.

43 이정희(2018), 『한반도 화교사: 근대의 초석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제사』, 동아시아, p. 497.

44 京城中央電話局(1930.6), 『京城·仁川電話番號簿』, 朝鮮印刷株式會社(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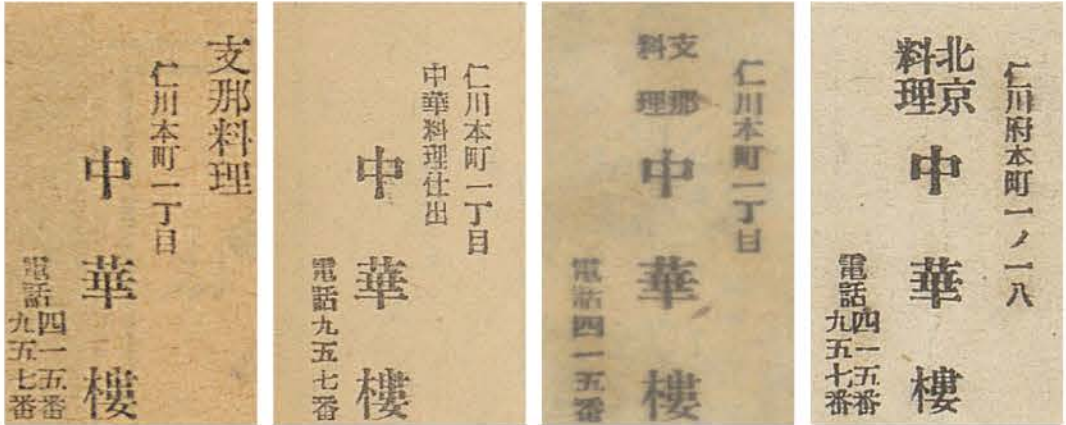
표3 경성·인천 전화번호부 상의 인천의 중화요리점 및 음식점(1930년)

전화번호	중화요리점 및 음식점	주소	업종
1133	東華樓	宮町23	중화요리
563	東海春	敷島町33	중화요리
626	同興樓	支那町2	중화요리
415·957	中華樓	本町1-18	북경요리
1018	復永樓	金谷里14	음식점
443	共和春	支那町38	북경요리
818	義生盛號	支那町11	광둥요리

출처: 京城中央電話局(1930.6), 『京城·仁川電話番號簿』, 朝鮮印刷株式會社(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중화루는 여러 신문에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 1926년 12월의 광고는 ‘지나요리’로 표기하고 전화번호 415번과 957번 두 개를 적어두었다.⁴⁵ 1928년 1월의 광고에는 ‘中華料理仕出し’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仕出し’는 주문 요리 배달이라는 뜻이다. 1928년에 중화루가 요리를 배달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⁴⁶ 1929년 1월의 근하신년 광고에는 다시 ‘지나요리’로 표기하고 전화는 415번 하나만 있었다. ⁴⁷1932년 1월의 근하신년 광고에는 ‘북경요리’로 표기하고 전화번호 2개를 모두 기록했다.⁴⁸

그림3 중화루의 신문 광고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주: 왼쪽부터 1926.12.29., 1928.1.1., 1929.1.3., 1932.1.8.의 신문 광고이다.

45 「中華樓」, 『朝鮮新聞』, 1926.12.29.

46 「中華樓」, 『朝鮮新聞』, 1928.1.1.

47 「中華樓」, 『朝鮮新聞』, 1929.1.3.

48 「中華樓」, 『朝鮮新聞』, 1932.1.8.

그러면 중화루가 인천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살펴보자. 요시마쓰(吉松) 인천부윤은 1921년 1월 24일 지역 유지와 기자를 초청하여 지방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인천부의 운용방침에 대해 발표한 후, 조선인 유지에게 조선인 교육을 위한 설비 확충 등을 약속하면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화루로 초청해 만찬회를 개최했다.⁴⁹ 1927년 3월 인천미취거래소(곡물거래소)를 경성미취거래소와 합병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3월 15일 밤 중화루에 인천부윤과 지역의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병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찬성파와 반대파가 주먹 다툼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⁵⁰ 인천 거주 일본인의 하이쿠 모임으로 추정되는 인천곡수회(仁川曲水會)가 1932년 1월 15일 신년 모임을 중화루에서 개최하고, 참가비가 1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⁵¹

중화루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했다. 1925년 7월 22일 중화루 종업원이 조선인 고객 3명에게 공손하지 못한 언행에 불만을 품고 상호간에 언쟁이 벌어졌다. 화교 종업원과 요리사가 요리 도구까지 들고나와 위협하고 조선인 고객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 버렸다. 조선인 1명이 급하게 인천경찰서에 연락하여 순사가 달려와 상호 충돌은 진압되었고, 다음 날 아침 인천경찰서는 중화루 경영자를 불러 조사를 했다.⁵²

중화루의 명성이 경성뿐 아니라 조선 전역으로 퍼지면서 중화루의 상호명으로 요리점과 음식점을 경영하는 곳이 나타나 지역 사회의 중요한 장소로 기능했다. 울산의 중화루에서는 1925년 1월 조선인 청년회 정기모임이 개최되었다.⁵³ 경기도 여주에 1936년 8월 수해 피해가 났을 때 수해민이 중화루 요리점 2층으로 피난하기도 했다.⁵⁴ 함흥 동양리의 주민이 중화루에 모여 지명 명칭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⁵⁵

3. 1940년대 초반 중화루·송죽루·공화춘의 실태

중일전쟁 직후 조선화교 경영의 중화요리점과 음식점은 화교의 본국 귀국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본국에 귀국한 화교가 다시 돌아오고, 중화요리에 대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수요에 뒷받침되어 1940년대 초에는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경성중화민국총영사관이 1942년 본국 교무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자.

49 「地方通信: 府政에 관한 선전」, 『每日申報』, 1921.1.30.

50 「問題부른 招待宴 중화루에서」, 『매일신보』, 1927.3.17.

51 「仁川曲水句會, 於中華樓開催」, 『朝鮮新聞』, 1928.1.14.

52 「蠻暴無禮한 中華樓主 놀러간 손에게 만행을 하려해」, 『每日申報』, 1925.7.26.

53 「청년회 例會」, 『시대일보』, 1925.1.22.

54 「驪州의 避難民」, 『每日申報』, 1936.8.12.

55 「咸興東陽里의 新年宴會, 中華樓で盛況」, 『釜山日報』, 1928.1.24.

“중국 음식은 독특한 풍미를 구비하고 있어 일본요리, 조선요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요리법은 중국인 독특의 기술이어서 외국인도 절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인의 각 영업은 외국인과 경쟁에서 모두 패하여 사라졌지만 오직 중화요리는 자기의 영역을 지켜내어 외국인의 침입을 일보(一步)도 허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작은 음식점인 만두집, 포자(包子)집, 호떡집 등이 영세하지만 일반 조선인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으며 영업은 대단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요컨대 조선 거주 화교 경영의 각 영업 가운데 그 성과가 가장 좋고 전도유망한 것은 요리음식점이 제일이다.”⁵⁶

인천 화교는 1942년 2월경 309호, 1,84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채소재배농가가 160호(전체의 52%), 464명(동 25%)으로 호수는 가장 많았다. 상업은 128호(전체의 41%), 1,076명(동 58%)으로 그 다음이었다. 농업과 상업을 합하면 전체 호수의 9할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수치였다. 상업 가운데 주요한 업종은 중화요리점이 60호로 전체 호수의 19%를 차지하고, 종사인원(가족 포함)은 388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중화요리점 가운데 고급 중화요리점은 4개소·130명, 음식점은 16호·110명, 호떡집은 40호·148명이었다. 1930년대 중반보다 오히려 그 수는 증가했다.⁵⁷

여기서 지정한 고급 중화요리점 4개소는 중화루, 송죽루, 공화춘 그리고 또 다른 요리점이었다. 각 중화요리점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그 규모를 살펴보면 중화루가 여전히 가장 컸다. 중화루의 종업원 수는 27명, 송죽루(松竹樓, 구 동흥루) 23명, 공화춘 16명이었다. 1942년 당시 중화루의 종업원을 나타낸 것이 〈표4〉이다. 먼저, 중화루 개업 후인 1915년부터 1935년까지 경영자였던 뇌문조가 사라지고,⁵⁸ 1942년에는 뇌문조의 아들인 뇌성구(賴誠久)가 제2대 경영자로 바뀐 점이 주목된다. 뇌성구는 본정 1정목 18번지 소재의 중화루에 거주하지 않고, 미생정(구 지나정) 52번지에 부인 이씨와 거주하고 있었다. 실제 중화루 건물 거주자는 미생정 7번지에 거주하는 업육장(葉毓章)을 제외한 25명이 되는데, 이들 모두는 종업원으로 보인다. 종업원의 연령 분포는 10대가 3명(11.5%), 20대가 13명(50%), 30대가 7명(27.0%), 40대가 3명(11.5%)이었다.

표4 1942년 중화루의 종업원 목록

성명	출생연월일	연령	본적	거주지
賴誠久	-	-	산둥성푸산	인천부미생정52번지
于世祉	1899.5.13	43	산둥성푸산	인천부본정1정목18번지
曹玉山	1905.3.13	37	산둥성푸산	상동
陳可成	1904.1.12	36	산둥성푸산	상동
林永男	1905.6.20	37	산둥성푸산	상동

56 이정희(2017.12), 「조선화교 중화요리점의 실태: 1927-1945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경제사학』41-3(통권65호), 경제사학회, p. 287.

57 이정희(2017.12), 「조선화교 중화요리점의 실태: 1927-1945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경제사학』41-3(통권65호), 경제사학회, pp. 290-291.

58 뇌문조는 1930년대 병 요양을 위해 산둥성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사망했다고 한다(王煥理(2003), 『烟台史海鉤沉』, 烟台市新聞出版局, pp. 63-65).

성명	출생연월일	연령	본적	거주지
賴家九	1903.3.7	39	산동성푸산	상동
周克揚	1908.12.14	34	산동성평라이	상동
譚紹周	1901.6.22	41	산동성푸산	상동
郝仁進	1920.9.3	22	산동성통청	상동
劉鴻福	1916.7.24	26	산동성치샤	상동
張文信	1921.2.22	21	산동성평라이	상동
柳文宝	1906.7.12	36	산동성푸산	상동
柳文書	1920.10.12	22	산동성푸산	상동
葉毓鳳	1915.7.5	27	산동성푸산	상동
錢鐘遜	1918.8.8	24	산동성통청	상동
徐滋莪	1920.5.18	22	산동성치샤	상동
徐盛海	1919.6.3	23	산동성치샤	상동
王本英	1926.7.1	16	산동성통청	상동
王昭才	1926.1.19	16	산동성통청	상동
陳香遠	1923.12.23	19	산동성푸산	상동
牟■善	1909.2.25	33	산동성푸산	상동
慕德■	1914.9.9	28	산동성통청	상동
周福源	1920.4.2	22	산동성통청	상동
魯孝先	1913.12.25	29	산동성주청	상동
陳 ■	1914.11.1	28	산동성무핑	상동
陳可法	1895.3.15	47	산동성푸산	상동
葉毓章	1913.5.4	29	산동성푸산	인천부미생정7번지

출처: 仁川華商商會(1942.4.12), 『華僑領取小麥粉詳細表』, 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仁川華商商會(1942.8-9), 『仁川華僑世代別名簿』, 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중화루 거주 종업원 목록의 제일 위에 있는 우세지(于世社)가 43세로 현장 지배인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10대 3명의 종업원은 나이로 볼 때 견습생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은 종업원의 출신지이다. 경영자 뇌성구를 비롯한 종업원 전원은 산동성 출신이었다. 산동성 가운데 각 현별로 살펴보면, 푸산(福山) 출신이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룡청(榮成)이 6명, 치샤(棲霞)가 3명, 평라이(蓬萊)는 2명, 무핑(牟平)과 주청(諸城)은 각각 1명이었다. 산동성 푸산현은 중국 8대 요리의 하나인 산동요리, 그리고 중국 4대 요리의 하나인 베이징요리의 고향으로 불릴 정도로 요리가 발달한 지역이었다. 전체 종업원의 절반 가량이 푸산현 출신인 것은 경영자 뇌성구, 지배인 격인 우세지가 푸산현 출신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상점과 요리점 및 음식점은 경영자 및 지배인의 고향에서 종업원을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고향의 친척이나 친구 그리고 이들의 소개를 받아 종업원을 데리고 오면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경찰부는 관내 유명한 조선요리점, 일본요리점 그리고 중화요리점의 영업 실태를 조사하여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에게 보고를 했다. 국민총력운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요리점 영업이 전쟁수행을 위한 국민총력운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경기도경찰부장이 경무국장에 보고한 자료 가운데, 1941년 3월, 6월, 9월에 각각 보고한 문서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는 경기도 관내의 국일관, 명월관과 같은 고급조선요리점과 고급일본요리점 그리고 중화요리점 20여개의 영업상태가 조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중화루와 공화춘의 영업실태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이것은 중화루와 공화춘이 경성,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관내서 대표적인 요리점이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1941년의 6개월(1월, 2월, 4월, 5월, 7월, 8월)의 객수와 매상액을 정리한 것이 <표5>이다. <표5>에 의하면, 1941년 6개월 간의 중화루의 월평균 객수는 3,406명, 월평균 매상액은 5,914원이었다. 1941년 3개월(2월, 5월, 8월)의 객수와 매상액을 1940년의 3개월(2월, 5월, 8월)과 비교하면, 각각 56%,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춘은 1941년 7월과 8월의 객수는 2,539명과 2,719명이며, 매상액은 6,596원과 7,463원이었다. 같은 시기 중화루와 비교해 보면 공화춘의 객수는 중화루의 58% 수준, 매상액은 99% 수준으로 거의 차가 나지 않았다. 공화춘의 1940년 8월, 1941년 7월과 8월의 손님 1인당 평균 식대는 2.58원으로 같은 시기 중화루의 1.67보다 훨씬 높은 것에도 그러한 것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공화춘이 중화루보다 보다 고급요리를 많이 판매하는 요리점이 아니었는지, 중화루가 보다 서민적인 요리를 판매한 것은 아닌지 추측할 수 있다.

표5 중화루와 공화춘의 영업 실태 조사표(인수, 원)

요리점	1941년						1940년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2월	5월	8월
중화루	1,966 4,002	2,626 4,897	3,382 6,806	3,481 5,817	4,627 7,292	4,352 6,667	961 1,832	1,436 4,105	4,304 8,167
공화춘	-	-	-	-	2,539 6,596	2,719 7,463	-		1,542 3,459

출처: 경기도경찰부장이 警務局長·管下 각 경찰서장에 보낸 공문(1941.3.25.); 경기도경찰부장이 警務局長·管下 각 경찰서장에 보낸 공문(1941.6.30.), 경기도경찰부장이 警務局長·管下 각 경찰서장에 보낸 공문(1941.9.24.).

주: 상단의 수치는 객수, 하단의 수치는 판매액을 나타냄.

다음은 송죽루의 종업원을 보도록 하자. 송죽루는 동흥루 중화요리점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인천부 미생정은 이전 지나정을 말하기 때문에 1935년 당시만 해도 그곳에는 동흥루가 있었다. 하지만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이후 동흥루가 송죽루 중화요리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필자는 중일전쟁 직후 인천화교의 거의 절반이 고향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이때 동흥루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송죽루로 재개업한 것은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

미생정 2번지 거주 송죽루 종업원은 23명이었다. 연령은 10대가 3명(13.1%), 20대가 15명(65.2%), 30대가 2명(8.7%), 40대가 1명(4.3%), 50대가 2명(8.7%)이었다. 중화루 종업원의 연령대 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30대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고, 20대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송죽루의 종업원은 조봉문(曹鳳文)이 인천에서 출생한 것 이외는 전원 산동성 출신이었다. 각 현별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룡청 7명, 푸산 6명, 원딩(文登) 4명, 무핑 3명, 평라이 1명, 황현 1명이었다.

표6 송죽루(구 동흥루)의 종업원 목록

성명	출생연월일	연령	본적	거주지
周禮基	1890.8.12	52	산동성푸산	인천부미생정2번지
賴■■■	1898.5.9	44	산동성푸산	상동
徐德有	1905.6.15	37	산동성푸산	상동
王甲東	1886.1.26	56	산동성푸산	상동
李長春	1910.4.11	32	산동성평라이	상동
徐學連	1919.10.20	23	산동성푸산	상동
方靈之	1922.11.16	20	산동성무핑	상동

성명	출생연월일	연령	본적	거주지
劉■忠	1918.6.11	24	산동성무평	상동
彭吉学	1919.10.17	23	산동성룽청	상동
王■增	1923.5.1	19	산동성황현	상동
劉屋德	1919.8.19	23	산동성원녕	상동
姜培玄	1926.2.19	16	산동성원녕	상동
殷忠■	1928.11.18	14	산동성룽청	상동
曹鳳文	1920.3.7	22	경기도인천	상동
何傳忠	1921.10.8	21	산동성원녕	상동
譚受興	1915.12.24	27	산동성룽청	상동
單書明	1919.6.6	23	산동성룽청	상동
李文連	1919.12.26	23	산동성무평	상동
孫樹昆	1917.6.16	25	산동성원녕	상동
林鈞同	1921.9.27	21	산동성룽청	상동
王祖恒	1919.11.10	23	산동성룽청	상동
周信昌	1920.11.12	22	산동성룽청	상동
周李氏	1915.11.3	27	산동성푸산	상동

출처: 仁川華商商會(1942.4.12), 『華僑領取小麥粉詳細表』, 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仁川華商商會(1942.8-9), 『仁川華僑世代別名簿』, 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주례기(周禮基)가 연령과 순서로 볼 때 지배인으로 추정된다. 그가 푸산 출신이기 때문에 푸산 출신 종업원이 많고, 푸산과 이웃한 무평을 합하면 10명이 된다. 하지만 중화루와 비교하면 룽청과 이웃한 원녕 출신이 11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송죽루는 미생정 2번지의 본점 이외에 궁정(宮町, 현재의 신생동) 23번지에 지점을 개설하여 종업원 8명을 두고 영업하고 있었다. 지배인은 무평 출신의 진주(陳珠, 1898년생)이고, 종업원은 7명이었다. 출신 현은 산동성의 룽청 2명, 원녕 2명, 푸산 1명, 평라이 1명, 무평 1명이었다. 연령대는 10대 1명, 20대 3명, 30대 2명, 40대 1명이었다.

다음은 공화춘의 종업원 현황을 보도록 하자. 공화춘이 자리한 미생정 38번지에 거주하는 종업원은 15명이었다. 경영자 우희광(于希光)은 미생정 32번지에서 그의 가족 9명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 우홍장(于鴻章)은 당시 24살이었기 때문에 우희광이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었다기 보다는 현장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 15명의 연령대 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대는 2명(13.3%), 20대는 9명(60.1%), 30대 2명(13.3%), 40대 2명(13.3%)이었다. 종업원의 출신성은 전원 산동성이었다. 각 현별 분포는 무평 8명(53.3%), 룽청 4명(26.7%), 푸산 2명(13.3%), 치샤 1명(6.7%)이었다. 무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우희광, 우홍장이 모두 무평현 출신인 것과 관계가 있다.

표7 1942년 공화춘의 종업원 목록

성명	출생연월일	연령	본적	거주지
于希光	-	-	산동성무평	인천부미생정32번지
于鴻章	1917.11.27	24	산동성무평	인천부미생정38번지
姜樹屏	1897.11.9	44	산동성무평	상동
王樹廉	1911.2.12	31	산동성룽청	상동

성명	출생연월일	연령	본적	거주지
徐滋壹	1913.1.3	29	산동성치샤	상동
王佐恩	1919.2.13	23	산동성무평	상동
錢■倫	1917.1.18	25	산동성룽청	상동
王仁山	1894.6.26	48	산동성무평	상동
王連之	1919.3.23	23	산동성무평	상동
王■■■	1925.8.28	17	산동성룽청	상동
于榮章	1913.2.12	29	산동성무평	상동
岳廣盛	1922.8.21	20	산동성푸산	상동
孫樹祥	1917.12.24	25	산동성무평	상동
劉延基	1919.9.29	23	산동성푸산	상동
周大宗	1923.11.2	19	산동성룽청	상동
李文英	1903.7.29	39	산동성무평	상동

출처: 仁川華商商會(1942.4.12), 『華僑領取小麥粉詳細表』, 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仁川華商商會(1942.8-9), 『仁川華僑世代別名簿』, 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주경성총영사관의 보고에 인천의 고급 중화요리점 4개 가운데 다른 하나는 빈해루(賓海樓)로 추정된다. 인천 미야마치(宮町) 11번지에 자리한 빈해루는 종업원이 12명이었다. 그리고 인천 시키지마마치(敷島町, 현재의 선화동) 31번지에 지점을 두고 지배인을 포함하여 6명이 일하고 있었다.

IV. 해방 이후 중화루의 발걸음(1945년-1970년대 초)

해방 직후 인천은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대륙 및 홍콩·마카오 간의 민간무역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중일전쟁 시기의 침체를 벗어나 공전의 호경기를 구가했다. 화교 무역회사는 전체 민간무역의 7할을 독점하는 큰 세력을 형성하고, 중국 대륙과 홍콩 등지에서 중국인 상인이 대거 인천으로 몰려들었다. 당시 한국은 물자가 부족하던 시기로 전국서 한국인 상인이 물자를 구매하기 위해 인천으로 쇄도했다. 이러한 호경기는 화교 경영의 중화요리점 및 음식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⁵⁹

1949년 당시 인천에는 화교 경영의 중화요리점과 음식점을 포함해 모두 69개가 영업하고 있었다. 1942년의 60호보다 9개가 증가했다. 주요한 중화요리점은 중화루(경영자 徐德有)를 비롯해 송죽루(주례기), 공화춘(우희광), 만취동(李慶文), 빈해루(于煥興), 福生樓(揚福州), 錦梅園(林汝夏), 平下園(周銘昌) 등이었다. 중일전쟁 시기 영업하던 요리점과 음식점이 그대로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에는 이들 화교 요리점과 음식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인천중화반업공회(仁川中華飯業公會)가 결성되어 있었으며, 회장은 송죽루의 주례기가 맡고 있었다.⁶⁰

59 이정희(2008.8), 「해방초기 인천화교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p. 89-130.

60 조선은행조사부(1949), 「재한화교의 경제적 세력」, 『경제연감 1949년판』, 조선은행, Ⅱ-68~70.

그런데 중화루의 경영자가 1942년 뇌성구에서 서덕유로 바뀐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덕유는 1942년 송죽루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산둥성 푸산 출신이었다. 1905년 출생이기 때문에 1949년 당시의 나이는 44살이었다.(<표6>참조) 1942년 송죽루의 직원 가운데서도 위에서 두번째로 위치할 정도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화루의 경영자 혹은 지배인으로 발탁된 것으로 추정된다.

1949년 전후 시기의 중화루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진 1장이 남아있다. 원래 이 사진의 소유자는 뇌성옥(賴聲玉)으로 미국 메릴랜드주 거주의 한화(韓華)였다. 그는 1939년경 인천에서 출생했는데, 그의 부친은 중화루의 2대 경영자인 뇌성구였다. 뇌성옥은 1999년 엔타이시박물관(烟台市博物館)의 관장을 지내고 중화루에 관심이 많던 왕환리(王煥理)에게 이 사진을 보내주었다. 이 사진은 1999년 3월 26일 《엔타이일보》의 신문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⁶¹

그림4 1949년경의 중화루



출처: 손덕준 인천화교협회장 제공

그림5 1977년 해체 직전의 중화루



출처: 1977.2.12. 『조선일보』

카메라에 찍힌 1949년경의 중화루의 외관은 화려했다. 동판의 영문 간판에는 'NG HWALOO CHINESE RESTAURANT A'로 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한국식 발음을 영어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만약에 중국식 발음을 영어 철자로 했다고 한다면, 'HUALOU'로 되었을 것이다. 앞의 영문 스펠링은 사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CHUNG' 혹은 'JUNG'로 추정된다. 이때의 외부 간판은 '中華樓 和記', 삼각형의 간판에는 용을 조각하고 '中'의 글자를 써 넣었다. 이때 '中'은 중화루 혹은 중화요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면에서 오른쪽의 사각간판은

'中華北京'으로 북경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중화요리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왼쪽의 사각 간판은 '優等料理'로 동흥루의 간판과 같다. <그림5>의 1977년에 찍은 사진은 <그림4>의 사진과 비교하면 중화루의 쇠퇴를 그대로 보여준다. 동판의 영문 간판은 색이 바래 글자가 보이지도 않는다. '中華樓 和記'의 간판과 삼각형의 간판은 그대로 있지만, '중화북경'과 '우등요리'의 간판은 사라졌다.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중화루에게 한국전쟁은 다른 화교 상점과 요리점 및 음식점처럼 큰 재앙이었다. 1949년에 영업하던 인천화교의 요리점 및 음식점 69개소는 대부분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때 선린동 일대가 포격을 받아 차이나타운은 큰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 경영자와 종업원은 부산, 제주도 등지로 피난을 떠났다. 중화루의 제2대 경영자였던 뇌성구와 그의 아들 뇌성옥 등의 가족은 이때 해외로 이주했다.⁶²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을 맺을 즈음, 부산 등지로 피난갔던 인천화교가 다시 돌아오면서 요리점 및 음식점이 개업을 재개했다. 중화루와 공화춘은 재개업을 했지만, 송죽루는 재개업하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흥루의 역사를 포함한 송죽루의 역사는 40년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1954년 인천화교 상공업 종사 호수 139호 가운데 106호는 요리점 및 음식점이었으며, 종업원 수는 275명에 달했다.⁶³ 그런데 이 통계에는 소규모의 호떡집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휴전 협정 이후 1950년대 한국화교의 중화요리점 및 음식점의 영업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화교 독점 영역이 유지됐다. 그래서 한국화교는 1950년대를 중화요리점 및 음식점에 있어 화교의 '독점시대'라 불렀다. 1960년대는 한국인의 소득향상과 당시 유일했던 외식인 자장면, 우동, 짬뽕 등을 판매하는 중화요리점과 음식점 그리고 각종 호떡과 과자 그리고 만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호떡집이 큰 인기를 끌었다. 화교 경영의 이들 '중국집'은 3,500~4,000개에 달했다. 한국화교는 이 시기를 한국화교 '중국집'의 '전성시대'라 불렀다.⁶⁴

한편, 중화루의 경영은 어떠했을까. 한성화교협회장과 중화요식업총회장을 지낸 진유광(秦裕光)은 중화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당시 대불호텔의 유명세 덕택에 중화루의 장사도 아주 잘 되었다. 음식점 밖에는 중화루라는 세 글자를 쓴 큼직한 간판이 걸려있었고, 간판 상단에는 영문 간판도 있는 등 시설과 장식이 매우 화려했다. 중화루는 개업 직후 진기한 각종 요리로 사람들을 끌어 모았으며, 당시 중국인과 한국인 손님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다. 시설이 웅장하고 화려해서, 특히 부유층과 부잣집 귀공자들의 유락 장소가 되기도 했다. 또한 홀 안에는 프랑스에서 구입한 명품 그랜드 피아노를 배치하기도 했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를 구경하러 오는 손님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 덕분에 이 피아노가 인천의 명물이 되기도 했다."⁶⁵

61 王煥理(2003), 『烟台史海鉤沉』, 烟台市新聞出版局, pp. 63-65.; 유중하(2012), 『화교문화를 읽는 눈 짜장면』, 한겨레출판, pp. 69-72.

62 王煥理(2003), 『烟台史海鉤沉』, 烟台市新聞出版局, pp. 63-65.

63 華僑志編纂委員會 編(1958), 『華僑志-韓國-』, 華僑志編纂委員會, p. 86.

64 華僑經濟年鑑委員會 編(1982), 『華僑經濟年鑑(民國70-71年)』, 華僑經濟年鑑委員會, p. 275.

65 진유광 저·이용재 역(2012), 『중국인 디아스포라-한국화교 이야기』, 한국학술정보(주), pp. 145-146.

그러나, 진유광은 “사장이 잇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고, 여러 사람이 합자해 공동운영도 해보았지만 모두 이상적이지는 못했다. 1958년경에는 소유권 쟁탈을 위한 법정 소송이 벌어져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다.营业을 중단한 후에는 한동안 가난한 화교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다. 1970년에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다시 개업했지만, 영업은 오히려 급격히 몰락해 1978년 봄에 한국인에게 매각되었고 대형 관광호텔이 지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중화루의 마지막 화교 사장은 하향구(賀香九) 선생이었으며, 그는 매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매각공고를 알리는 기사를 한·중·일의 3국 신문에 게재한 적이 있었다.”라고 했다.⁶⁶

진유광이 “1958년경에는 소유권 쟁탈을 위한 법정 소송이 벌어져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다.”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화루는 인천화교와 화상이 다수 참가하여 합자 방식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유사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컸다. 제1대 경영자인 뇌문조는 1930년대 중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제2대 경영자인 뇌성구는 1950년대 초 해외로 이주했다. 제3대 경영자로 보이는 서덕유는 자본가로 참가한 경영자라기 보다는 실력을 인정받아 발탁된 전문경영인이어서 뇌씨 일가와 같은 권위가 있을 리 없었다. 또한 중화루의 자본액이 공화춘보다 2~3배 많았기 때문에 주주로 참가하는 자본주도 더 많아 소유 구조가 더 복잡했다.

이런 와중에 터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화루 주주 가운데 주권을 소실했거나 사망한 경우가 발생했다. 경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뇌씨 일가가 이민간 상태에서, 중화루가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왔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측과 법정 소송을 벌였던 것이다. 공화춘의 경우는 제2대 경영자인 우홍장이 한국전쟁 휴전 후 발행 주식을 하나, 둘 매입하여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했다.⁶⁷ 실제로 우홍장이 공화춘의 주주의 한 명이던 양려당(楊勵堂, 본명은 楊翼之)의 주권 1장을 보유하고 있던 그의 아들 양건민(楊建民)에게 1962년에 한화 40만원으로 매입한 것을 양건민의 비망록에서 확인된다.⁶⁸

중화루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중앙동 1가 18번지의 부동산은 1922년 뇌문조로 등기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 1977년 12월 15일 진유광이 말한 하향구(경상북도 경산을 서상동 거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지만 한달 반이 지난 후인 1978년 1월 30일 다시 소유권은 한국인 한홍순(인천 남구 주안동)으로 이전되었다.⁶⁹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중화루의 건물은 해체되었다. 건물을 기준으로 보면 90여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중화루 중화요리점의 60여년의 역사도 종말을 고했다.

중화루 건물 철거 후 유물의 일부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건물 철거 후 중화루 자리는 주차장이 들어섰다. 이 부동산은 1984년에 김정호, 1989년에 정대순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⁷⁰ 2011년 3월 이 부

지에 건물 신축공사 허가를 받고 터파기 공사를 하던 도중 지하에서 유구(遺構)가 발견되어, 공사는 중단되었다. 문화재청은 건물 유구를 매장문화재로 보존하라는 결정을 내려, 땅 소유주가 중구청에 기부채납을 했다. 중구청은 2018년 4월 6일 중화루 자리에 대불호텔을 복원하여 대불호텔전시관을 개관했다.⁷¹

한편, 공화춘도 1983년에 문을 닫아 70여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의 중화루와 공화춘과 같이 일제강점기에營業을 시작한 대형 중화요리점은 서울에 많았다. 아서원, 태화관, 대관원, 중화각, 안동장도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모두 문을 닫았다. 이것은 공화춘과 같이 안정적인 지배구조하에서營業을 잘 한다고 해서 생존할 수 없는 화교 중화요리점을 둘러싼 악조건의 환경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1960년대 말부터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중화요리 기술을 연마한 한국인이 그만둔 후에 새롭게 ‘중국집’을 개업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또한 한국인 자본가가 화교 요리기술자를 고용하여 대형 중화요리점을 개업했다. 화교 ‘중국집’의 한국인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다. 그래도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대형 중화요리점의 8할은 화교가 경영했다. 미국이 1965년 그동안 아시아인 이민을 제한하던 법을 개정하면서 한국화교의 미국 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예다 화교 경영 ‘중국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각종 영업제한 조치가 더해지면서 한국 화교 경영의 ‘중국집’이 급감했다. 1979년은 1,800여 개로 감소하여, 1960년대 말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서울이 400여개, 부산이 160여개, 인천과 대구가 각각 100여 개로 줄어들었다. 반면 1980년대 초 미국으로 이주하여 개업한 한화(韓華) 경영의 ‘중국집’은 1천여 개(L.A에만 220개)에 달했다. 1970년대 말 한국 각지의 ‘중국집’ 가운데 7할은 한국인이 경영하게 되었다. 한국화교는 이러한 이유로 1970년대를 화교 경영 ‘중국집’의 ‘몰락시대’라 불렀다.⁷² 중화루와 공화춘도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사라진 중화요리점이라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위에서 대불호텔 건물을 호텔로서의 역사와 중화루 중화요리점으로서의 역사로 나눠, 특히 중화루의 역사를 근·현대 인천 중화요리점의 역사 속에서 살펴봤다. 검토 결과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불호텔이 호텔로서 문을 닫은 시기가 선행연구에서 1907년경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의 검토로 오사가 부 사카이시 소제 다쿠함명회사의 인천지점이 1906년 7월에 대불호텔 건물에 입주한 것을 근거로 볼 때 1906년 7월 혹은 그 이전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둘째, 중화루 중화요리점이 대불호텔 건물에서 개업을 시작한 시기가 기존에는 『인천부사』의 자료에 근거해서 1918년으로 여겨져 왔지만, 인천화상상회가 1935년 조사한 자료에 의해 1915년이라는 것이 새로 밝혀졌다. 이전보다 3년 더 빨리 개업한 것이 된다.

⁶⁶ 진유광 저·이용재 역(2012), 『중국인 디아스포라-한국화교 이야기』, 한국학술정보(주), p. 146.

⁶⁷ 한동수(2009.12), 「인천 청국조계지 내 공화춘의 역사변천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60, 한국중국학회, p. 374.

⁶⁸ 楊建民(1966), 『祖業事跡冊: 楊建民備忘錄』. 화취공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이정희(2020.9)을 참조 바람.

⁶⁹ 인천광역시중구청(2021.8.25.), 「인천광역시중구중앙동1가18번지토지대장」.

⁷⁰ 인천광역시중구청(2021.8.25.), 「인천광역시중구중앙동1가18번지토지대장」.

⁷¹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19), 「중화루 유물조사표」.

⁷² 華僑經濟年鑑委員會 編(1983), 『華僑經濟年鑑(民國71-72年)』, 華僑經濟年鑑委員會, p. 275.

셋째, 뇌문조가 1922년 일본인 호리 리키타로부터 대불호텔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그해 음력 2월 신장개업을 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최초로 밝혀졌다. 즉, 호리 리키타로에게 세를 얻어 중화루 영업을 하다 이제는 그 건물을 매입하여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넷째, 근대 인천을 대표하는 3대 중화요리점은 동흥루(뒤에 송죽루로 바뀜), 공화춘, 중화루였다. 중화루는 개업 시기가 동흥루와 공화춘보다 늦었지만, 자본금의 규모와 종업원 수, 판매액 등의 면에서 동흥루와 공화춘을 능가했다는 점을 각종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은 인천 중화요리점 역사가 공화춘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재고하게 한다.

다섯째, 중화루 중화요리점이 2개의 전화를 개설하고 있었고, 신문에 낸 광고를 통해 고급 베이징요리를 특색으로 요리배달과 연회 장소를 제공하는 고급 중화요리점으로서 인천지역사회에서 지역 유지의 각종 모임 장소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섯째, 1942년 당시 중화루는 물론이고 공화춘과 송죽루의 종업원의 성명, 나이, 본적을 완전히 파악하였고, 종업원 수에서도 중화루가 두 개의 중화요리점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화요리점의 경영자 고향인 산둥성의 푸산현과 무평현 출신의 종업원이 많다는 것도 파악했다.

일곱째, 해방 이후 중화루의 발자취와 관련해서는 1949년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통해 외부 간판을 철저히 분석, 공화춘과 동흥루의 외부 간판과 문구 등에서 유사한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 발굴에도 불구하고 중화루와 관련하여 아직 새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화루의 주주는 어떤 화교와 화상(華商)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주요한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수익구조와 영업이익의 배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1958년 소유권 소송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등이 과제라 할 수 있다. 간판과 편액뿐 아니라 공화춘의 ‘만금장’과 같은 장부와 주권(株券) 등의 자료 발굴과 관련자 인터뷰 작업이 향후 이뤄져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어

강화길(2021), 『대불호텔의 유명』, 문학동네.

권기영·이정희 공편(2015), 『인천, 대륙의 문화를 탐하다』, 학고방.

김경한(2013), 「한국 개화기의 호텔사-대불호텔과 손탁호텔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25-7, pp. 231-250

김정수(2010), 「인천 大佛호텔·中華樓의 변천사 자료연구」, 『인천학연구』1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p. 275-316

배성수(2016.2), 「1940년대 초 인천지역 화교사회의 동향: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1942년 화교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제24집,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p. 79-121.

손장원·조희라(2011),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11-3, pp. 27-34

이규수(2007), 「인천의 개항과 일본인 상인층의 존재형태」, 『Chemulpo, 그리고 인천 Jinsen-외국인 상업세력과 관련하여-』(제4회 학술대회 자료집),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주최 국제학술회의.

이정희·송승석(2015),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고방.

이정희(2017.6), 「조선화교의 중화요리점 연구: 1880년대~192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114, 한국사회사학회, pp. 61-96.

이정희(2017.12), 「조선화교 중화요리점의 실태: 1927-1945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경제사학』41-3(통권65호), 경제사학회, pp. 273-305.

이정희(2016.6),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 인천화교배척사건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135, 동양사학회, pp. 283-319.

이정희(2008.8), 「해방초기 인천화교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pp. 89-130.

이정희(2018.12), 「조선화교의 민간신앙과 비밀결사: 거선당과 의선당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120집, 한국사회사학회, pp. 203-236.

이정희(2020.9), 「근대 조선화상 화취공의 경영활동-『조업사적책』을 근거로-」, 『동양사학연구』제152집, 동양사학회, pp. 507-544.

이정희(2017.6), 「중일전쟁 시기 조선화교의 항일활동」, 『동양사학연구』139, 동양사학회, pp. 337-370.

이정희(2018), 『한반도 화교사: 근대의 초석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제사』, 동아시아.

이정희(2018), 「화교가 없는 나라: 경계 밖에 선 한반도화교 137년의 기록」, 동아시아.

이정희·송승석·송우창·정은저 편저(2019), 『한반도화교사전』, 인터북스.

유중하(2012), 『화교문화를 읽는 눈 짜장면』, 한겨레출판.

조선은행조사부(1949), 「재한화교의 경제적 세력」, 『경제연감 1949년판』, 조선은행.

진유광 저·이용재 역(2012), 『중국인 디아스포라-한국화교 이야기』, 한국학술정보(주).

한동수(2009.12), 「인천 청국조계지 내 공화춘의 역사변천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60, 한국중국학회, pp. 371-393.

2. 일본어

京城中央電話局(1930.6),『京城・仁川電話番號簿』, 朝鮮印刷株式會社(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1924),『朝鮮に於ける支那人』, 朝鮮總督府.

田中周次(1916),『仁川港經濟事情』,『朝鮮銀行月報』, 朝鮮銀行.

岡本保誠(1931),『仁川港』, 根澤印刷部.

萩森茂 編著(1929),『京城と仁川』, 根澤印刷部.

吉川文道 編輯(1932),『仁川の緊要問題』, 朝鮮新聞社.

仁川府廳 編纂(1933),『仁川府史』, 仁川府.

仁川日本人商業會議所(1908),『明治四拾年 仁川日本人商業會議所報告』, 仁川日本人商業會議所.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1908),『仁川開港二十五年史』, 仁川開港二十五年紀念會.

3. 중국어

華僑經濟年鑑委員會 編(1982),『華僑經濟年鑑(民國70-71年)』, 華僑經濟年鑑委員會.

華僑經濟年鑑委員會 編(1983),『華僑經濟年鑑(民國71-72年)』, 華僑經濟年鑑委員會

華僑志編纂委員會 編(1958),『華僑志-韓國-』, 華僑志編纂委員會.

王煥理(2003),『烟台史海鉤沉』, 烟台市新聞出版局, pp. 63-65.

仁川中華會館(1906.4),〈仁川本埠商號戶口人數〉,『華商人數清冊-各口華商清冊』,『駐韓使館保存檔案』, 대만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소장, 관리번호02-35-041-03.

仁川華商商會(1942.4.12),『華僑領取小麥粉詳細表』, 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仁川華商商會(1942.8-9),『仁川華僑世代別名簿』, 인천광역시립박물관소장.

4. 인터넷 자료

경기도경찰부장이 警務局長·管下 각 경찰서장에 보낸 공문(1941.3.25.),『料理屋營業狀態表』,『國民總力運動に半ふ民情に關する件』(京高祕第141ノ3號)(한국역사정보통합정보시스템 http://db.history.go.kr/id/had_168_1200)

경기도경찰부장이 警務局長·管下 각 경찰서장에 보낸 공문(1941.6.30.),『料理屋營業狀態調』,『國民總力運動に半ふ民情に關する件』(京高祕第1743號)(한국역사정보통합정보시스템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had_167_0870).

경기도경찰부장이 警務局長·管下 각 경찰서장에 보낸 공문(1941.9.24.),『料理屋營業狀態調』,『國民總力運動に半ふ民情に關する件』(京高祕第2686號)(한국역사정보통합정보시스템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had_167_0870).

기억과 시각적 자료로 보는 화기(和記) 중화루

주희풍

인천화교중산중학교 이사회 행정부이사장

1. 들어가며

인천 중화루에 대한 자료와 기록이 많이 않아 비문자 자료에 의존하는 고찰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글은 중국 산둥성 옌타이박물관(山東省煙台博物館) 소장 사진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등의 과거 기사 그리고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臺灣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소장 자료와 현재 인천 화교 원로들과의 인터뷰¹ 등을 가지고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천 중화루 간판들을 해석하는 동시에 근대 인천 화교사회(華僑社會)를 들여다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

조선 고종(高宗) 19년(1882년)에 한국과 중국은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고 1884년 정월(正月)² 후베이성(湖北省)과 장쑤성(江蘇省) 출신의 두 명의 중국인이 화상(華商)³의 신분으로 인천 항에 온다.

- 1 이 인터뷰는 2021년 8월 24일 인천화교학교 전·현직 이사장과 인천화교협회 전·현직 회장 고문(顧問) 등 5명과 동시에 진행한 인천 중화루에 관한 인터뷰이다. 5명 안에는 폐업 후 중화루에 거주한 인사 2명을 포함한다. 5명의 인사는 모두 1950년 전후 출생이며 인터뷰 장소는 인천 중구 선린동이다.
- 2 집조(執照)에는 광서(光緒) 10년 정월(正月) 즉 1884년 음력 1월로 있지만 당시 인천항 입국자 명단에는 1883년 9월로 되어 있다.
- 3 지금은 중국 외 국가의 사업가를 통틀어 일컫는 명칭이지만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청나라' 상인의 인식이 있는 말이다.

그림1 1884년 정월에 발행한 최초의 집조(통행 허가서)



출처: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그림2 1884년 1월 12일 제정한 인천 華商地界 실지조사 초안



출처: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집조(執照)는 외국인에게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종의 통행 허가서로 기재한 두 명의 중국인 서한산(徐漢山), 대금명(戴金明)이 서류상으로는 최초의 화상이 되겠다(**그림1**). 이 첫 번째 제1, 2호 통행 허가서 요약하면 “중국과 조선의 무역 장정 제 4조에 따라 위 두 명의 상민(商民)이 인천부(仁川府) 약 2, 3백 리(里) 계내(界內)에서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조선의 ‘조선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중국의 총판조선각구통상사무공서(總辦朝鮮各口通商事務公署)에서 비준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보다 몇 달 앞선 1883년 9월에 중국은 현재의 선린동에 조계지를 계획한다.

이 계획도에는 왼쪽의 일본 조계와 위쪽의 각국 조계 분계 도로를 분명하게 하고 현재 선린동 내의 초창기 길들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그림2**). 또한, 각국조계(各國租界)가 중국조계 보다 먼저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1884년 한국과 중국은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을 체결한다. 이 무렵 서울의 화상들은 ‘삼방(三幫)’을 중심으로 ‘중화회관(中華會館)’을 설립한다. ‘중화회관’이란 “해외의 화상과 상민 등을 위한 시설로 각 조직과 단체 혹은 민간 시설 등이 모여 있어 해당 지역 관공서와 본국의 영사관 등과 교섭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방’이란 ‘광방(廣幫)’, ‘남방(南幫)’, ‘북방(北幫)’을 말한다. ‘광방’은 광둥성(廣東省) 화상들을, ‘남방’은 화남(華南, 중국의 남쪽) 지역 상하이(上海), 안후이성(安徽省), 저장성(浙江省), 후베이성(湖北省)과 장쑤성(江蘇省), 푸젠성(福建省), 후난성(湖南省) 등의 화상들을, 북방(北幫)은 허베이성(河北省), 동베이(東北), 톈진(天津), 산둥성(山東省) 등의 화상들을 말한다. 1933년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광방은 1889년에 광방회관을 설립하고 1933년 당시 의생성(義生盛) 안에 주소를 두었으며, 남방은 1913년에 남방회관을 설립하고 1933년에는 중화회관 내에 주소를 두었다. 북방은 1891년에 북방회관을 설립하는데 이후 산동동향회(山東同鄉會)로 명칭을 변경하고 선린동 50번지에 주소를 둔다. 이때 북경의 경방(京幫)도 있었는데 회원과 세력이 비교적 미미했다.

이 시기 서울의 화상들은 현재의 인천 선린동 ‘평치(平治)’에 관심이 많았다. ‘평치’는 다른 말로 ‘평지(平地)’라고도 하는데 땅을 평평하게 다지거나 석축을 쌓아 땅에 높낮이를 맞추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맺은 ‘인천구화

상지계장정'의 '평지장정(平地章程)'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측 정부 인사와 화상이 참여한 가운데 '평지'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다져진 조계지 내의 땅은 경매 방식으로 화상들에게 매매가 이루어졌고 분기마다 지세(地稅)를 내는 방식이었다. '삼방'은 각출을 해서 서울의 중화회관을 설립하는 동시에 현재의 인천 선린동 '평지'에 많은 공을 들였다.⁴ '평지'를 점포 건물을 짓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초로 여겨 당시 일본과 각국은 자신들의 조계지에 화상들을 유치하려고 많은 혜택을 줬고, 중국 또한 화상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광방 화상들을 유치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⁵

1884년 음력 5월(윤년)만 해도 지금의 선린동에는 12개 남짓의 상점들이 있었다. 눈에 띄는 상점으로는 '왕홍룡 세탁소(王興隆洗衣作)', '대합순 저육 정육점(戴合順豬肉店)', 서홍성 정육점(徐洪盛肉店), '이상 목재소(李祥木店)' 등이 있다. 인천 앞바다에 주둔한 각 나라의 군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⁶ 그리로 서홍성과 대합순 정육점은 최초의 화상 시한산과 대금명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무렵 중국 텐진(天津)에는 조선이 공관을 설립하고 대원(大員) 남정철(南廷哲), 종사관(從事官) 박재순(朴載純), 서기관(書記官) 성기운(成岐運), 반상(伴尙) 박창규(朴昌奎), 이재환(李載煥), 통사(通事) 박영조(朴永祚), 수종(隨從) 만흥(萬興), 봉인(鳳仁), 학신(學臣), 용석(用石) 등의 조선주천진공관(朝鮮駐天津公館) 인원들이 있었다.⁷

1905년 인천의 삼방은 방치되어 온 조선 최초의 전보국(電報局)인 한성전보총국(漢城電報總局) 인천분국(仁川分局)을 수리하여 인천 중화회관을 설립한다. 이곳은 현재 선린동 8번지 동쪽 인천화교협회이다.⁸ 당시 인천 중화회관에는 삼방들의 회의실과 도서관, 열람실, 학당(學堂) 등이 운영되었고, 구락부(俱樂部)와 삼방 중의 남방회관(南幫會館)이 이 안에 있었다.

1906년 인천 중화회관과 경무(警務)에 관한 지출 내역에는 직원들의 급여, 학당의 중국인 교습과 영국인 교습(敎習, 학관의 명칭, 오늘의 선생님)의 급여와 잡비, 그리고 일본과 중국 순찰원(巡察員), 포도(捕盜) 인원의 급여, 청소부, 정화조 청소부, 야경꾼의 보수 및 전화비, 가로등 기름 등의 유지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인천 화교사회가 이미 번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현재의 선린동에는 원단 상점 16곳, 수입품 상점 3곳, 임대업 회사 1곳, 양복점 3곳, 잡화점 57곳, 객잔 6곳, 주점 6곳 등과 156가호의 540명이 발농사를 짓는다. 통계에 따르면 상호 91곳 242가구에 남성 1,509명, 여성 58명 그리고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는 150여 명이 있었다.⁹

⁴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소장 자료 소장번호 01-41-005-07 참고.

⁵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소장 자료 소장번호 01-41-015-0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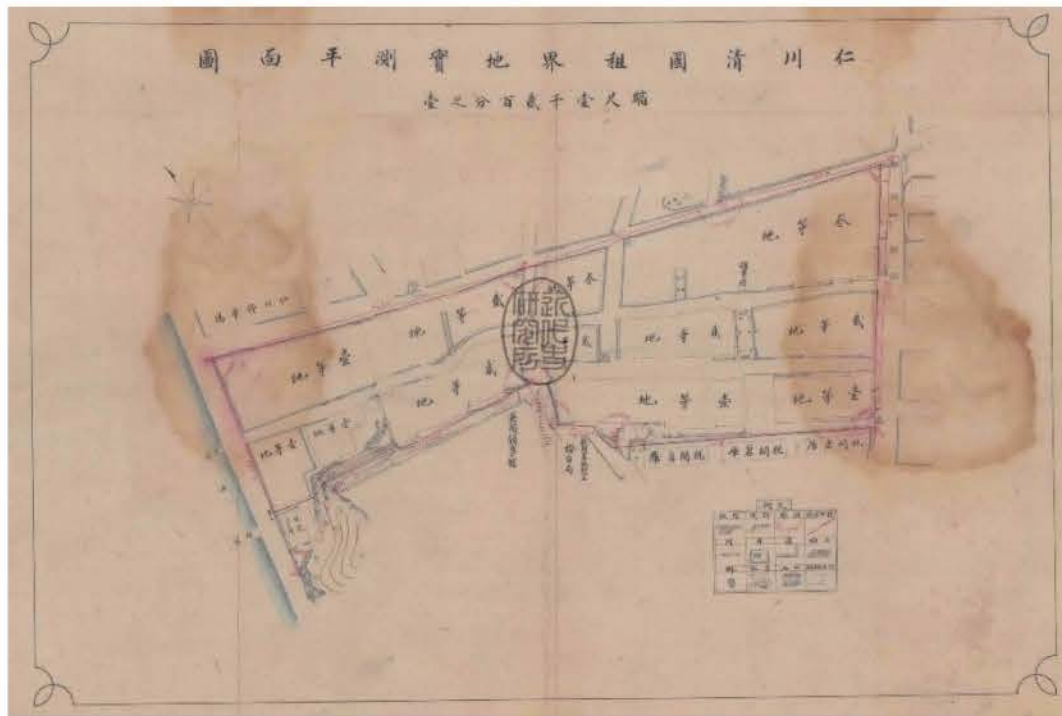
⁶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소장 자료 소장번호 01-41-005-07 참고.

⁷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소장 자료 소장번호 01-41-011-01 참고.

⁸ 2021년 9월 24일 『정인일보』 1면, 3면, 참고.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923010003757>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923010003807>

⁹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소장 자료 소장번호 02-35-041-03 참고.

그림3 1904년 이전에 제정한 인천 화상지계(華商地界) 즉, 청국조계지(淸國租界地) 배치도



출처: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1910년 이후 화교사회에는 이교(理敎)와 기독교의 교회, 근대교육의 공립인천화교소학교(公立仁川華僑小學), 그리고 병원(義德堂, 의덕당), 피병원(避病院), 요양원, 부랑자 보호 시설 등이 갖추어져 사회 형성의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현재 선린동에 해당하는 위 배치도는 1904년 제작한 것으로 상수도과 하수도 그리고 '평지'를 한 내용이 잘 나와 있다(**그림3**). 우물 4곳이 상수도에 해당하고 도로 양쪽 도랑들이 하수도에 해당하겠다. 곳곳의 석축들은 '평지'를 한 흔적이고 가로수 계단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일본계도로'가 1904년 이전에 '청일조계지계단'으로 조성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3. 화기(和記) 중화루의 개업과 고급 중국요리점의 흥행

한자문화권에서 ‘요리(料理)’가 ‘처리하다’, ‘정리하다’ 등의 의미에서 ‘술안주’, ‘음식’ 등으로 의미 파생이 된 나라는 일본이다. 당시 화상들이 언제부터 ‘요리’라는 어휘를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02년 ‘청요릿집(淸料理家)’에 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¹⁰ 인천 화교사회에는 유명한 고급 중국요리점 몇 곳이 있었다. 객잔(客棧)과 주관(酒館, 주점)은 고급 중국요리점의 전신으로 그 차이는 2층 숙박 시설의 유무에 있다. 인천의 화교사회가 형성되고 화농(華農)¹¹과 함께 번성함에 따라 우물이 있는 4곳 부근에 고급 중국요리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1911년 ‘특등요리(特等料理)’와 ‘지나요리(支那料理)’를 간판으로 내세워 개업한 동흥루(同興樓), 1912년 ‘우등요리(特等料理)’를 간판으로 내세워 개업한 공화춘(共和春), 1915년 ‘북경우등요리점(北京優等料理店)’ 간판을 내세워 개업한 중화루(中華樓)¹², 1921년 ‘광둥요리(廣東料理)’ 간판을 내세워 개업한 의생성(義生盛)¹³, 그리고 1934년 무렵 ‘우등요리(優等料理)’ 간판을 내세워 개업한 평화각(平和閣)이 있다(그림4~7).

그림4 동흥루의 지나요리 간판과 특등요리 간판 그리고 의생성의 광둥요리 간판이 보인다.



출처: 화도진도서관

- 10 「후주방포(醞酒方圃)」, 황성신문(皇城新聞) 1902년 2월 25일 2면,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 11 1912년 당시 현재의 선린동 1번지에 주소를 두고 왕승답(王承謫 ‘謫’이체자)을 초대 회장으로 인천화농회(仁川華農會)를 설립한다. 왕승답은 만취동(萬聚東)의 창설자면서 제1대 사장이다. 만취동은 1930~50년대 화상 최고의 무역회사였다.
- 12 2006년 인천화교협회「인천화교역사자료(仁川華僑歷史資料)」참고.
- 13 1921년 2월 18일 『조선일보』 3면 사회 기사 참고.

그림5 1940~50년대 평화각 사진



출처: 김식만 블로그 제공

그림6 1960~70년대 평화각



출처: 인천화교협회 부극정 제공

한편, 중화루의 개업 시기에 있어 이론들이 있다. 인천의 중화루는 19세기 말 신축한 3층 건물의 대불호텔(大佛ホテル, Hotel DAIBUTSU)¹⁴을 중국 엔타이(煙台)의 화상(華商)이 20세기 초에 인수하여 운영한 중국요리점이다. 근대 인천을 상징했던 이 화려한 건물은 인천 화교들의 다세대 주택을 마지막으로 1978년에 완전히 철거된다. 등기부상 1922년에 인천 중화루의 명의를 이전되었으며,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중화루 간판과 편액의 제작연도 또한 1922년이다. 1920년대 ‘중화루’라는 상호의 중국요리점은 서울에만 2개, 평양, 함성, 사리원 등이 있었다.¹⁵

1924년 3월 14일 인천 중화루에서 특이한 광고 하나를 낸다. 중화루의 자금과 출납을 담당하는 임원을 해고하는 광고이다.¹⁶ 임원을 해고하는데 신문광고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법정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화교사회에서도 주주가 각출하여 고급요리점을 개업하거나 ‘청회(淸會)’라는 것으로 개인 사업을 개업하는 것이 있다. ‘청회’는 지인들에게 요청하여 소규모의 대출을 받는 형식이다. 1999년 엔타이박물관에서 공개한 사진 2층 간판에는 ‘화기(和記)’라는 두 글자가 있다(그림7).

- 14 중화루가 인수한 대불호텔은 일본인 호리히사타로(堀久太郎)가 1888년 기존 일본식 2층 목조 대불호텔 부지 바로 앞에 신축 완공한 3층 벽돌조 호텔이다. (손장원 외,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Vol.11 No.3 / 2011. 9. 33-34쪽 참고). 인천 중구 중앙동 1가 18번지에 위치하는 이 건물은 1978년 완전히 철거되었다가 2018년에 복원 현재 ‘대불호텔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15 주희풍, <중화루의 대표요리 ‘용호루’ 아시나요? (您知道中華樓的代表料理“龍虎鬪”嗎?)>, 《인천지창(仁川之窓)》, 2018 여름(夏) 30-33쪽 참고.
- 16 1924년 3월 14일 『조선신문』 8면 참고. 1924년 3월 16일에도 같은 광고를 낸다.

그림7 1940년대 후반 중화루 사진



출처: 중국 엔타이일보(煙台日報), 2009.7.11.

그림8 인천 중화루 개업 20주년 기념 점원
전체 촬영 민국 24년 소춘(10월~4월)
仁川中華樓開業二十年紀念店員全體
攝影民國二十四年小春



출처: 중국 엔타이일보(煙台日報), 2009.10.8.

‘기(記)’는 ‘호(號)’, ‘성(盛)’, ‘잔(棧)’ 등 상호 뒤에 씌으로써 상호의 표식(表式)으로 사용하는데, ‘기(記)’자는 다른 표식과 조금 다르다. 이를테면, 계약 당시 상점의 주소 때문에 상호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그러나 이미 상호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 그 소유권을 구별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지기 위해 통상적으로 상호에 ‘기(記)’자를 표시한다.¹⁷ 중국에서 ‘중화루(中華樓)’라는 말은 마치 한국의 ‘한국회관’처럼 요리점 상호로 흔하게 사용해서 ‘중화루기(中華樓記)’보다는 중화루 앞에 ‘화기(和記)’를 쓴 것으로 추정한다. 1921년 중화루에서 대규모 단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보아¹⁸ 1921년 이전부터 그 자리에서 영업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2009년 엔타이박물관에서 또 한 장의 중화루 사진을 엔타이일보(煙台日報)에 공개하였다. 이 사진은 인천 중화루 개업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¹⁹으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천 중화루 ‘파주임풍(把酒臨風)’ 편액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그림8). 이 사진은 1935년에 촬영한 것으로 중화루의 개업 시기를 1915년으로 단정할 수 있겠다.

¹⁷ 佚名(저자명 밝히지 않음). 「潮州的旧商号」. 『潮商』, 2007년 제6기(第6期) 80-81 쪽 참고.

¹⁸ 1921년 8월 15일 『동아일보』 4면 사회 기사 참고.

¹⁹ 이 사진은 「또 한 장의 인천 중화루 사진을 보다(仁川中華樓右見老照片)」, 『엔타이일보(煙台日報)』, 2009.10.8. 기사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화기 중화루의 창업자는 뇌소정(賴紹鼎, 라이샤오징, 1872년) 즉, 뇌문조(賴文藻, 라이원자오)이다. 뇌소정은 1930년대 지병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고 큰아들 뇌가성(賴家聲, 라이지아성)이 사장이 되었으며, 뇌가성의 동종(同宗) 동생 뇌가례(賴家禮, 라이지아리)가 부사장을 맡았다고 뇌소정의 손자 뇌성옥(賴聲玉, 라이성위)가 회고한다. 뇌성옥은 6세 때 큰아버지 뇌가성과 큰어머니 이요곤(李耀坤, 리야오쿤)과 함께 인천에 왔다고 하면서 제3대 경영자 뇌성화(賴聲華, 라이성화)와 어릴 때부터 화기 중화루에서 자랐다고 한다. 뇌성화는 뇌가례와 같이 인천에 왔다고 한다.²⁰ 뇌성옥의 아버지 뇌성구(賴誠久, 라이청저우)는 단지 경영에만 참여했다고 한다.²¹ 뇌성구는 1920~30년까지 인천화교학교의 선생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공화춘 창업자 우희광(于希光, 위시광)의 손자 우심강(于心強, 위신창)도 인천화교학교의 선생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²² 〈그림7〉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은 뇌가례의 부인이고 오른쪽에서 4번째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이 제3대 경영자 뇌성화이다.

화교 사회에서 고급 중국요리가 성행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포판회식(包辦會席)’이다. ‘포판회식’을 지금의 말로 하면 ‘행사 대행’이다. 1910년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단체를 조직하고 많은 조직을 조성하는 가운데 발대식, 기자회견, 각종 기념식, 각종 모임 등을 중국 고급요리점에서 거행한 기사들이 부지기수이다. 공화춘, 동홍루, 의생성, 평화각, 중화루 중 1920~1930년대까지 가장 많은 기사가 난 곳이 바로 중화루이다. 화상 진유광(秦裕光, 친위광, 1916~1999)의 회고록에서 중화루는 개업 직후 진기한 각종 요리로 사람들을 끌어 모았으며 당시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부유층과 부잣집 귀공자들의 유락 장소가 되기도 했고 홀 안에는 프랑스에서 구입한 명품 그랜드 피아노를 비치하기도 했다고 한다.²³ 당시 중화루의 간판 요리는 잉어를 지진 요리와 고양이 요리라고 한다. 잉어를 지진 요리는 ‘훈어(鱔魚)’라고 하는 요리인데, 중국 북방에서는 삼치로 ‘훈어’를 요리하고 남방에서는 잉어로 ‘훈어’를 요리한다. 고양이 요리는 용호투(龍虎鬪)라는 보양요리로 광시성(廣西省)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와 뱀으로 요리를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돼지고기 또는 장어와 비슷한 민물고기(드렁허리)로 요리를 만든다. 실제 인천 화교 중에서도 중화루의 용호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²⁴

²⁰ 2009년 7월 11일 『엔타이일보(煙台日報)』 「한장의 진귀한 옛 사진 산동요리의 향기가 해외에 퍼진 것을 증명한다(一幅珍貴老照片 見證魯菜香海外)」 참고.

²¹ 왕환리(王煥理)〈인천 중화루(仁川的中華樓)〉, 《민속연구(民俗研究)》 1999, 제2기(第2期) 90쪽 참고.

²² 2021년 8월 24일 인천화교학교 전·현직 이사장과 인천화교협회 전·현직 회장과 고문(顧問) 등 5명과 동시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참고.

²³ 『중국인 디아스포라』 이용재 역 한국학술정보 출판 2012년 145-146 쪽 참고.

²⁴ 주희풍〈중화루의 대표요리 ‘용호투’ 아시나요?(您知道中華樓的代表料理“龍虎鬪”嗎?)〉, 《인천지창(仁川之窓)》 2018 여름(夏) 30-33쪽 참고.

4. 중화루 간판과 편액

4-1. ‘중화루(中華樓)’ 간판(그림9)



그림9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중화루 간판

건물 1층 현관 위에 걸려있던 이 간판은 고동기(古銅器) 그림 위에 제작한 간판이다. 아래의 1943년 사진에는 현재보다 그림이 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10).²⁵ 후에 계속되는 색칠로 인해 그림의 구성 소재들이 소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10 1층 현관 위에 중화루 간판이 보인다.
지금보다는 그림이 빼곡하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²⁵ 이 사진은 2020년 인천화교소·중고등학교 이사회 행정 부이사장 주희풍이 인천시청 소통기획담당관 이용남 주무관이 의뢰한 인천 화교 항일단체 ‘일동회(日東會)’ 관련 자문을 하는 가운데 발굴한 것으로 1943년 현재 인천 중구 곳곳에 사진을 포함하여 많은 향토연구 분야에서 참고하고 있다.

이 간판은 임술중춘(壬戌仲春) 즉 1922년 음력 2월에 제작한 것으로 글씨는 중화민국(中華民國 1912~) 시기 서예가 점양(占陽) 부배동(傅培桐)이 쓴 것으로 확인된다. 해서체(楷書體)로 쓴 ‘중(中)’, ‘화(華)’, ‘루(樓)’는 글씨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서법(書法)으로, 한 획 한 획의 힘이나 글 자체의 힘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와 무게감을 잘 표현한 글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점양은 부배동의 호(號)이다. 당시 점양 부배동이 이 글을 인천에서 썼는지 중국에서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글과 낙관은 본인이 써도 편액을 제작하는 날씨는 편액의 제작자가 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양은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서예가이다. 현재 세 점의 작품 정도가 경매회사와 서예 애호가들의 소장품으로 남겨져 있다. 편액의 낙관과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의 낙관을 확인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1). 인장(印章)에는 ‘傅培桐印(부배동인)’과 ‘占陽(점양)’이라고 전각(篆刻)이 되어 있다.

보통 호는 본인의 출신 지역명 혹은 그 지역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만 푸더 국제 경매회사(臺灣富德國際拍賣股份有限公司)’에 나온 것으로 보아 부배동은 중국 푸젠성(福建省) 잔양(占陽)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그림12). 점양 부배동의 작품은 라오닝 지우딩 경매회사(遼寧九鼎拍賣有限公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13), 개인 소장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배동이 부유공(傅維貢), 즉 부소유(傅紹禹)라는 글과 기사가 많은데 남겨진 작품과 낙관을 확인했을 때 동명이인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인천 화교 사회에서도 부유공이 글을 쓴다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²⁶ 아래는 점양 부배동의 낙관과 작품들이다.



그림11 점양(占陽) 부배동(傅培桐) 낙관

출처: <https://image.baidu.com/search/index?tn=baiduimage&ps=1&ct=201326592&lm=-1&cl=2&nc=1&ie=utf-8&word=%E5%82%85%E5%9F%B9%E6%A1%90>

²⁶ 2021년 8월 24일 인천화교학교 전·현직 이사장과 인천화교협회 전·현직 회장과 고문(顧問) 등 5명과 동시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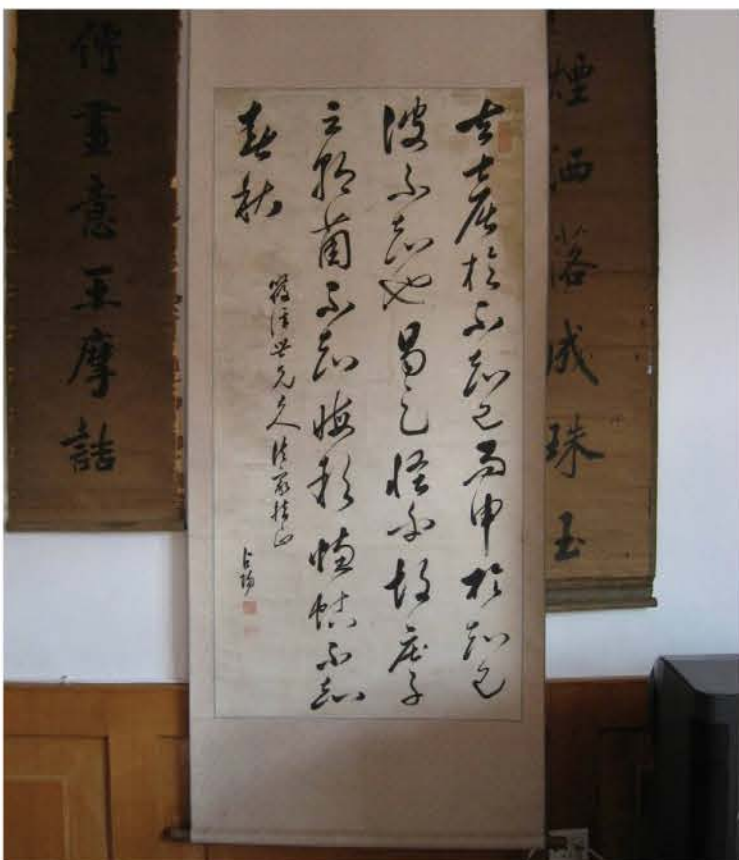


그림12 개인 소장가의 부배동 작품
출처: <https://image.baidu.com/search/index?tn=baiduimage&ps=1&ct=201326592&lm=-1&cl=2&nc=1&ie=utf-8&word=%E5%82%85%E5%9F%B9%E6%A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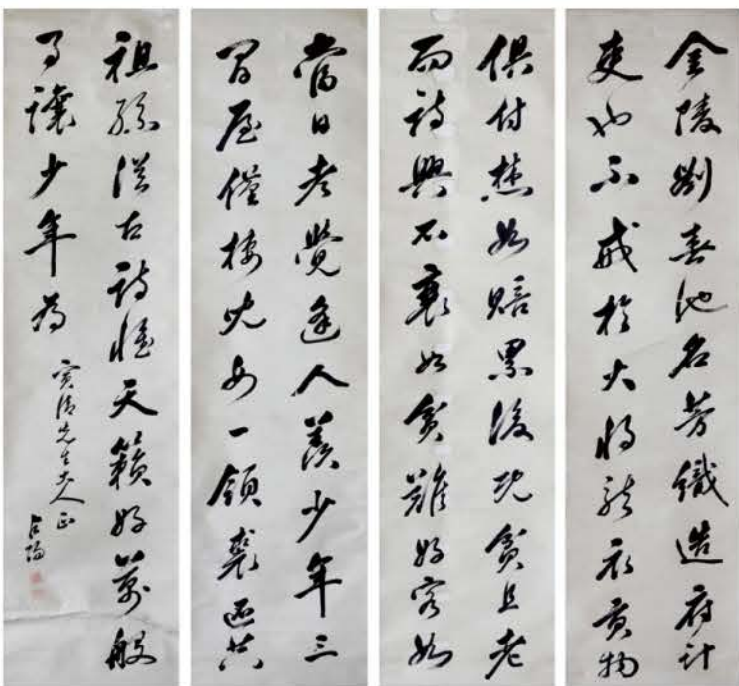


그림13 라오닝 지우딩 경매회사
(遼寧九鼎拍賣有限公司)에
나온 작품
출처: https://aimg.yajian518.com/art/Z18036/Z18036401/164.jpg_lotexit.jpg

4-2. ‘춘광화애(春光和藹)’ 편액



그림14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춘광화애(春光和藹)’ 편액

이 편액의 글씨는 행서체로 쓰여졌다(그림14). 편액 오른쪽에 제작연도를 가리키는 ‘임술중춘(壬戌仲春)’ 글자가 중화루 간판의 글자와 매우 흡사한 것과, 왼쪽 낙관의 일부가 중화루 간판의 낙관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이 편액의 글씨 역시 점양이 쓴 글씨로 판단된다. 이 편액의 제작연도 역시 1922년 음력 2월이다.

편액에서 손실된 부분의 글자는 아지랑이 ‘靄(애)’일 가능성이 크다. ‘화애(和藹)’는 “태도가 온화하여 접근하기가 좋다.”라는 뜻이다. ‘춘광(春光)’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봄의 햇살’, ‘봄날의 경치’, ‘세월’, ‘청춘 남녀 간의 미소 띤 얼굴’ 등의 뜻을 가지니 독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겠다. 편액은 바로 이러한 매력이 있다. 보통은 빛이나 소품 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 표출하지만 편액은 글씨를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기능이 있다. 문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술적 기능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에서 통용하는 한자(漢字)라 할 수 있겠다.

이 편액은 장법(章法)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춘(春)’자를 비교적 단정하게 씌으로써 독자에게 ‘춘(春)’자 다음에 휴지(休止)를 이끌어 내는 기교를 표현하고 있다. 이 기교를 풀어 쓰면 “봄, (그것의) 자유분방”함을 장법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글씨로 평가할 수 있겠다.

4-3. ‘승우여운(勝友如雲)’ 편액



그림1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승우여운(勝友如雲)’ 편액

이 편액은 거의 파편화가 되어 정확한 제작연도나 글씨 그리고 글쓴이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그림15) 몇 장의 과거 중화루 사진과 편액 오른쪽의 ‘춘(春)’자, 중앙의 고동기 그림 등으로 일부 내용을 추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래 사진에서는 ‘승우여운(勝友如雲)’이라는 글씨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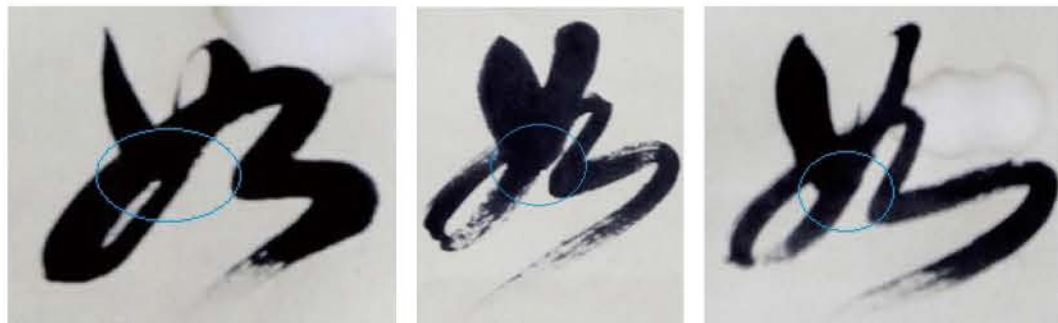
그림16 화살표 부분이 파편화 된 ‘승우여운(勝友如雲)’ 편액이다.



출처: 조선일보

한편, 편액 오른쪽에는 조그마하게 ‘춘(春)’자가 보인다. 다른 편액과 같은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동기가 그려져 있는 것도 다른 편액의 특징과 같다. 낙관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글씨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점양의 다른 작품에서 편액 글씨에서 보이는 특징 하나가 관찰된다. 아래는 <그림13>점양 작품의 ‘갈을 여(如)’이다.

그림17 라오닝 지우딩 경매회사(遼寧九鼎拍賣有限公司)에 나온 작품의 ‘갈을 여(如)’



이 초서체(草書體) ‘여(如)’의 특징은 첫 획이 두 번째 획을 넘지 않은 것에 있다(그림17). 보통 ‘여(如)’ 초서체는 첫 획이 두 번째 획을 넘어서 있다. 이 특징이 승우여운 현판의 ‘여(如)’에서도 보이는데 점양의 초서체일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승우(勝友)은 ‘좋은 친구’라는 뜻이다. “좋은 친구가 구름 같이” 모여 있으니 어찌 좋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글씨의 전고는 당(唐)나라 왕발(王勃)의 《추일등홍부등왕각전별서》: “십순휴가 승우여운 천리봉영 고봉만좌.”(《秋日登洪府滕王閣餞別序》: “十旬休暇, 勝友如雲. 千裏逢迎, 高朋滿座.”)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귀한 벗들이 자리에 가득하다”는 뜻인 ‘고봉만좌(高朋滿座)’와 더불어 많이 쓰이는 고사성어이다. 초서에 가까운 행초체(行草體)의 ‘승우여운(勝友如雲)’에서 호탕(豪宕)한 좋은 벗들을 즐거운 공간으로 인도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이것이 서예가가 행초서를 선택한 이유일 것이다.

4-4. ‘파주임풍(把酒臨風)’ 편액



그림1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파주임풍(把酒臨風)’ 편액

이 편액에는 모순점이 존재한다(그림18). 우선 이 편액은 기타 편액과 같이 임술년에 제작된 것으로 새겨져 있다. 하지만 낙관은 18세기 중엽을 가리키고 있다. 낙관에는 육려(育黎) 왕경중(王景曾), 그리고 인장에는 왕경중인(王景曾印)과 자기오씨(字沂吾氏)가 각각 전각(篆刻)되어 있다. 자기오씨는 왕경중의 호(號)이나 기오(沂吾)라는 호를 더 즐겨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19>와 <그림20>은 산둥성 쉰신 경매회사(山東舜鑫拍賣有限公司)에 나온 기오(沂吾) 왕경중(王景曾)의 작품들에서 기오의 작품과 그의 낙관이다. ‘파주임풍’ 편액 낙관과 동일인의 낙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9 산둥성 쑤신 경매회사에 나온 기오 왕경증의 작품 중 하나



출처: <https://auction.artron.net/paimai-art5063390622/>

그림20 산둥성 쑤신 경매회사에 나온 기오 왕경증의 작품 중 하나



출처: <https://auction.artron.net/paimai-art0099000323/>

자기오씨 왕경증은 서예가 이전에 청(淸)시기 거인(舉人, 명청(明清) 시대에 향시(鄕試)에 합격한 사람) 급의 학자이다. 산둥성(山東省) 지모(即墨) 어우싼웨이(鰲山衛) 사람이며 건륭(乾隆) 44년, 즉 1779년 거인에 합격하고 산둥 지난(齊南) 지촨(淄川)에서 훈도관(訓導官)을 맡은 인물이다. 기오의 기(沂)는 중국 산둥(山東)에서 시작하여 중국 지양쑤성(江蘇省)으로 흐르는 강물 이름이다. 자기오씨(字沂吾氏)는 ‘기(沂)가 곧 나의 씨이니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육려(育黎)는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시(威海市) 루싼(乳山)에 위치하는 지역 이름이다. 한(漢)나라 고성(古城) 때부터 요충지였던 육려는 1933년에야 구두로만 내려오던 고성의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1951년에 공식적으로 ‘위리(育黎)’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남아 있는 기오 작품의 낙관에서는 ‘육려’라고 쓴 작품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낙관에는 주로 글을 쓴 장소도 쓰는 것을 고려할 때 이 편액의 글씨는 기오가 육려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기오의 상당수 작품은 경매회사나 개인 수집가의 소장품으로 남아 있다.

이 편액은 아마도 기오의 글을 소장하고 있는 이에게 선물을 받았거나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파주임풍(把酒臨風)은 “바람을 맞으며 술을 들다.”라는 뜻으로 송(宋)나라 범중엄(範仲淹)의 《악양루기(嶽陽樓記)》: “등사루야 칙유심광신이 충욕개망 파주임풍 기희양양자의. (登斯樓也, 則有心曠神怡, 寵辱皆忘, 把酒臨風, 其喜洋洋者矣.)”에서 전고를 찾을 수 있다. 이 전고의 전체의 뜻은 “이 누(樓)를 오르면 가슴 뚫린 듯한 경쾌함과 맑아지는 정신이 영광과 모욕을 모두 잊게 하고 바람을 맞으며 술을 드니 그 기쁨이 가득하다.”이다. 당시 3층 건물의 중화루와 매우 어울리는 글씨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8〉의 중화루 개업 20주년 사진을 보면 이 편액을 중심으로 양옆에 대련(對聯)이 있고 그 양쪽으로 두 점의 그림이 장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파주임풍 편액은 아마 중화루에서 가장 좋은 공간에 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편액은 행서체에 가까운 행초서체(行草書體)이다. 한 획 한 획에 강약의 조화가 입체감을 주면서 글자 자체의 구조적 균형이 글씨의 전체적 균형을 이끈다. 특히 파(把)자는 ‘거리낌 없이 날렵하게 술잔을 잡는 모습과 기분’을 그대로 표출하고 임(臨)자는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서는 당당함’이 글자에서 보인다. 따라서 독자로 하여금 글씨를 읽을 때 악센트를 제공해주는 장법(章法)에서의 조율(調律)적 기능도 추가적으로 보인다고 하겠다.

4-5. ‘악주조천(樂奏鈞天)’ 편액



그림2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악주조천(樂奏鈞天)’ 편액

이 편액은 제작한 날짜와 낙관이 없으며, 글씨도 서예가가 썼다고 보기 어렵다(그림21). 특히 서법(書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 중의 하나인 하늘 천(天)의 경우, 첫 획과 두 번째 획이 오른쪽 수직선에 비슷하게라도 있어야 하며 세 번째 획은 첫째 둘째 획과 3등분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위는 좁고 아래는 넓다. 악(樂)자는 그 반대이다. 위는 넓고 아래는 좁으며, 주(奏)자도 마찬가지로 위는 넓고 아래는 좁다. 조(鈞)자는 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다. 글자 하나하나의 자체적 구조나 전체적인 장법(章法)의 구조로 봤을 때 서예가가 쓴 글이라고 하기 힘들다.

그래도 글씨의 뜻이 있기 때문에 편액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천(鈞天)은 중국 고대 신화에서 ‘하늘의 한 가운데’를 가리키는데 ‘조천지락(鈞天之樂)’에서 유래된 말로 ‘하늘의 음악’ 즉,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이라는 뜻을 갖는다. 악주(樂奏)는 ‘음악을 연주하다.’의 뜻이니 ‘연주하는 음악이 마치 하늘의 음악처럼 아름답고 웅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4-6. 이룡희주(二龍戲珠) 장식 간판(lambrequin)



그림2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중화루 건물 장식 간판

랑브르캥(lambrequin)은 창문이나 건물 출입구 윗부분 장식용 걸이 등을 말하는데,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장식 간판과 같이 나무 조각으로 모조(模造)하기도 한다. 근대의 일본은 의양풍건축(擬洋風建築, 기요후켄치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양풍건축은 조선 말에도 성행하였으니 당시 이미 국제도시인 인천도 말할 것 없이 의양풍건축의 시대를 맞이하였다.²⁷

의양풍건축은 쉽게 말해 서양의 건축양식을 보고 모방한 건축양식이다. 지금 인천에 남아 있는 ‘근대 르네상스’ 건물들이 전부 일본의 의양풍건축 양식에 속한다. 만약 인천의 첫 번째 의양풍건축을 뽑는다면 바로 대불호텔일 것이다. 외관적으로 의양풍건축 양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랑브르캥인데 대불호텔 2층 발코니 출입구 위에 원래의 랑브르캥이 있었다. 화기 중화루가 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두 마리의 용 조각이 있는 랑브르캥이 원래의 랑브르캥 위에 걸려있었다(그림22).

위 간판처럼 두 마리의 용 사이에 여의주가 있는 도안을 중국에서는 ‘이룡희주(二龍戲珠)’ 혹은 ‘쌍룡희주(雙龍戲珠)’라고도 한다. 중국 청국 천문학의 ‘천체운행도(星球運行圖)’에서 나온 도안으로 가운데 여의주는 달에서 기원한다. ‘이룡희주’는 길상과 경사스러움을 가져다주는 중국의 전통 장식무늬이다.

중화루의 랑브르캥이 언제부터 걸려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의양풍건축 양식의 르네상스 식물 패턴 무늬는 그림4 동홍루 간판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식물패턴 무늬 테두리 안에 중국의 전통 장식 무늬인 ‘이룡희주’가 있다는 것이 많은 의미를 연상케 하는 것은 분명하다. 여의주문의 글씨가 중(中)에서 신(新)자로 덧붙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48년 무렵 경영자가 서(徐)씨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7 『Colonial Korea』, 『The Influence of Giyofu Architecture and 19th Century Japan on Early Modern Korea』. MAY 12, 2019. 참고.

5. 중화루의 편액과 간판의 배경 그림

1907년 일본의 양조 회사인 ‘다쿠(宅) 합명회사’가 대불호텔에 인천지점을 설립한다.²⁸ 1907년 『황태자전하한 국도항기념사진첩』 수록 사진을 보면 고동기 장식의 족자들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3). 이것으로 보아 중화루의 간판과 일부 편액 역시 대불호텔의 그림 족자를 그대로 활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23 일본의 양조 회사인 ‘다쿠(宅) 합명회사’ 인천지점

당시 조선 말에 유행하던 고동기 기명절지(器皿折枝)와 문방도, 그리고 책가도 병풍 등의 그림이 격(幕), 궤(簾), 존(尊), 유(卣), 종(鐘) 등의 각종 고동기와 문방사우(文房四友)로 중화루 간판과 일부 편액에 남아있는데, 당시 조선 말에 유행하던 소재의 병풍이나 그림을 보고 그렸다고 추측할 수 있다. 원근법의 처리, 특히 고동기(古銅器)의 명문(銘文)인 금문(金文)의 종(鐘)자와 존(尊)자는 당시 조선에서 주로 쓰는 형태로 확인된다. 고동기는 사회적 신분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당시 일본인들이 열광적으로 수집하는 물품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파주임풍(把酒臨風)’ 편액은 다른 간판들과 달리 ‘녹학동춘(鹿鶴同春)’이라고 하는 그림이다. 길상의 상징으로 여기는 중국 전통의 그림으로 ‘육합동춘(六合同春)’이라고도 한다. 이 그림은 “은 세상에 봄이 와서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다.”라는 의미로 ‘사업이 활기에 차 발전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파주임풍 간판 배경의 왼쪽은 소나무이고 오른쪽은 벽오동나무이다. 그리고 두 마리의 사슴과 두 마리의 학이 있는데 재밌게도 학과 사슴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는 곳에는 ‘녹학동춘도(鹿鶴同春圖)’에 나오지 않는 동물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그 문양은 바로 박쥐이다. 박쥐는 한자로 편복(蝙蝠)이라고 해서 복(福)을 상징한다. 육합(六合)이 복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찌 이보다 더 좋지 아니하겠는가. 이 편액의 그림은 중국의 그림을 보고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28 손장원 외, 「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Vol.11 No.3 / 2011. 9. 33-34쪽 참고.

6. 나오면서

이 글은 중국 『연태일보』 기사 수록 사진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등의 과거 기사,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소장 자료, 그리고 인천 화교 원로들과의 인터뷰 등을 가지고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천 중화루 간판 등을 해석하는 동시에 근대 인천 화교사회(華僑社會)를 들여다보았다.

1882년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고 1884년 정월(正月) 후베이성(湖北省)과 장쑤성(江蘇省) 출신 두 명의 최초 중국인 화상(華商)을 시작으로, 1905년 삼방의 화상이 중심이 되어 1894년 이후 방치되었던 한성전보총국 인천분국에 중화회관을 설립하였다. 이후 현재의 인천 선린동에 화교사회가 번성하고 근대 인천 사회의 시류에 따라 ‘포판회석’이라는 행사 대행의 편의를 위해 고급 중국요리점들이 주주들의 각출을 통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 중 화기 중화루의 개업은 청일전쟁 이후 침체된 화교사회에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다. 화기 중화루의 간판과 일부 편액은 기존 대불호텔의 조선 말기 유행한 고동기 그림의 족자를 활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은 한·중·일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10〉의 1943년 화기 중화루 사진은 인천 화교 항일단체 ‘일동회(日東會)’ 관련 자료에서 발굴한 것으로 1943년 현재의 인천 중구 곳곳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화기 중화루의 상징과 같았던 영문 간판이 1943년에는 한문 간판이었다는 사실이다. 1층 영문 간판의 등장은 당시 사회 배경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실마리’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룡회주 장식 간판의 제작연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근대 일본의 의양풍건축 양식인 르네상스 문양과 중국 전통의 길상 문양이 잘 어울려져 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화기 중화루 간판과 편액에는 한 세기 전 다국적 도시였던 인천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臺灣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總理各國事務衙門「駐韓使館保存檔案」소장자료.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臺灣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外務部「駐韓使館保存檔案」소장자료.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臺灣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北洋政府外交部「駐韓使館保存檔案」소장자료.

「인천화교역사자료(仁川華僑歷史資料)」2006년 인천화교협회.

손장원 외<대불호텔의 건축사적 고찰>,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Vol.11 No.3 / 2011. 9.

주희풍<중화루의 대표요리 ‘용호투’ 아시나요?(您知道中華樓的代表料理“龍虎鬪”嗎?)>, 《인천지창(仁川之窓)》2018 여름(夏)호.

佚名<저장 명 밝이지 않음>.「潮州的旧商号」.『潮商』, 2007년 제6기(第6期)

왕환리(王煥理)<인천 중화루(仁川的中華樓)>, 《민속연구(民俗研究)》1999, 제2기(第2期)

『중국인 디아스포라』이용재 역 한국학술정보 출판 2012년

『Colonial Korea』, 「The Influence of Giyōfū Architecture and 19th Century Japan on Early Modern Korea」. MAY 12, 2019.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百度文庫』 <https://wenku.baidu.com/>

인천 조계지의 중국요리점, 중화루 간판들

최경현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I. 들어가는 말

간판(看板)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정책과 상업 자본을 배경으로 성장한 근대 도시의 외관(外觀)을 장식하며 보편적 시각 이미지로 일상화되었다. 특히 상점의 지붕 위에 상호가 적힌 직사각형의 표지(標識)를 올려놓은 야네[屋根]간판은 대표적 일본 간판으로, 장대 끝에 깃발이나 판매 물건을 매단 망자(望子), 나무판에 상호나 그림을 새기거나 그려 벽이나 처마 아래 걸었던 현판(懸板) 등을 대체하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¹ 더불어 근대 도시의 일본 간판은 판매 물품을 홍보하고, 신문물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전하는 근대화의 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사회가 타율적으로 내재화되어 갔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 간판은 사회문화사를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 자료로 주목되었고, 간판의 역사적 변천과 유형을 살피거나 사회문화사적 현상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²

하지만 간판은 상업활동의 중단과 동시에 버려지거나, 업종 변경으로 교체되는 일회성 소모품이었기 때문에 현전하는 실물 자료가 극히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간판 관련 연구는 그림엽서나 신문, 사진, 잡지, 삽화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으로 중국요리점 중화루(中華樓)에 걸렸던 현판 형식의 간판 2점과 실내를 장식했던 현판(편액) 2점은 보기 드문 실물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¹ 상호나 판매 물품을 홍보하는 문구가 적힌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일본에서는 '간판(看板)', 중국에서는 시초(市招)라고 하였다. 시초는 상점 입구에 글자를 적어 걸어놓거나 세워놓는 이동식 표지인 초패(招牌)와 장대 끝에 깃발이나 글자를 적은 천을 매단 망자(望子 또는 幌子)를 포함한다. 이밖에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 누각, 사당, 정자 등 문 위나 처마 아래에 걸었던 것은 현판(懸板) 또는 편액(扁額)이라고 한다.

² 광명희, 「일제강점기 간판 문화의 특징에 관한 연구」, 『옥외광고학연구』 1(한국옥외광고학회, 2004), pp. 7-21; 김용진·조현신,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간판디자인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48(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09.12), pp. 104-126; 오주은, 「일제강점기 간판디자인의 시각성」, 『Archives of Design Research』 122(한국디자인학회, 2017), pp. 183-195; 김용진, 「한국 간판디자인의 시대적 변천과 조형적 특징: 조선시대 후기부터 2010년까지」(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김병주·석강희, 「일제강점기 간판건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66(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9), pp. 189-198; 박은영, 「시각문화의 관점에서 본 근대 도시경성의 간판」, 『美術史論壇』 51(한국미술연구소, 2020.12), pp. 69-98 등.

다시 말해 1922년 제작된 중화루 간판들은 100년 동안의 사회문화사적 변화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중화루는 1915년 인천의 일본 조계지에 위치한 3층 벽돌건물[洋屋]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³ 외벽과 실내의 간판들은 재료와 형태에서 중국적인 색채가 강하고, 나무판에 길상적인 문양을 장식하고 상호(商號)나 짝을 이룬 문구를 각(刻)한 것은 일본 간판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전통시대에 사용된 상점 표지의 종류와 역사적 변천을 문헌기록이나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일본 간판의 유형이나 양상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중화루 간판의 연원을 제시하고, '승우여운(勝友如雲)'·'과주임풍(把酒臨風)'·'춘광화애(春光和愛)'에 담긴 함의(含意)와 공예기법으로 장식된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여 중화루 간판의 역사적 또는 문화사적 의미나 가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전통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상점 표지

간판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 상권(商圈)의 확장과 더불어 한반도에 유입되었고, 1920년대로 접어들면 근대 도시는 물론 전통 상가에서 일본 간판을 접하는 것은 흔한 일상이 되었다. 이때 상점의 지붕 위에 상호가 적힌 표지를 올린 야네간판이 가장 많았으며,⁴ 벽면에 문자를 오려서 붙인 벽면문자(壁面文字), 전등을 활용한 네온사인 간판, 건물 위에 별도의 대형 표지를 세우는 광고탑(廣告塔) 등이 등장하였다.⁵ 이러한 일본 간판들은 근대화를 나타내는 새로운 물질문화로 인식되었지만, 중화루 간판은 이와 다른 중국적 색채를 보여주므로 전통시대의 상점 표지와 역사적 변천을 통해 그 연원을 유추해 보려고 한다.

1. 전통시대의 상점 표지

우리나라는 중국의 시초, 일본의 간판처럼 상점 표지를 총칭하는 용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문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후집(東國李相國後集)』에 실린 「주패(酒旆)」 2수를 통해 술집에서 '주기(酒旗)'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1123)과 『세종실록』에서 판매하는 물품 종류나 상호를 '알리는' 표지가 존재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된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중국이나 일본처럼 상점 표지가 발달하지 못한 것은, 국가나 관청의 물품을 특정 상인이 공급하는 시전(市廛)체제가 지속되고 상업을 천시하는 풍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³ 중화루는 1917년 또는 1918년 개업으로 알려졌으나 개업 20주년 기념사전에 의해 1915년으로 바로 잡는다.

⁴ 오주은, 앞의 논문, pp. 186-187.

⁵ <https://ja.wikipedia.org/wiki/看板>

⁶ 김용진·조현신, 앞의 논문, pp. 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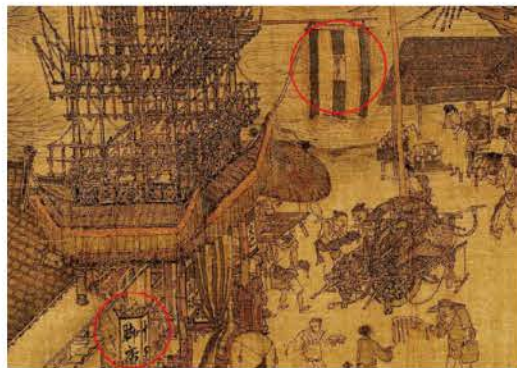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전국시대 말부터 주기로 술집 위치를 알렸으며, 『한비자(韓非子)』 권34 외저설(外儲說)에 실린 다음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宋나라 사람 중에 술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 술을 되는 양이 매우 공평하고 손님을 맞는 태도가 매우恭謹하며, 빛은 술의 맛이 매우 좋고 酒旗를 아주 높게 달았다. 그런데도 술이 팔리지 않아 쉬어버렸다(宋人有酤酒者 升概甚平 遇客甚謹 爲酒甚美 縣幟甚高 然而不售酒酸).”⁷

여기서 주기를 높이 단 이유는 여행객이 먼 곳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며, 손님 응대 예절을 중요시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주기’는 망자의 일종으로 장대 끝에 푸른색 천을 매달거나 천 위에 ‘주(酒)’자나 상호, 술 이름, 또는 경계의 문구를 쓰기도 하였다.

북송의 장택단(張擇端)이 1120년경 그린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북경 고궁박물관)는 청명절(淸明節)을 맞아 수도 변경(汴京)의 변하(汴河)를 따라 펼쳐진 시가(市街)에 인파가 넘쳐나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풍속화이다. 화면에서 홍교(虹橋) 주변을 지나가는 상선(商船)들이나 배는 무역활동이 활발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찻집[茶房], 술집[酒肆], 정육점[肉脯], 비단, 보석과 향료, 장례용품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점들뿐만 아니라 병자를 진료하고 약재를 팔았던 한의원 등에서 망자와 문 앞 양쪽에 글자를 적어서 걸어두거나 입간판처럼 세워둔 초패(招牌) 등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일례로 홍교로 진입하기 직전 왼쪽에 위치한 술집을 보면 동종업종 간의 경쟁 때문인지 다양한 종류의 시초가 걸려 있다(그림1). 입구 위에 세워진 커다란 장식품은 멀리서도 술집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로 기능하였으며, 장대 끝에 ‘신주(新酒)’라 적은 네모난 천을 매단 망자가 걸려 있다. 그리고 입구의 좌우 기둥에는 각각 ‘미록(美祿)’과 ‘천지(天之)’라 적힌 초패가 있고, 입구의 처마 아래에는 ‘치주(稚酒)’라 적힌 현판도 보인다. 그리고 기둥 옆의 ‘십천각점(十千脚店)’이라 적힌 사각형 등불은 밤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림1 술집, 장택단의 〈청명상하도〉(부분), 1120년경, 견본채색, 528.7×24.8cm



출처: 북경 고궁박물관

그림2 한의원, 장택단의 〈청명상하도〉(부분), 1120년경, 견본채색, 528.7×24.8cm



출처: 북경 고궁박물관

⁷ 원문과 번역문은 <https://www.itkc.or.kr>에서 인용.

또 다른 예로 두루마리 끝부분에 위치한 한의원에서도 다양한 시초들이 발견된다(그림2). 처마 밑으로 ‘조태승가(趙太丞家)’를 한자씩 적은 네모난 현판이 보이고, 입구 좌우에 ‘술병은 진방집향환(治酒所傷眞方集香丸)’과 ‘위장병은 태양중환(太陽中丸醫腸胃病)’이라 적힌 초패를 세워 주요 환약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왼쪽 안쪽으로 세워진 ‘조태승호리남부아과(趙太丞號理男婦兒科)’라는 초패와 기둥의 ‘오노칠상○○○(五勞七傷○○○)’이라 적힌 표지는 내과와 소아과가 전문 진료과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밖에 건물 안쪽을 보면 의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이 안고 있는 어린아이를 진료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그려진 작자미상의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장대 끝에 판매 물품이나 글자가 적힌 천을 매단 망자와 상점 입구의 곳곳에서 초패가 보인다.⁸ 제3쪽 하단에 위치한 음식점을 보면 장대에 ‘태평(太平)’이라는 문자를 걸어 놓은 망자가 마당에 있는데, 이는 상점 위치를 나타냄과 동시에 음식을 먹으며 걱정을 잊고 평안하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그림3). 입구 양쪽의 초패에는 각각 ‘속임이 없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無欺心自安)’와 ‘손님이 있어 덕이 커지네(有客德乃大)’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⁹ 이는 상업활동의 윤희성을 강조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청명상하도〉에서 ‘조태승가’ 한의원이 대표 환약이나 진료과목을 적었던 것에서 유추적 문구로 진전된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제5쪽의 오른쪽 하단에는 생선을 파는 노점상이 물고기 모형의 망자를 세워놓고 있다(그림4).

그림4 노점의 생선가게, 〈태평성시도〉8쪽 병풍 중 제5쪽(부분), 조선 후기, 견본채색, 각각 49.1×113.6cm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그림3 음식점, 〈태평성시도〉8쪽 병풍 중 제3쪽(부분), 조선 후기, 견본채색, 각각 49.1×113.6cm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태평성시도〉를 이수미는 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태평성대를 염원하며 이상적 성시(城市)를 그린 것이라 해석하였고(『〈태평성시도〉와 조선 후기 상업공간의 묘사, 『미술사와 시각문화』 3,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4.10, pp. 38-67), 전지민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관등 풍속과 상업 공간을 결합하여 태평성대의 이상 사회를 나타낸 것이라 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 연구: 등시(燈市)로 표현된 태평성대(太平聖代)』, 『미술사와 시각문화』 25,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0.5, pp. 184-219). 김용진·조현신은 현대 간판의 연장선상에서 조선 후기의 상점 표지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였다(앞의 논문, pp. 35-52).

⁹ 이수미, 앞의 논문, pp. 51-52; 김용진·조현신, 앞의 논문, p. 47 인용.

명청대에 이르면 상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명 서예가에게 받은 글씨로 현판을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초패에 운영 방식이나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문구들을 대련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일례로 숙박업에서는 ‘늦기 전에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 하늘을 보라(未完先投宿 鷄鳴早看天)’는 문구를, 술집에서는 ‘세상에 이런 술이 없고, 천하의 유명한 누각에 있네(世間無此酒 天下有名樓)’라는 문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개의 상점에는 ‘뜻하는 사업이 봄풀처럼 성장하고, 재물이 물처럼 들어오네(生意如春草 財源似水泉)’를 걸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⁰ 따라서 <태평성지도>에 등장하는 대련 형식의 초패는 18세기 후반 연경을 방문한 사행원들에 의해 알려진 유리창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짐작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시대 말부터 여행객이 먼 곳에서 술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망자의 하나인 주기가 사용되었다. 북송대에는 나무판에 상호를 적은 현판을 처마 아래 걸거나, 입구 양쪽에 판매 품목을 적은 초패를 대칭으로 배치하였다. 명청대에는 유명 서예가의 글씨로 현판을 제작하여 상점의 가치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이나 윤리적 덕목 또는 사업 번창을 의미는 문구들을 적거나 새긴 초패를 내걸었다.

2. 일제강점기 간판의 유입과 확산

1876년 개항 이후 외국 자본의 침투로 시전 중심의 봉건적 상업체제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갑오개혁 때 육의전의 특권을 혁파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18세기 후반 급난전권에 대항하며 성장한 사상(私商)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였지만, 상점 표지는 판매 물품의 모형이나 실물을 걸어두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례로 동근 테두리에 긴 천을 여러 개 매단 국수 모형의 망자를 걸어 놓은 음식점이나 유기로 만든 팥과리 또는 생선 두름 등의 실물을 처마 아래 걸어 놓은 20세기 초의 사진들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준다(그림5, 6)."

그림5 음식점, 1910년 이전



출처: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그림6 유기전, 1910년대



출처: 서문당

¹⁰ <https://baike.baidu.com/item/%E6%8B%9B%E7%89%8C/355533?fr=aladdin>

¹¹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최석로 해설, 『민족의 사진첩』 IV 개화기의 생활과 풍속(서문당, 2007), p. 90.

1910년을 기점으로 일본 간판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1912년 12월 26일자 『매일신보(毎日申報)』에서 요시히로(吉弘) 경무부장이 헌병분대장과 경찰서장에게 관할 약국의 간판 크기를 세로 2척, 가로 7촌으로 통일하도록 한 것은 각양각색의 간판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려준다.¹² 또한 1913년 12월 1일자 『매일신보』에는 동대문 경찰분서가 12월 15일 이내에 관내 음식점과 객주집(宿屋)의 규모를 일신하기 위해 간판 표기를 ‘여인숙영업(旅人宿營業)’으로 통일하고, 표등(標燈)은 대문의 오른쪽에 달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기사가 보인다.¹³ 이는 1910년대 초반부터 동종업종 간의 경쟁으로 간판 난립이 사회문제가 되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경성의 황금정통(黃金町通, 현 을지로) 네거리를 1915년 이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 2층의 중국식 건물 지붕 위에 ‘최성필건재약국(崔聖弼乾材藥局)’이라 적힌 야네간판이 보인다(그림7).¹⁴ 그리고 약재상 왼쪽으로는 십팔은행(十八銀行) 경성지점이 보이고, 길 건너편의 오른쪽에는 동양척식회사(東洋拓植會社) 본점이 자리하고 있다. 최성필은 남대문동 1정목 33번지에서 영창당건재약국(永昌堂乾材藥局)을 운영한 약재상이며, ‘영창당’이라는 상호 대신 ‘최성필’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 무렵 간판에 상점 주인의 이름을 적는 것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였는지 1912년 8월 30일자 『매일신보』에 평양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는 여주인이 자신의 이름을 간판에 넣어 ‘부인 이우춘 상점(婦人 李遇春 商店)’이라 했다는 기사도 보인다.¹⁵

그림7 최성필건재약국, 1915년 이전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그림8 교자전, 1920년 이전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¹² 「藥局看板掲」, 『毎日申報』, 1912.12.26.(1)

¹³ 「간판 붙이고 등 달게」, 『毎日申報』, 1913.12.1.(3)

¹⁴ 『京城繁昌記』(博文社, 1915).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

¹⁵ 「李遇春의 商店: 이우춘의 상점 간판」, 『毎日申報』, 1912.8.30.(3)

1920년 이전 촬영된 가마 상점인 교자전(轎子廬) 사진에는 하나의 건물 지붕 위에 2개의 야네간판이 올려져 있다(그림8).¹⁶ 하나는 가마를 타고 가는 그림과 함께 ‘轎子廬’과 ‘가마전’이라는 상호가, 다른 것에는 이충농과 탁자 사이로 ‘東西洋細木工場所’와 ‘동서양세목공장소’라는 또 다른 상호가 적혀 있다. 이는 가마와 가구는 목재를 다루는 기술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업종을 구분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작 판매한다는 사실을 홍보한 것이라 이해된다. 또한 근대 건물이 세워진 종로거리를 촬영한 사진에서 오른쪽을 보면 ‘한흥양복점(漢興洋服店)’이라는 간판에 산수화가 그려져 있다(그림9).¹⁷ 또 다른 예인 종로통의 사우양화점(四友洋靴店)의 야네간판도 상호가 거리 풍경을 배경으로 중앙에 세로로 쓰여 있는데(그림10), 이는 조선일보사에서 침체된 조선인 상점의 번영을 돕기 위해 우수간판선발 행사에서 2등을 한 것이다.¹⁸ 이와 같이 상호와 그림을 결합한 간판은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으로, 중화루 간판들이 길상적 문양을 장식한 다음 그 위에 상호나 문구를 새긴 것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9 한흥양복점, 1921년 이전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그림10 사우양화점, 1926년



출처: 『朝鮮日報』, 1926.2.20.(2)

그림11 경성의 혼마치, 1920년대



출처: 서문당

16 『朝鮮風俗風景寫眞帖』(朝鮮風俗研究會, 1920).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

17 『寫眞帖 朝鮮』(朝鮮總督府, 1921).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

18 『朝鮮日報』, 1926.1.30.(2); 『朝鮮日報』, 1926.2.20.(2).

1920년대에 이르면 일본 상점들이 밀집한 경성 혼마치(本町, 현 충무로)를 비롯해 개항장 인천, 목포, 원산 등의 조계지 상가에는 야네간판, 네온사인, 벽면문자, 광고탑 등이 건물의 외벽을 장식하며 천지개벽한 세상을 즉물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례로 진고개에서 혼마치로 바뀐 다음 일본인 독점 상가로 변창한 거리 입구를 촬영한 1920년대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위치한 시노사키(シノサキ) 문구점을 기점으로 백화점, 양복점, 카메라점 등이 줄지어 있다(그림11).¹⁹ 이때 오른쪽의 2층 건물은 문구점으로 1층 입구 정면에는 ‘시노사키’라는 상호가 현판 형태로 걸려 있다. 그 좌우의 세로 표지에는 ‘측량제도기기(測量製圖器械)’와 ‘문방제(文房製○○○)’라 적어 판매 물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층과 2층의 경계에는 문구점을 의미하는 벽면문자 ‘STATIONER’가 있고, 2층 정면에는 ‘측량제도기계 사무용제기계(測量製圖機械 事務用諸機械)’라 적힌 대형의 네온사인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로 벽면문자로 된 ‘시노사키 빌딩(ヒルテインク)’이라는 건물명칭이 보인다.

그림12 인천 궁정통 입구, 1910년대 후반



출처: 『선구지 인천의 근대풍경(1883-1945)』, 2013 전제

그림13 인천 궁정통 입구, 1920년대



출처: 인천광역시 중구청

또 다른 예로 왼쪽의 신포동과 오른쪽의 신생동으로 나뉘는 인천 궁정통(宮町通, 현 중구 신생동) 입구를 촬영한 1910년대 후반 염서와 1920년대 사진은 간판이 거리의 외관 변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잘 보여준다. 1910년대에는 일본식 목조가옥 지붕 위에 일본산 삿쵸로 맥주를 홍보하는 “SAPPORO★BEER サッポロビール”라는 커다란 야네간판과 그 위로 세워진 광고탑만으로도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그림12). 1920년 이곳에 3층 벽돌건물이 세워지고, 여급(접대부)을 두고 맥주와 서양요리를 판매하는 카페 금파(金波)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그림13).²⁰ 이 건물의 1층 입구 위에 있는 ‘금파’를 비롯해 2층 정면의 빛꽃 문양을 감싸고 있는 ‘사쿠라 비루(サクラビール)’, 2층과 3층 좌우 벽면의 ‘サクラビール’, 3층 정면의 ‘RESTAURANT’까지 모두 간판이 벽면문자로 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 간판으로 채워진 3층 건물의 금파는, 궁정통 입구에 우뚝 솟은 인천의 마천루로 누구나 먼 곳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19 최석로 해설, 『민족의 사진첩』Ⅳ 개화기의 생활과 풍속(서문당, 2007), p. 61.

20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선구지 인천의 근대풍경(1883-1945)』, 2013, p. 125, 132.

그림14 대판표기제작소 광고



출처: 『朝鮮新聞』, 1926.6.3.(7)

1920년대 중반부터는 간판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상점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경성 대화정(大和町) 1의 46에 위치한 이동간판점(伊東看板店)이 1925년 1월 3일자 『조선신문(朝鮮新聞)』에 광고하였고,²¹ 일본 오사카(大阪)에 위치한 대판표기제작소(大阪標記製作所)가 1926년 6월 3일자 『조선신문』에 광고한 내용은 재료가 목재에서 빔랑, 청동, 범랑 등 금속으로 옮겨 갔음을 알려준다(그림14).²² 그리고 도경찰부(道警察部)가 각 경찰서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간판들은 모두 철거하라는 엄명을 내렸다는 기사는 간판의 무분별한 난립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시사해준다.²³ 1930년대에는 한글이 포함된 간판들이 대거 등장하였고, 단순히 상호만을 적었던 전통시대 현판과 달리 일본 간판은 문자와 삽화나 기하학적인 장식 또는 그림을 결합하거나, 일본어나 영어로 표기된 상호 등을 제한된 공간에 재구성하면서 디자인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인 1946년 2월 18일 종로 청년회관에서 도장간판노동조합(塗裝看板勞動組合)이 결성되었고 왜색(倭色) 간판의 전면적인 척결에 나섰는데,²⁴ 이때 중화루 간판들은 중국풍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시대의 상점 표지는 단순히 판매하는 물품이나 위치 정보를 ‘알리는’ 정도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상업이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면서 근대 도시의 거리를 가득 채운 야네간판, 벽면문자, 네온사인, 광고탑 등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향해 상점을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간판은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을 알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근대 문물을 둘러싼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 이미지로 근대 도시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하였다. 동시에 과도한 간판 난립은 거리의 경관을 해치는, 즉 양가적(兩價的) 의미를 지닌 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각문화가 아닐 수 없다.

21 賀正 광고, 『朝鮮新聞』, 1925.1.3.(1)

22 “腐蝕クーマ, 七寶入メタル, 電燈水道露用家門標, 鉄力印刷, 青銅看板”, 『朝鮮新聞』, 1926.6.3.(7)

23 「市内看板取締」, 『中外日報』, 1926.12.8.(2)

24 「倭色看板一掃, 塗裝看板勞組決議」, 『中央新聞』, 1946.2.25.(2); 「倭式이 그리우면 日本가지 서울북판에 왜간판은 웬말」, 『漢城日報』, 1948.10.19.(2) 등 다수.

Ⅲ. 중화루 간판의 구성과 특징

중화루는 일본 조계지인 본정통(本町通) 1-18번지에 위치한 3층 양옥건물에서 1915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²⁵ 이때 1900년을 전후해 대거 이주한 산동성 출신의 중국 노동자들은 인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화루를 비롯한 동흥루(同興樓, 1911년), 공화춘(共和春, 1912년) 등 중국요리점의 대성공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특히 중화루는 북경요리 전문가인 주대인(周大人)의 솜씨가 알려지면서 경성 인사들은 물론 전국에서 이곳을 찾았다.

1920년대 중반 중화루는 인천의 명소가 되었으며, 1928년 8월 발간된 월간지 『별건곤』 15호에서 5대 도시의 밤거리 풍경을 소개할 때 중화루가 포함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준다. 파영생(波影生)은 「인천, 米豆나라 仁川の 밤 世上」에서 인천 밤거리를 돌아보며 중화루도 방문했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서 청요리 제일인 곳이 인천이요. 인천서 제일 좋은 집이 中華樓라 모여드는 遊客이 많다고 하기에 밤새 영업한다는 말을 믿고 그 길로 支那街를 지나 찾아가니 한 時도 30분이나 넘어서 金懸板 달린 문이 쾅쾅 잡혔다.”²⁶

이를 통해 1920년대 후반 중화루는 인천 제일의 중국요리점이 되었고, 출입문 위에 금색으로 된 현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붉은색 벽돌 건물과 금색 현판의 중화루는 중국적 색채를 강하게 보여주며, 상점을 홍보함과 동시에 중국인의 위상을 재고하는 역할도 겸하였을 것이다. 대성공을 거둔 중화루는 1924년부터 1937년까지 해마다 신문에 신년[賀正] 광고를 하였으나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운영이 악화되면서 중단하였다.²⁷ 이로 인해 해방 이후에는 뇌문조(賴文藻)의 아들 뇌성구(賴盛久)에서 서덕유(徐惠有)로 경영권이 넘어갔으며, 한국전쟁 이후 화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차별정책으로 창업자인 뇌씨 집안이 195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점차 명성을 잃어갔다.²⁸ 1970년 초 문을 닫은 중화루 건물에 화교들이 거주하였으나, 호텔 건축을 이유로 1978년 7월 철거되었고, 이때 수습된 간판들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1980년 7월 10일 기증되었다.

25 대불호텔과 중화루의 역사적 사실은 김창수, 「인천 大佛호텔·中華樓의 변천사 자료연구」, 『인천학연구』 13(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0.8), pp. 275-316 참조 바람.

26 개성, 인천, 원산, 평양은 소개되었으나 기획된 대구는 빠져 있다. 「本支社記者 五大都市 暗夜 大探查記」, 『별건곤』 15호(개벽사, 1928.8), p. 71.

27 중화루는 1924년 1월 1일 『朝鮮新聞』의 신년광고를 시작으로 해마다 신문에 광고하였으나, 1937년 1월 7일 『朝鮮日報』 광고가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8 중화루의 쇠락은 『朝鮮日報』(1968.9.17.5면), 『東亞日報』(1972.12.16.7면), 『東亞日報』(1976.2.13.7면)에 실린 사진에서도 확인된다.

1. 외벽의 간판들

중화루의 직원 왕영성(王榮盛) 씨와 동료 및 가족들이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은, 중화루 외벽의 간판들을 살피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그림15). 2층 중앙에는 ‘화기 중화루(和記 中華樓)’ 간판을 이등변삼각형 박공이 장식하고 있으며, 그 오른쪽과 왼쪽에는 각각 ‘중화북경(中華北京)’과 ‘우등요리점(優等料理店)’이 보인다. 1층 출입문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각각 ‘중화루(中華樓)’와 ‘승우여운(勝友如雲)’이라는 현판이 있고, 바로 위에는 ‘CHUNG HWALOO CHINESE RESTAURANT BAR’라는 영어 간판이 걸려 있다.

하지만 1940년대 초 촬영이라 알려진 이 사진 속의 간판들은 새로 단장한 것처럼 선명할 뿐만 아니라 2층 테라스 바로 아래의 영어 간판은 촬영 시점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이와 관련해 경성지방법원에서 1943년 8월 12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인천 항일단체인 일동회(日東會) 사건을 조사한 내용과 현장검증 사진을 정리한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 기록 270』에 포함된 한 장의 사진이 주목된다(그림16).²⁹ 이것은 1943년 현장검증을 하며 중화루와 송죽루가 위치한 본정통 거리를 촬영한 것으로 중화루 앞에는 여러 대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고, 길 건너편의 스위트드 호텔 건물에는 ‘송죽루(松竹樓)’와 ‘특등(特等)’, ‘요리(料理)’라는 간판이 보인다.³⁰

그림15 중화루 직원 왕영성과 동료 및 가족들, 1940년대 후반



출처: 『煙台日報』, 2009.7.11.

그림16 중화루와 송죽루, 1943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29 이정희, 「중일전쟁 시기 조선화교의 항일운동」, 『동양사학연구』 139(동양사학회, 2017.6), pp. 348-352.

30 송죽루는 1911년 스위트드 호텔에서 운영을 시작한 동흥루(同興樓)를 1935년 서문당(徐文堂)이 인수한 다음 상호만 바꾼 것이다.

1층 오른쪽 출입구의 ‘중화루’ 간판은 상당히 남아 보이며, 영어 간판 자리에는 일제강점기의 전화번호 ‘구오칠(九五七), 사일오(四一五)’와 ‘중화북경우등요리(中華北京優等料理)’라고 적혀 있다. 또한 거리의 모습에서 1920-30년대의 호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중일전쟁 이후 침체된 인천 경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1941년 경기도 경찰부에서 인천 요리점의 영업상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다음의 <표> 역시 중화루의 영업이 위축되어 갔던 정황을 알려준다.

표 중화루와 공화춘의 고객수 및 매출액 비교³¹

	1940년 8월		1941년 7월		1941년 8월	
	고객수	매출액	고객수	매출액	고객수	매출액
중화루	4,304	8,167	4,627	7,292	4,352	6,667
공화춘	1,542	3,459	2,539	6,596	2,719	7,463

공화춘의 고객수와 매출액은 1940년 8월 이후 꾸준히 상승한 반면, 중화루는 1940년 8월부터 1941년 8월까지 거의 4,000명대 고객을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나 1941년 8월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이로 미루어 중화루는 고급음식점에서 대중음식점으로 바뀌어 갔고, 1943년 사진에서 중화루 앞의 자전거들은 음식 배달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왕영성 씨가 포함된 사진은 1940년대 초가 아니라 해방 이후 뇌씨 집안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 받은 서덕유가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며 간판을 새롭게 단장한 1940년대 후반 촬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영어 간판은 해방 직후 인천에 미국인이 늘어나면서 전화번호와 ‘중화북경우등요리’라 적힌 일제강점기 간판을 교체한 것으로 1940년대 후반 촬영되었다는 의견에 설득력을 더해준다.³²

중화루의 외벽 간판들 가운데 2층의 박공 장식과 1층의 ‘중화루’ 현판 및 ‘승우여운’ 잔편이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층의 장식은 목재 3개를 잇댄 이등변삼각형이며, 양쪽 변은 나무를 톱나 모양과 여의두 모양으로 깎은 부재로 장식되어 있다(그림17). 그 안쪽에는 여의주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둥근 원 위에 ‘중(中)’자가 있고, 그 위로 ‘신(新)’자가 덧붙여져 있다. 여의주의 좌우로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 모양을 새긴 나무판이 부착되어 있다. 중화루의 주요 출입구라 생각되는 1층 오른쪽 문 위의 ‘중화루’와 왼쪽 문 위의 손님이 구름처럼 물려든다는 의미의 ‘승우여운’은 나무판을 잇대어 만든 전통적인 현판 형식이며, 금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시인성(視認性)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그림18). 다시 말해 중화루 간판을 제작할 때 원거리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색채를 사용했던 것이다.

31 중화루와 공화춘의 영업 실적 <표>는 김창수, 앞의 논문, p. 304 <표3> 재인용.

32 필자는 중화루의 2층 간판은 해방 이후에 처음 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중화루가 대불호텔에서 1915년 영업을 시작할 때 1층은 음식점, 2층은 마작방, 3층은 객실로 그 용도가 약간씩 달랐고, 1943년 사진에서 2층의 오른쪽에 간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제강점기에 중화루의 전면을 찍은 사진이 발견된다면 확실해질 것이다.

그림17 중화루 2층의 삼각형 장식품, 1940년대 후반, 346×114cm



그림18 중화루 사진, 1977년



출처: 『朝鮮日報』, 1977.2.12.(3)

현재 ‘승우여운’은 훼손이 심하여 ‘승우’라는 글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으며, ‘중화루’는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그림19). 목재 5개를 이은 상당한 크기의 나무판 중앙에는 ‘중화루’가 반양각되어 있으며, 오른쪽 끝에는 ‘임술중춘(壬戌仲春)’을 음각하고, 왼쪽 끝에는 ‘부배동(傅培桐)’을 음각한 다음 백문방인(白文方印)의 ‘부배동인(傅培桐印)’과 주문방인(朱文方印)의 ‘점양(占陽)’이 각(刻)되어 있다.³³ 이는 서예가가 ‘중화루’라는 글씨를 쓴 다음에 관지(款識)까지 한 서예작품을 1922년 3월 무렵 나무판에 그대로 옮겨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청대에 규모가 큰 상점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명 서예가의 글씨로 현판을 제작했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33 부배동은 인천에서 이통호(利通號)와 포목상 영래성(永來省)을 운영하던 부소우(傅紹禹, 1897-1954)의 다른 이름으로 알려졌다. 민국기 서예가임이 주희풍 선생님의 번역임을 밝혀둔다.

나무판의 표면에는 은입사(銀入絲)처럼 끝로 윤곽선을 파낸 다음 무언가를 삽입하는 공예기법으로, 중국의 고대 청동기인 종정문(鐘鼎紋)과 공작 깃털이 꽃힌 청동기가 장식되어 있다(그림20). 가장 오른쪽에 ‘보종(寶鐘)’이 전서로 새겨진 청동종(鐘)을 시작으로 ‘보존자손보향(寶尊子孫保享)’이 새겨진 청동정(鼎), 공작 깃털과 서화 두루마리가 꽃힌 청동준(尊), ‘문고○숙보준이자손기영보용(文考○叔寶尊彝子孫其永寶用)’이라 새겨진 청동감(鑑)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³⁴ 이러한 고대 청동기 문양은 길상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19세기에 청동기만을 다양한 색채로 그려 장식성을 강조한 종정도와 기명절지도가 유행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의 작가미상 〈준이종정도(尊彝鐘鼎圖)〉 10폭 병풍과 조석진(趙錫晉, 1853-1920)이 그린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는 그러한 예들이며 (그림21, 22), 중화루 현판의 청동기 문양은 사업이 번창하고 후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복적(祈福的) 성격을 지닌다.

그림19 중화루 1층 현판, 1922년, 목재, 280×129cm



그림20 종정문, 그림19의 부분



34 중화루 간판을 장식한 청동기의 전서는 주희풍 선생님의 번역임을 밝혀둔다.

그림21 작가미상, <준이종정도> 10폭 병풍, 19세기 말 20세기 초, 비단에 채색, 각각 34.5×242.5cm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그림22 조석진, <기명절지도> 2폭 병풍, 19세기 말 20세기 초, 비단에 채색, 각각 61.6×153.7cm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그림23 중화루, 1950년대



출처: 화도진도서관

1940년대 후반 왕영성 씨가 등장한 사진과 최성연의 『개항과 양관역정』(경인문화사, 1959)에 실린 사진을 비교하면, 간판의 일부가 바뀌어 있다(**그림23**). 2층 벽 모퉁이에 돌출된 입체형 간판이 새로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등변삼각형 박공에서 둥근 원 위의 글씨가 ‘중(中)’에서 ‘신(新)’으로, 오른쪽의 ‘중화북경(中華北京)’은 ‘중화북평(中華北平)’으로 바뀌어 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대립하는 냉전시대에 중국을 의미하는 ‘중’과 ‘북경’을 ‘신’과 북평의 다른 이름인 ‘북평(北平)’으로 교체한 것이다. 국제적 외교 관계의 변화가 간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현재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소장된 이등변삼각형 박공을 보면 ‘중’자 위에 ‘신’자를 덧붙인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

2. 실내의 간판들

중화루 실내에서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던 또 다른 장식용 현판 2점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먼저 ‘파주임풍(把酒臨風)’이라 적힌 현판을 보면, 목재 4개를 연결한 나무판 위에 십장생도(十長生圖)의 경물 일부를 은입사 같은 공예기법으로 표현하였다(**그림24**). 네모난 공간의 양 끝에 오동나무와 소나무를 커튼처럼 배치하였고, 한 쌍의 학과 사슴이 바위들 사이로 계류(溪流)가 흐르는 중앙 부분에서 노닐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다음 그 위에 금색을 칠하였다. 이러한 장면은 공예적 재료와 기법으로 높은 회화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목판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림24 파주임풍 현판, 1922년, 185×114cm



특히 오동나무와 소나무가 만들어낸 공간은 1920년 창덕궁의 대조전을 장식했던 <봉황도(鳳凰圖)>와 <백학도(白鶴圖)>를 연상시킨다(**그림25**). 오동나무를 배경으로 노니는 봉황을 그린 <봉황도>와 백학이 달을 배경으로 소나무를 향해 날아드는 <백학도>는 음양의 조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황제 부부의 장수와 평안을 기원한 것이다. 따라서 오동나무와 소나무로 구획된 공간에 학, 사슴, 물, 바위 같은 십장생의 일부를 묘사한 것은 이상적인 낙원에서의 장수와 평안을 기원한 것이라 해석된다(**그림26**). 그리고 ‘파주임풍’이라는 글자 위에서 날개를 활짝 편 채 날고 있는 박쥐[蝙蝠]는 오복(五福)을 상징한다.

그림25 창덕궁 대조전 동벽의 <봉황도>과 서벽의 <백학도>



출처: 문화재청 <https://www.cha.go.kr/>

그림26 작가미상, <십장생도> 10폭 병풍, 19세기-20세기 초, 견본채색, 376.6×152.5cm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그림27 춘광화에 현판, 1922년, 185×112cm



나무판의 중앙에는 행서(行書)의 '파주임풍(把酒臨風)'을 반양각으로 새긴 다음 붉은색을 칠하였다. 이 문구는 술잔을 들고 맑은 바람을 마주한다는 뜻으로 중화루를 찾은 손님들이 여유롭고 유유자적하게 즐기라는 주인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외부의 '중화루' 현판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에는 '임술중춘', 왼쪽 끝에는 '육려왕경증(育黎 王景曾)' 다음에 백문방인 '왕경증인(王景曾印)'³⁵과 주문방인 '자기오씨(字淇吾氏)'가 새겨져 있다. 이는 외부의 '중화루' 현판처럼 '파주임풍'도 서예가 왕경증에게 받은 글씨로 1922년 3월 무렵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관자까지 붉은색으로 칠하였으며, 현판의 테두리는 초록색을 칠한 죽절문(竹節紋)의 별도 목재로 마감하였다.

또 다른 실내 현판의 중앙에는 '봄에 파스한 햇살이 비치니 화기에에하구나'라는 의미의 '춘광화에(春光和霽)'가 음각되어 있다(그림27). 역시 목재 4개를 이은 나무판의 중앙에는 '춘광화에'를 새기고 그 위와 아래로는 은입사 같은 공예기법으로 기명절지도에 등장하는 청동기 문양을 일렬로 배치하였다. 청동기의 종류가 다양하며, 과일이나 문방구, 화초 등이 담겨 있는 것도 보인다. 이러한 종정문은 복록과 자손 번창을 상징하는 길상문(吉祥紋)으로 '춘광화에'라는 문구와 함께 사업 번창을 기원한 것이다. 현판의 오른쪽에는 '임술중춘', 왼쪽에는 부배동 다음에 백문방인 '부배동인'과 주문방인 '점양'이 새겨져 있어 '중화루' 현판과 함께 서예가 부배동에게 받은 글씨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탕의 장식 문양과 글씨가 각각 금색과 붉은색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판 테두리 역시 죽절문이 새겨진 초록색 목재로 마감하였다. 이처럼 글자와 관지는 붉은색, 바탕의 장식 문양은 금색(노란색), 테두리는 초록색을 사용하였다. 이는 오늘날 거리에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는 신호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손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 색채 선정에도 세심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파주임풍'과 '춘광화에' 현판은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對句)로 공간에 나란히 배치되어 손님의 시선을 끌었을 것이다. 두 문구는 손님들이 이곳에서 평안히 즐기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즉 중화루의 경영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점의 명칭이나 판매하는 물품 정보를 전달하는

35 '파주임풍' 현판에서 왼쪽 끝에 반양각된 왕경증의 백문방인 '왕경증인(王景曾印)'에서 '경(景)'을 제한된 공간에 양각하면서 '日' 부분만 크게 되고 아래가 잘려서 '정(鼎)'이라 오독될 수 있다.

그림28 작가미상, 그림가게 〈태평성시도〉 8폭 병풍 중 제5폭(부분), 조선 후기, 견본채색, 각각 49.1×113.6cm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일차원적 간판이 아니라 중화루를 찾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충분히 즐겨야 사업도 번창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파주임풍’과 ‘춘광화에’라는 제치있는 문구에 함축시킨 것이다. 이처럼 상점의 운영 원칙이나 가치를 나타낸 문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청대에 업종별로 특화된 공통의 문구를 내걸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조선 후기에 그려진 〈태평성시도〉 제5폭의 왼쪽 하단에 위치한 그림가게의 출입문 양쪽에 ‘천하 산천의 경치를 그리니(寫成天地山河景)’와 ‘먼저 선천을 얻으니 공교함이 조화를 이루네(奪得先天造化功)’라 적힌 초폐가 있고, 건물 안쪽에 ‘무한한 광풍을 종이 위에 그리네(無限光風紙上畵)’라는 초폐도 보인다(그림28).³⁶ 이러한 형식이 중화루 1층 왼쪽 출입구의 ‘승우여운’이나 실내에 걸린 ‘파주임풍’과 ‘춘광화에’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화루의 내외부 간판들은 1922년 3월 무렵 제작된 것으로, 중국요리점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공동 운영체제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이해된다. 원래 중화루는 뇌문조(賴文藻)를 비롯해 40여 명의 중국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1922년 9월 12일자로 뇌문조가 건물과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된 것이 확인된다.³⁷ 따라서 뇌문조가 공동 운영체제에서 주요 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는 변곡점이 중화루 간판 제작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³⁶ 이수미, 앞의 논문, p. 52 재인용.

³⁷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토지대장에서 소유권 변동이 확인된다.

IV. 나오는 말

간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유입된 이후, 역사적 사건이나 경제적 변화 등이 반복되는 시대 흐름과 궤를 함께 한 일종의 문화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인천 조계지의 중화루 간판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며, 1922년 3월 무렵의 간판 제작은 1915년 시작된 공동 운영체제에서 뇌문조의 비중이 점차 커지며 변화된 운영체제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2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 뇌문조의 이름이 등기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1930년대 전반까지 성공적이었지만 1937년 중일전쟁 이후의 경제적 부침은 비껴갈 수 없었으며, 1943년 경성지방방법원이 촬영한 사진에서 그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경영권이 뇌문조의 아들 뇌성구에서 서덕유로 넘어가면서 간판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이때 인천에 등장한 미국인을 의식한 때문인지 일제강점기의 한자 간판을 영어 간판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한 1950년대에는 중화루 간판에서 중국을 연상시키는 글자들이 일부 교체되었다. 이러한 변천을 거친 중화루 간판들은 100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을 견뎌낸 문화적 산물이며, 중국요리점 중화루의 성쇠(盛衰)는 물론 중일전쟁, 해방,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이나 국제 관계의 변화 등을 반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화사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중화루 간판은 일본 조계지에서 중국인 고유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시작물이었기 때문에 동시기 일본 간판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며, 그러한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제작단계에서 상호인 ‘중화루’와 실내의 ‘파주임풍’과 ‘춘광화에’를 서예가 부배동과 왕경중에게 받은 서예작품으로 나무판에 새기는 전통 방식을 취하면서 서예가의 관지까지 그대로 새겨 간판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 특징적이다. 두 번째, 손님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파주임풍’과 ‘춘광화에’로 중화루가 추구한 경영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짝을 이루는 간판 문구는 명청대에 성행한 것으로 숙박업에서 ‘늦기 전에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 하늘을 보라’는 문구를 내걸었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세 번째, 현판의 바탕은 길상성을 지닌 종정문이나 십장생 문양으로 장식하여 예술성을 배가시킨 것이다. 이는 동시기에 산수화나 그림을 배경으로 상호를 적은 일본 간판에서 영향받은 것이지만, 길상적 도상을 동시기 조선화단에서 유행한 회화작품에서 차용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네 번째, 외부 현판은 금색과 검은색, 실내 현판은 붉은색과 금색, 초록색으로 구성하여 간판의 시인성(視認性)을 높인 점이다. 이는 중화루 간판이 일본 조계지에서 중국인의 고유한 민족성을 대변하는 표상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공력(功力)과 정성을 기울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케 한다.

끝으로 이번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의 중화루 간판들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중화루의 역사적 발자취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판 제작과 관련한 전통적인 방식의 유래와 문구 및 문양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곽명희, 「일제강점기 간판 문화의 특징에 관한 연구」, 『옥외광고학연구』 1, 한국옥외광고학회, 2004, pp. 7-21.

김병주·석강희, 「일제강점기 간판건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66,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9, pp. 189-198.

김용진, 「한국 간판디자인의 시대적 변천과 조형적 특징: 조선시대 후기부터 2010년까지」,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김용진·조현신,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간판디자인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48,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09.12, pp. 104-126.

김창수, 「인천 大佛호텔·中華樓의 변천사 자료연구」, 『인천학연구』 1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0.8, pp. 275-316.

박은영, 「시각문화의 관점에서 본 근대 도시 경성의 간판」, 『美術史論壇』 51, 한국미술연구소, 2020.12, pp. 69-98.

오주은, 「일제강점기 간판디자인의 시각성」, 『Archives of Design Research』 122, 한국디자인학회, 2017, pp. 183-195.

이수미, 「〈태평성시도〉와 조선 후기 상업공간의 묘사」, 『미술사와 시각문화』 3,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4.10, pp. 38-67.

이정희, 「중일전쟁 시기 조선화교의 항일운동」, 『동양사학연구』 139, 동양사학회, 2017.6, pp. 337-370.

『개항 이후 서울의 근대화와 그 시련(1876-1910)』,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02.

『선구지 인천의 근대풍경(1883-1945)』,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13

최석로 해설, 『민족의 사진첩』 IV 개화기의 생활과 풍속, 서문당, 2007.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https://www.nl.go.kr/NL/contents>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archive/recentSeoul>



2021년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유물 자료집

중화루의 얼굴-

간판

발행일 2021.12.

발행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19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032.440.6750
<https://www.incheon.go.kr/museum>

디자인·인쇄 ithdesign

ISBN 979-11-87008-34-7

발간등록번호 54-6280254-00008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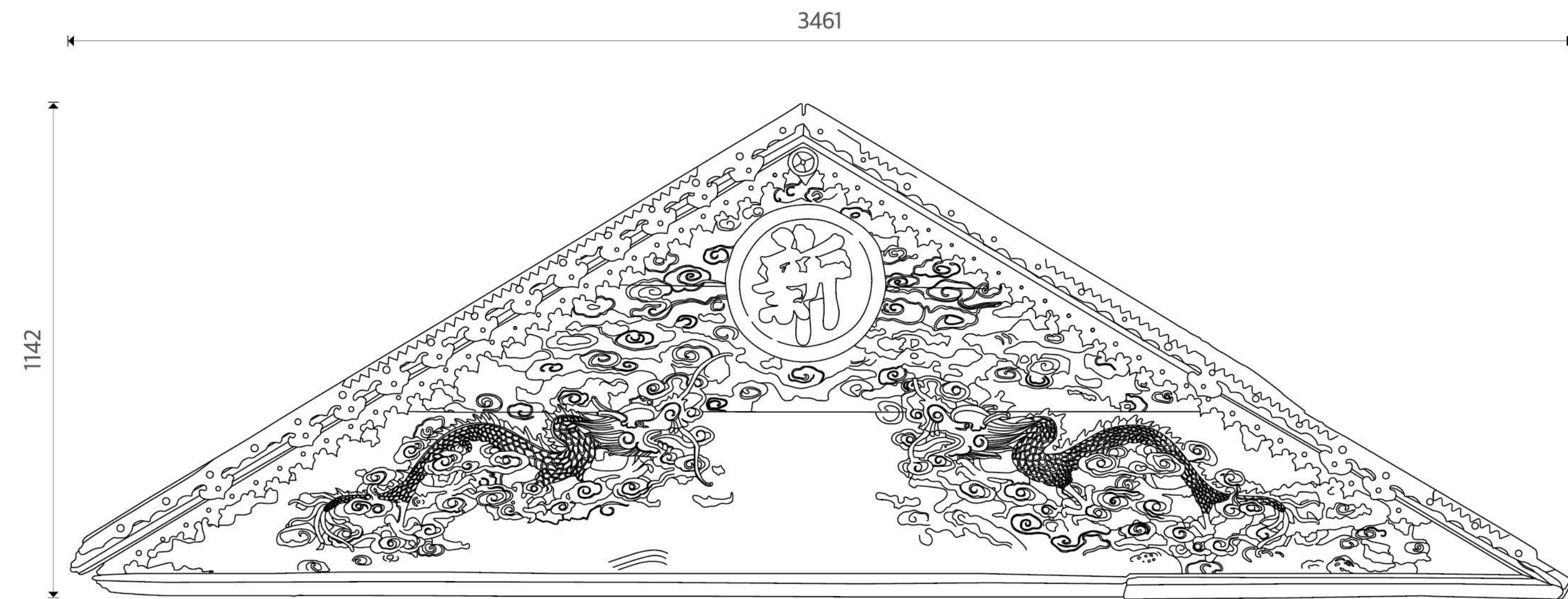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의 무단 복제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신(新)’명 간판 사진

‘신(新)’명 간판 도면



1
B 01

‘신(新)’명 간판-정면도

축척 : 1/20

